VISIT…

LANZAROTE Calien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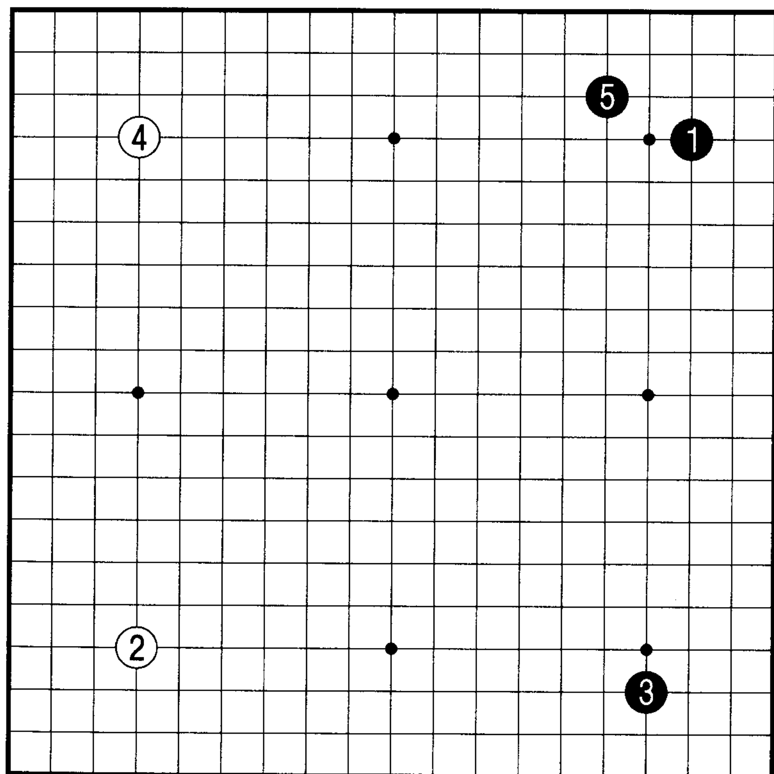
양소목 포석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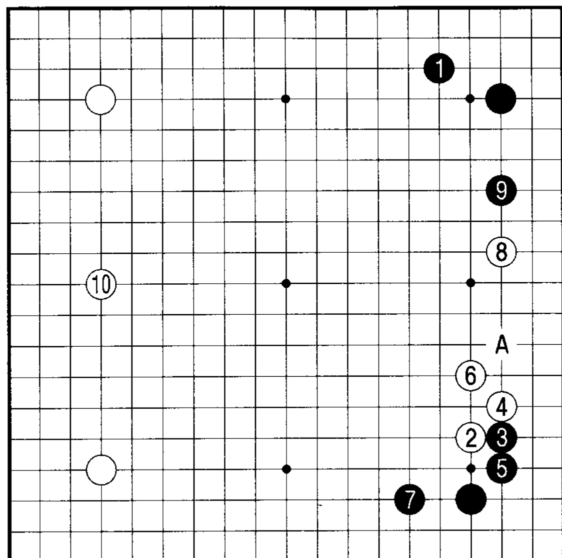
양소목 포석은 크게 나누어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엇갈린 소목의 포진과 향소목 포진으로 나눌 수 있다. 엇갈린 소목 포진은 일반 포석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슈사쿠(秀策)류의 1·3·5 포석도 이 진행에서 파생된 것이며, 향소목은 일반적으로 백의 포석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대의 기사중 일본의 가토 마사오에 의해 흑번 포석으로 애용되기 시작하여 일반 포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제53형

양소목 포석 1(2연성 대응) — 견실한 귀굳힘

흑이 두 귀를 모두 소목으로 포진한 포석 형태이다. 이에 대해 백은 2연성으로 대응한 장면인데 흑5로 귀를 굳힌 것은 견실위주의 수법. 그럼 흑5 이후의 포석 진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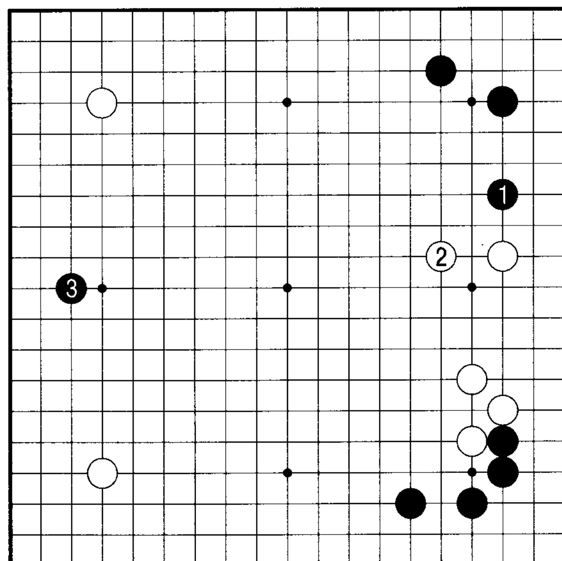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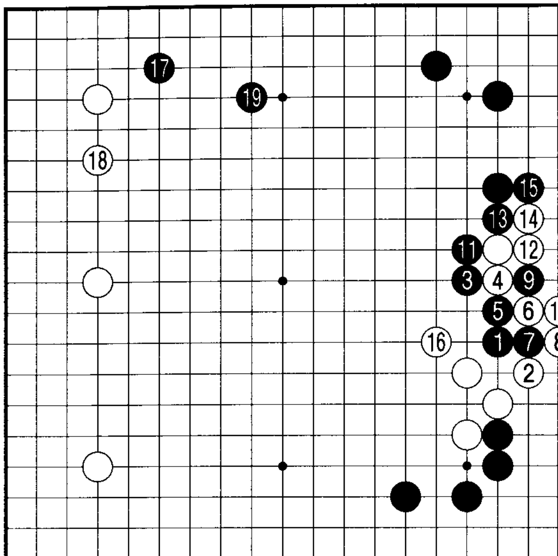
1도(상용 포석)

흑1로 귀를 굳히면 백은 자연스럽게 우하귀에 걸치는 진행이 된다. 계속해서 흑3으로 붙인 것은 가장 간명한 선택으로 이하 백10까지가 기본형이다. 이후 흑은 A의 침입이 노림이다.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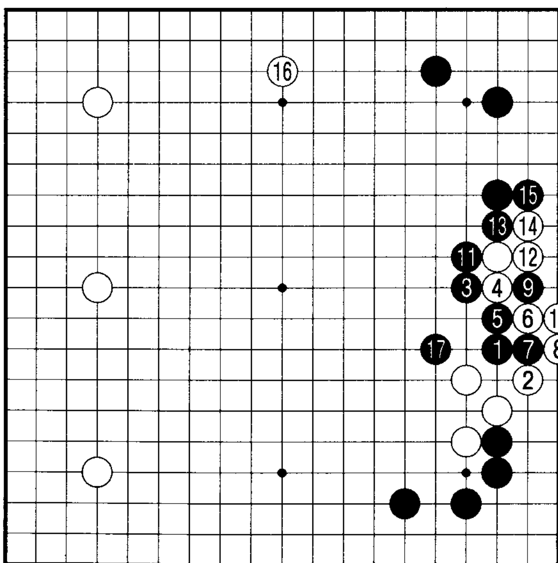
2도(백, 견실위주)

흑1로 다가섰을 때 백은 2로 한칸 뛰어 약점을 지킬 수도 있다. 계속해서 흑3으로 갈라친 것은 당연하며 이 역시 훌륭한 한판의 포석이다.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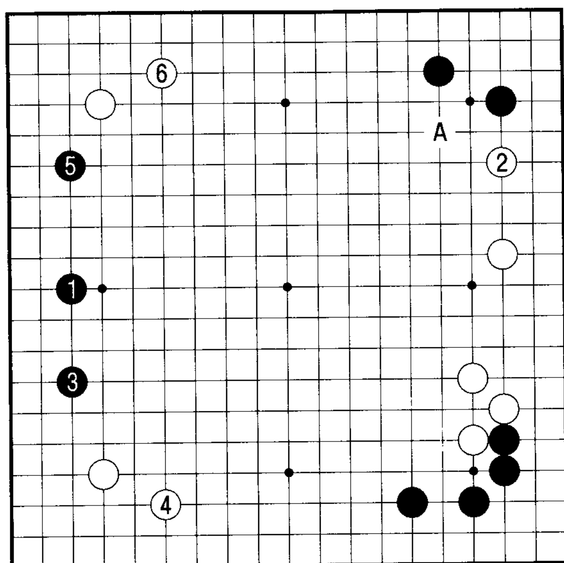
3도(흑, 즉시 침입)

1도 이후 흑은 1로 곧바로 침입한다. 이하 19까지의 결과는 상변에서 우변에 이르는 흑 진영이 넓고 두텁다.


4도

4도(손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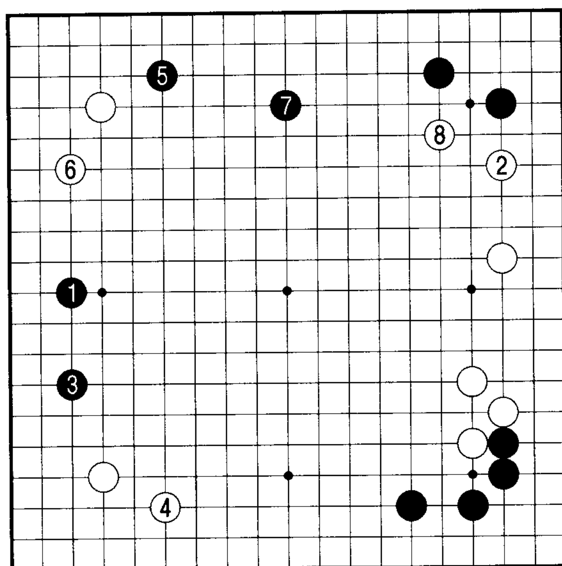
전도의 수순 중 백16을 간과하여 본도처럼 상변에 전개하면 흑17의 자리가 급소가 되어, 이 역시 미생이므로 좋지 않다.



5도

5도(지구전)

흑이 백의 3연성을 거부하여 1에 갈라치면 백은 2를 차지하는 흐름이 된다. 이 진행은 백6까지 지구전의 양상이며 이후 A의 곳이 확장의 요처로 부상하는 것이 변수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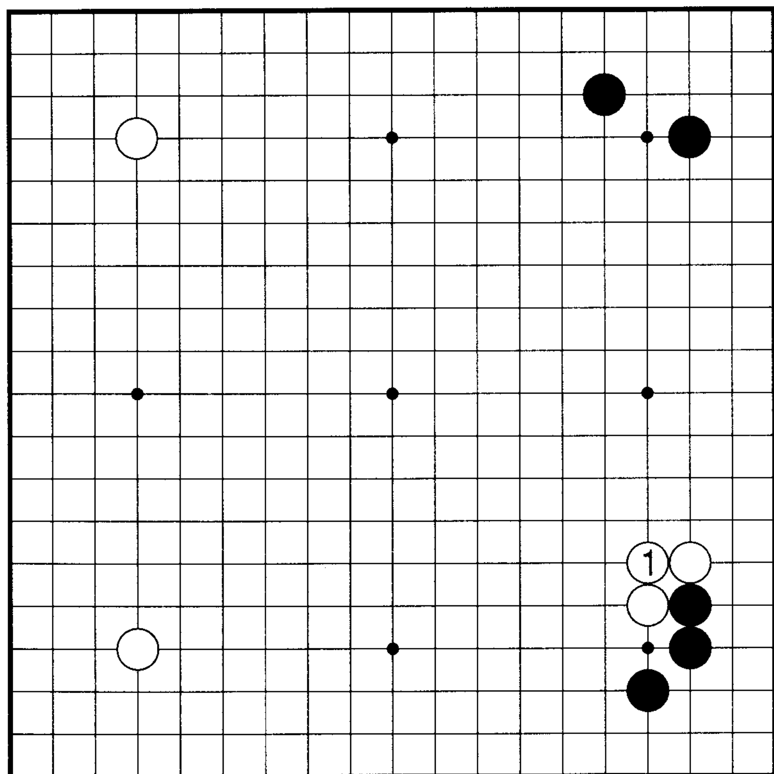
6도(백8, 확장의 요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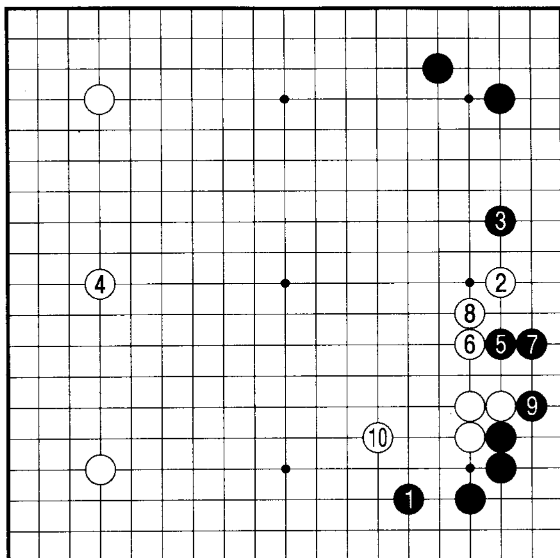
전도의 수순 중 백4까지 진행되었을 때 흑이 5·7로 상변에 포진하게 되면 백8이 확장의 요처가 된다.

제54형

양소목 포석 2(2연성 대응) — 다케미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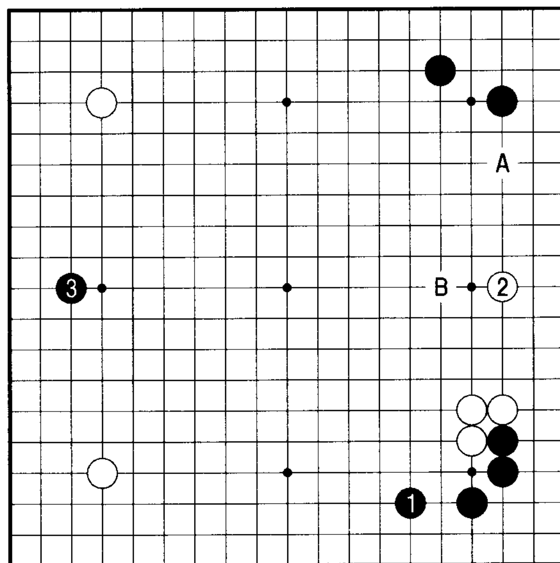
백1로 튼튼하게 이어 우변을 간략하게 처리하고 좌변을 3연성으로 포진하려는 진행이 다케미야류이다. 그럼 백1 이후의 포석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도

1도(벗어난 다케미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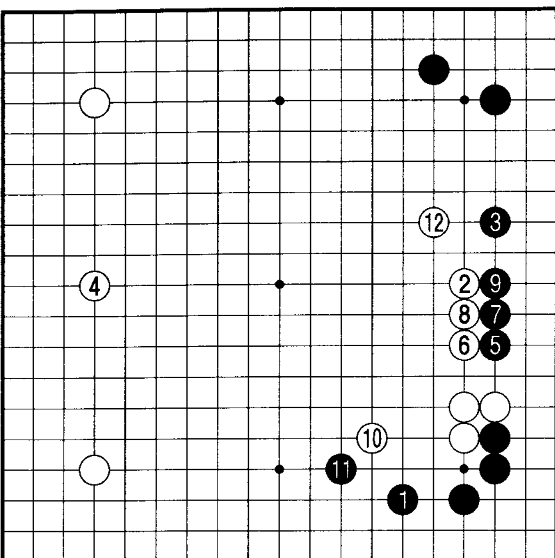
흑1로 받았을 때 백2의 전개는 애초의 취지와 다르다. 흑3으로 두어준다면 이하 백10까지 좋겠지만……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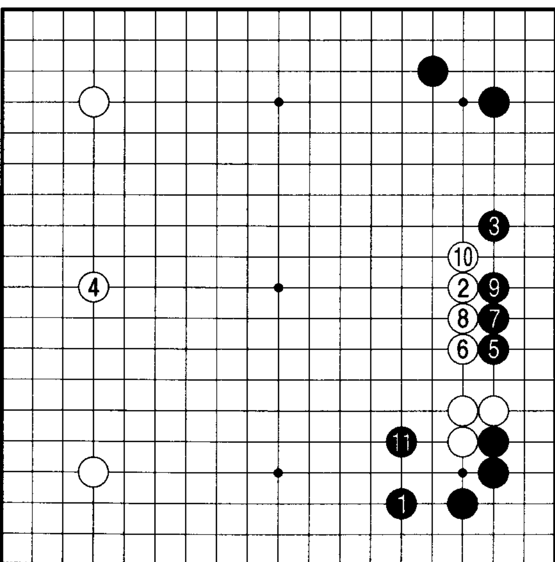
2도(흑의 변화)

흑1, 백2를 교환하고 나서 흑이 3으로 백의 3연성을 저지했을 때 백은 A의 확장이 가치가 적다. B의 삭감이 절호점이기 때문이다.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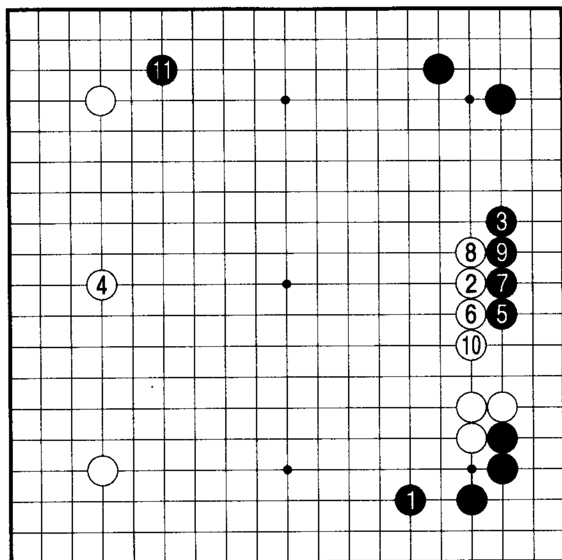
3도(다케미야류)

흑1 때 백2로 높게 두어 흑3을 강요한 다음 백4로 3연성을 포진하는 것이 본형의 취지이다. 흑5 이하의 침입은 감수하여 백12까지의 흐름이 다케미야류이다.


4도

4도(흑11, 급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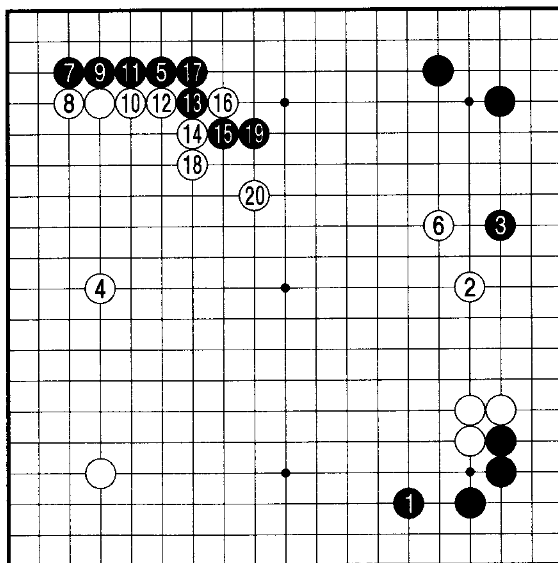
흑9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10은 욕심이다. 흑11을 당하게 되면 백 전체가 세력이 아닌 미생마로 전락한다.



5도

5도(흑의 별책)

백2·4로 펼쳤을 때 흑은 5로 침입하는 것이 좋다. 백10이 불가피하므로 그때 선수를 잡아 흑11로 전환하면 쌍방 비슷한 갈림이 된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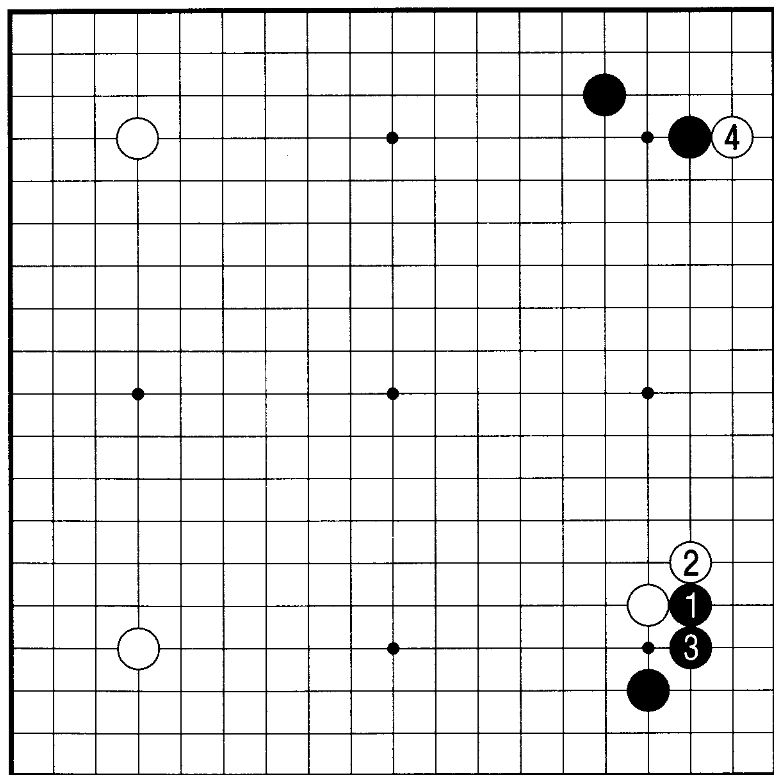
6도(다케미야류의 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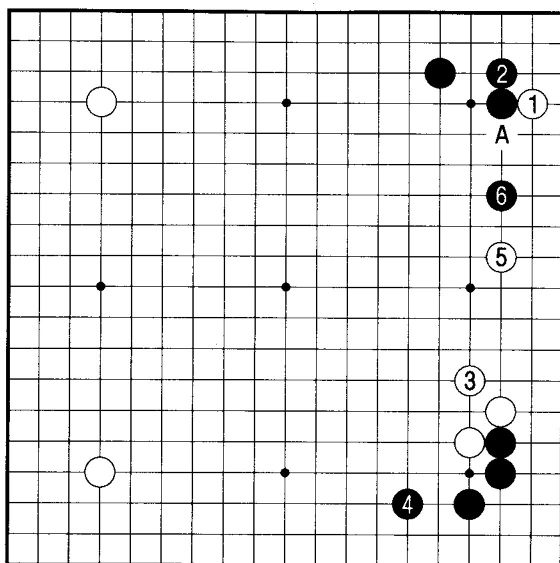
백4의 3연성 다음 흑5로 먼저 걸쳐올 때 백6으로 덮어씌워가는 것이 다케미야류의 진수이다. 백20까지 좌상에서 우변으로 연결된 세력권은 실로 광대하다.

제55형

양소목 포석 3(2연성 대응) — 응수타진

흑1로 붙이고 백2, 흑3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4로 붙여 응수를 묻는 것이 현대에 와서 개발된 재미있는 수법이다. 그럼 이후의 포석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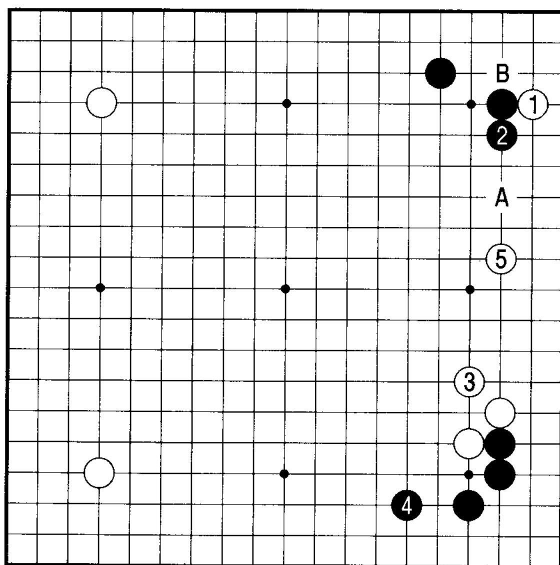




1도

1도(백,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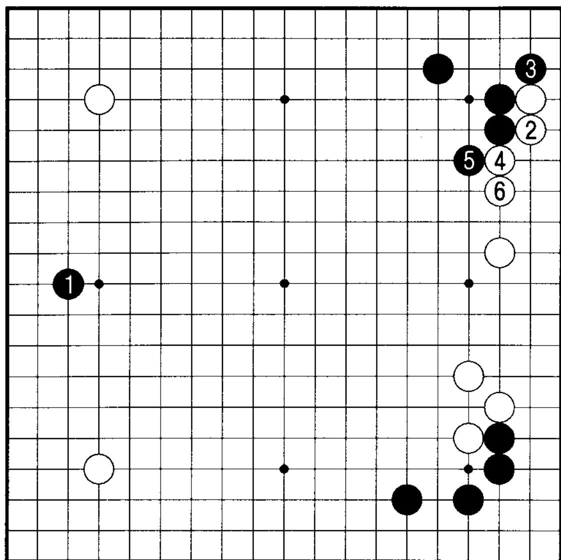
백1로 붙였을 때 흑2처럼 안쪽으로 뻗는 것은 약간 나약한 응수법이다. 백3 이하 흑6까지 진행되면 백A로 움직이는 뒷맛이 남아 있는 만큼 흑이 당한 결말이다.



2도

2도(백,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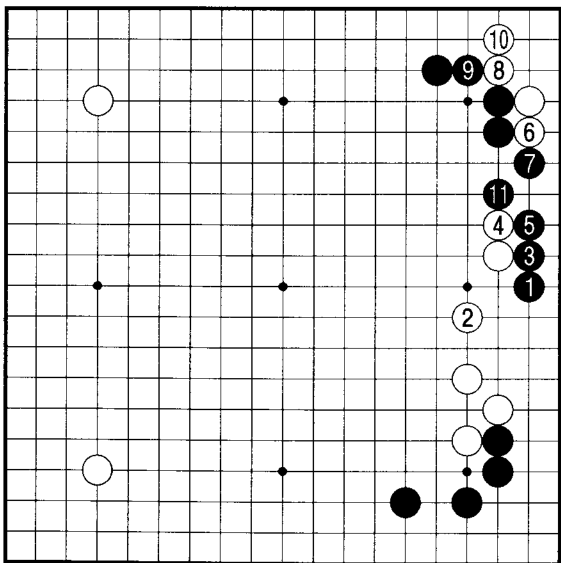
백1 때 흑2처럼 바깥쪽으로 뻗는 변화이다. 이때도 역시 백3으로 호구친 후 흑4 때 백5로 전개하는 것이 수순이다. 이후 흑은 A로 벌리는 것이 어렵다. 이유는 백B로 젖혀 사는 뒷맛이 있기 때문이다.



3도

3도(후속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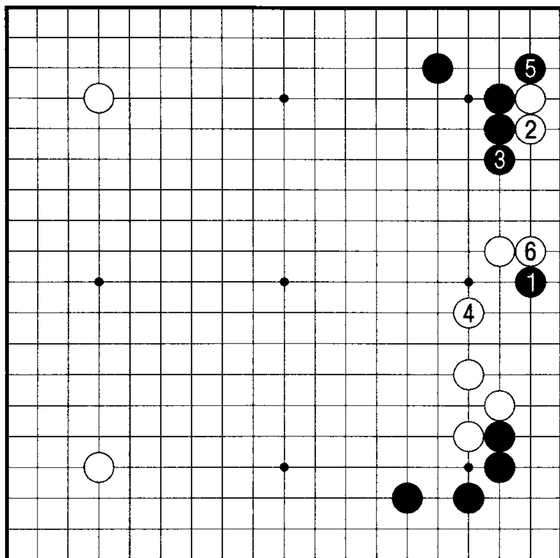
전도에 계속해서 흑이 손을 빼서 좌변에 갈라친다면 백2로 움직이는 수단이 성립한다. 이하 백6까지 형태를 정비하고 나면 백의 우변이 활동적인 모습이다.



4도

4도(흑,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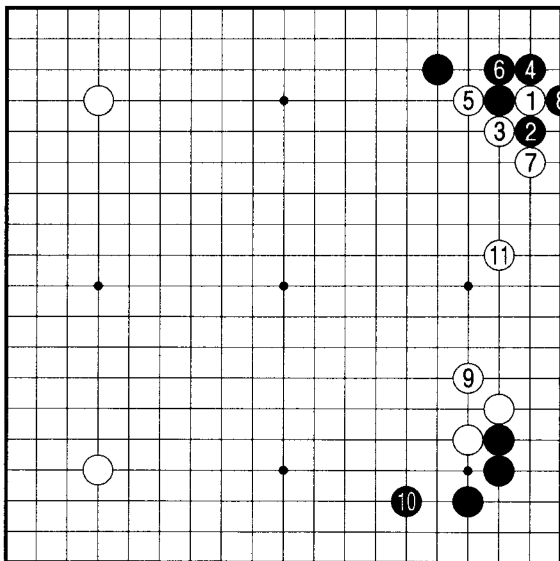
좌변에 갈라친 수로는 흑1로 치중해서 두는 변화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백2로 응수해 준다면 흑3 이하로 움직여서 흑11까지 이 결과는 흑이 유리하다.



5도

5도(백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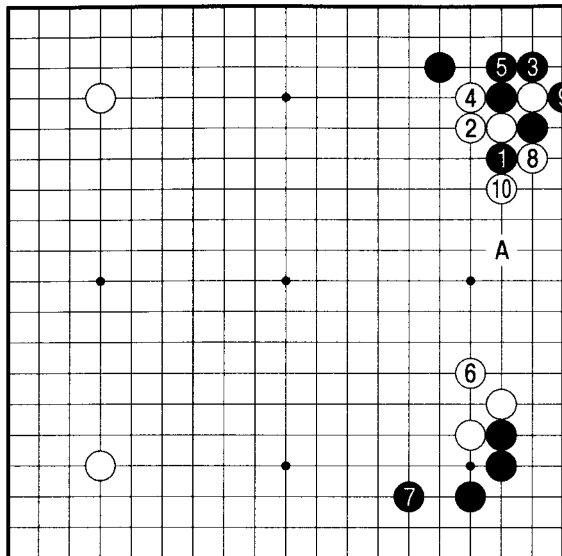
그러나 흑1의 치중에는 백2로 움직이는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다. 계속해서 흑3으로 뻗고 백4·6까지의 진행이 예상되는데 이 결과는 백이 두텁다.



6도

6도(백,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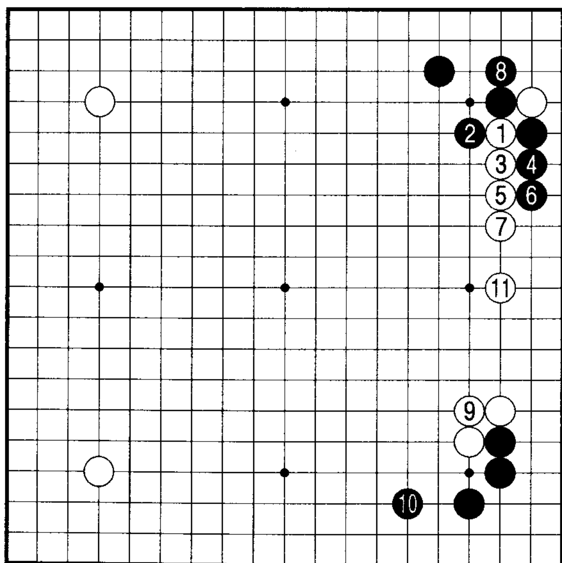
백1로 붙이면 흑은 2로 젖히는 정도이다. 계속해서 백3으로 끊은 것은 상용의 맥점인데 흑4로 단수친 수가 의문수. 백5·7을 선수한 후 이하 11까지 처리하면 이 결과는 백이 활발하다.



7도

7도(백, 능률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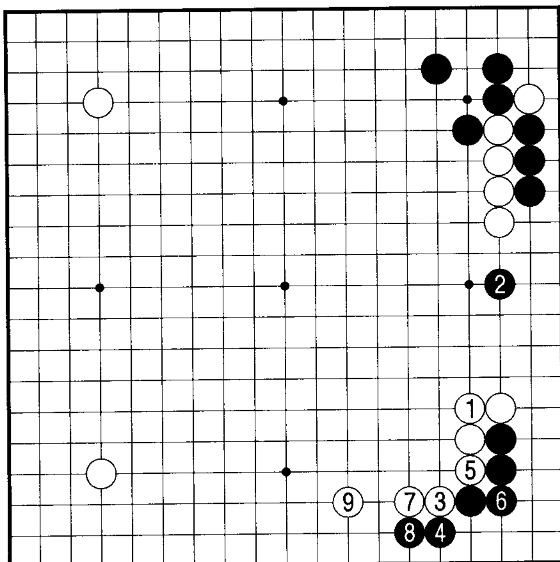
흑1 이하의 변화는 백10의 축으로 흑 한점이 잡히는 순간 A의 전개가 필요없게 되어 우변 백진은 능률이 극대화된다.



8도

8도(백, 능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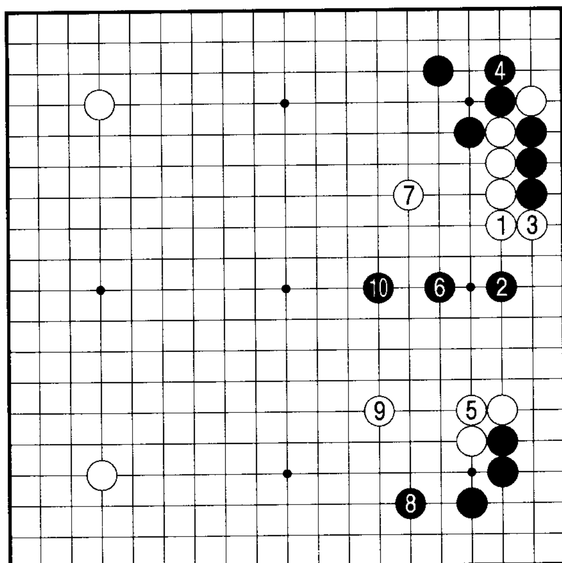
백1로 끊으면 흑은 2로 단수친 후 4에 뻗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계속해서 백5로 뻗고 이하 11까지는 간명한 갈림인데 아무래도 백이 능률적이다.



9도

9도(백, 두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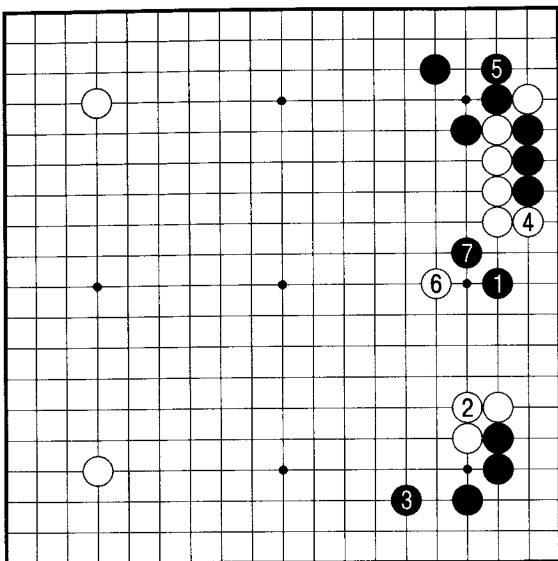
백1로 이엇을 때 흑2로 공격하는 변화이다. 이때는 백3으로 붙인 후 이하 9까지 처리하는 것이 요령이다. 이 결과는 백이 약간 두텁다.



10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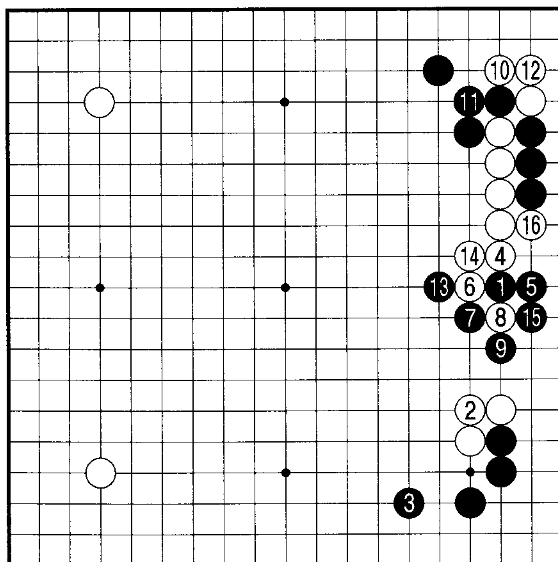
10도(백, 양곤마)

백1로 뻗었을 때 흑은 곧장 2로 침입하는 것이 요령이다. 계속해서 백3으로 막는다면 흑4로 뻗는 것이 요령. 이후 백5라면 흑6으로 한칸 뛴 후 이하 10까지 처리해서 백이 양곤마 성격의 곤란한 모습이다.


1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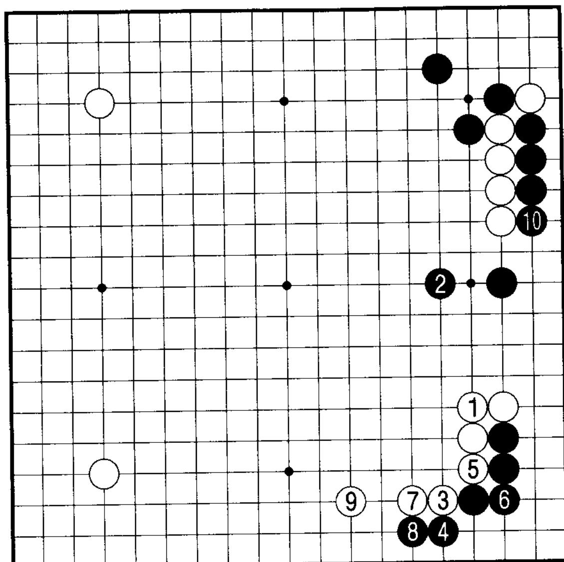
11도(백, 곤란)

흑1 때 백은 2로 잇는 것이 좋은 수이다. 그러나 흑3으로 응수했을 때 단순하게 백4로 막은 수가 의문수. 흑은 5로 뻗은 후 백6 때 흑7로 빠져나가면 백이 곤란한 형태이다.


12도

12도(백의 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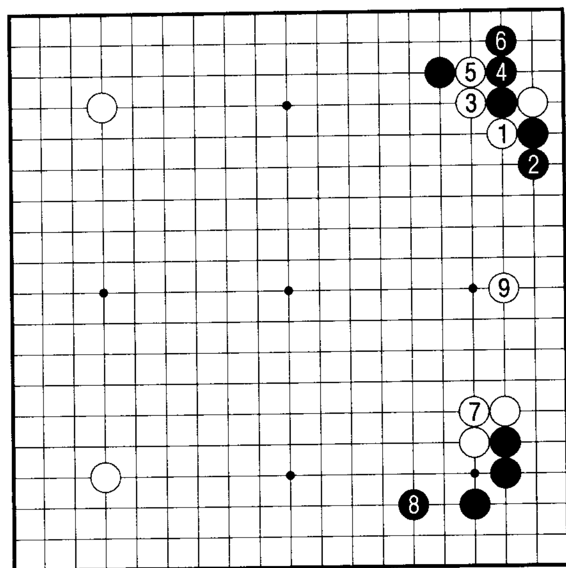
흑1로 협공하고 백2, 흑3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은 4로 치받는 것이 강수이다. 계속해서 흑5라면 백6으로 젖힌 후 이하 16까지 처리해서 백이 유리하다.



13도

13도(흑의 정수)

백1로 이엇을 때 흑은 귀를 응수하지 않고 2로 한칸 뛰는 것이 정수이다. 계속해서 백3으로 붙이고 이하 흑10까지가 쌍방 최선을 다한 진행으로 호각의 갈림이다.



1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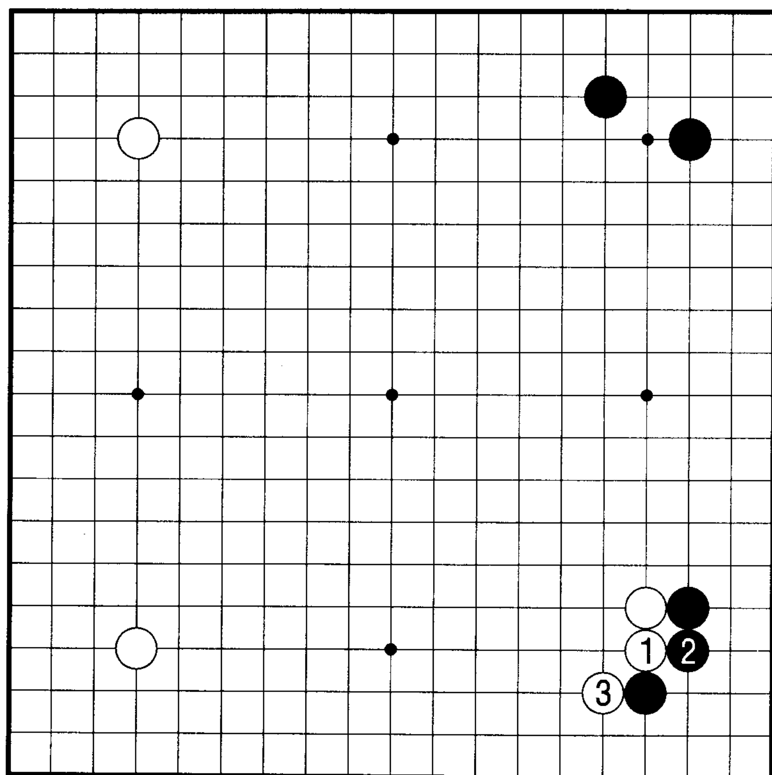
14도(백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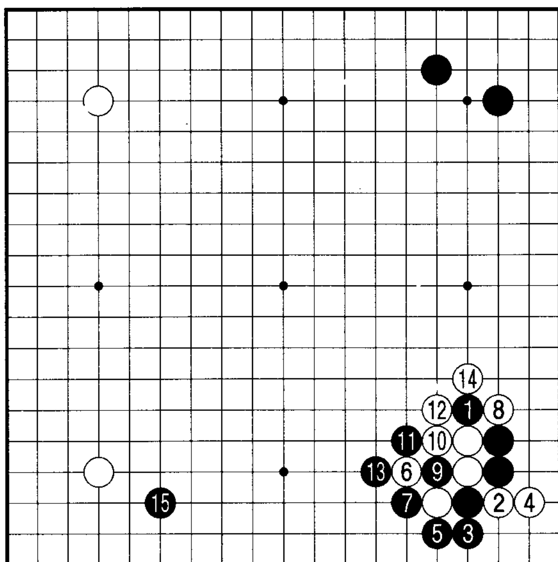
백1로 맞끊었을 때 단순히 흑2로 뻗는 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때는 백3·5를 선수한 후 7로 잇는 것이 수순이다. 이하 백9까지의 진행이라면 백이 다소 능률적인 형태이다.

제56형

양소목 포석 4(2연성 대응) — 밀어붙이기형

백은 좌변의 2연성을 고려하여 밀어붙이는 정석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럼 백1·3으로 밀어붙였을 때의 포석 진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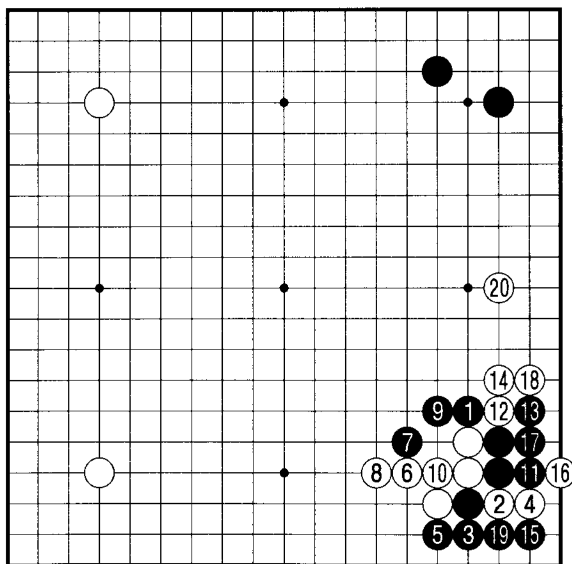




1도

1도(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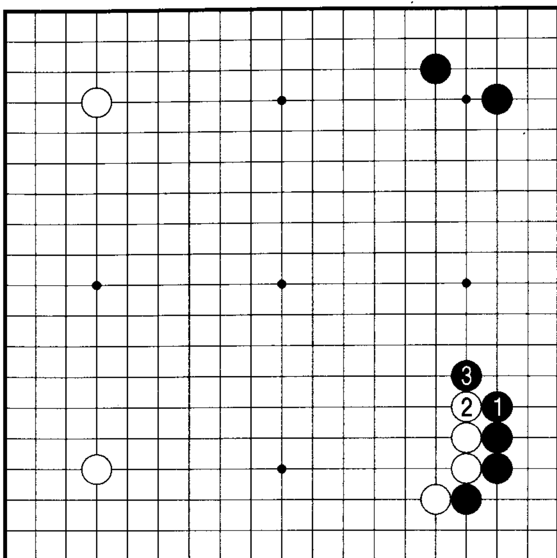
흑1로 젖히면 작은 밀어붙이기형. 작은 밀어붙이기형의 선택은 단조로운 진행이므로 현대 바둑에서는 선택이 드물다. 흑15까지가 상용 포석.



2도

2도(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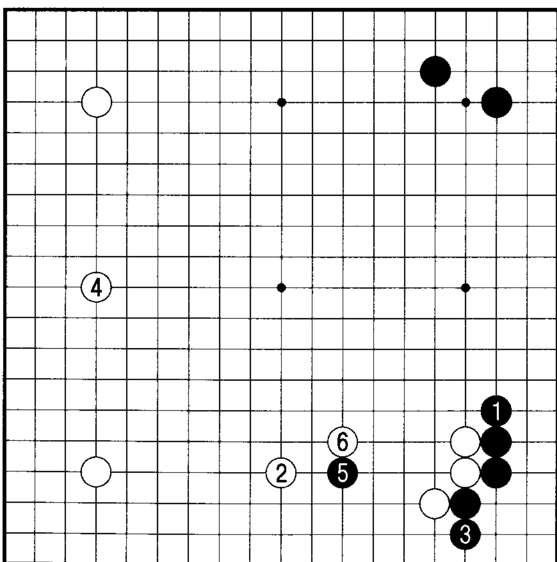
백6까지 수순이 진행되었을 때 흑7로 변화하면 이하 정석적인 진행을 거쳐 백20까지 포진이 형성된다.이 형태는 중앙의 흑이 약하여 선택하기 어렵다.



3도

3도(큰 밀어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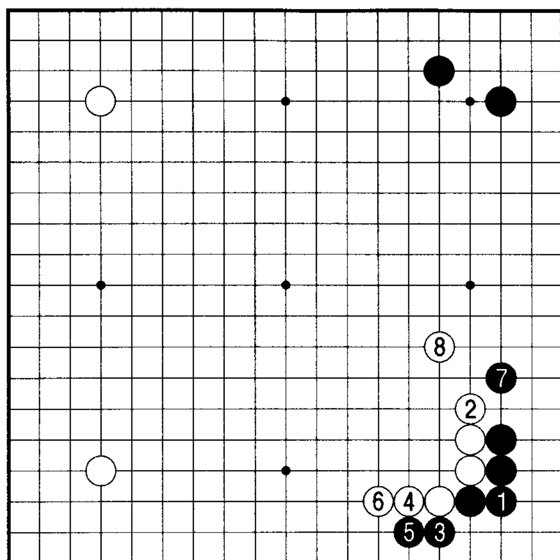
흑1로 뻗은 후 3으로 젖히면 큰 밀어붙이기형. 현대에는 수많은 변화가 개발되었으나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다. 또 이 대형정석은 백이 3연성을 펼치려는 취지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세력작전으로 전환하려면……



4도

4도(백, 4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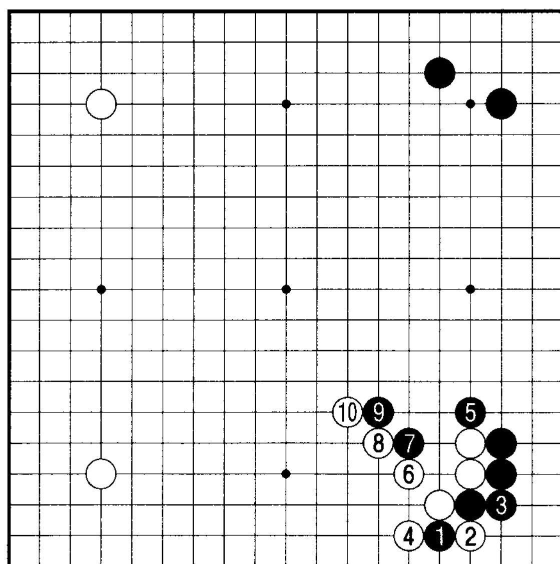
백2로 흑3을 유도하여 백4로 4연성을 포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흑5에는 백6의 사석작전으로 대항한다.



5도

5도(흑의 변화)

흑은 1로 잇는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하 백8까지 서로 어울리는 진행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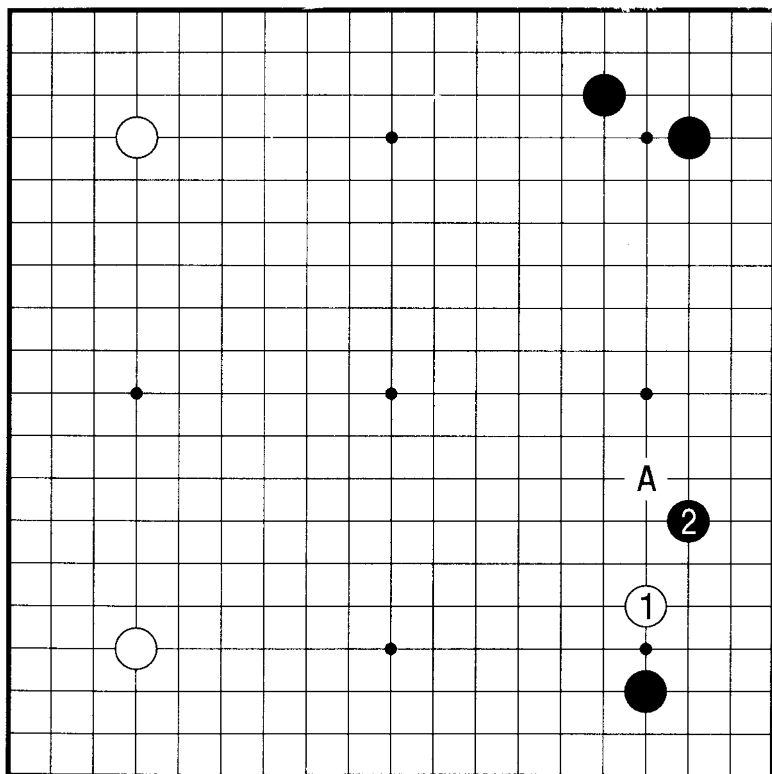
6도(고전 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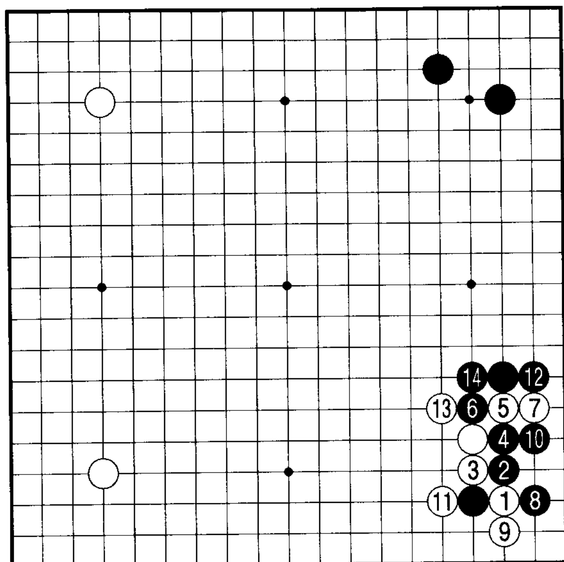
흑1의 이단젖힘은 고전적이다. 백2·4로 잡으면 이하 백10까지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진행은 흑도 우변이 확장되지만 백의 하변도 부풀어 나므로 쌍방 호각이다.

제57형

양소목 포석 5(2연성 대응) — 한칸 낮은 협공

백1로 높게 걸쳤을 때 흑은 우변을 중시하여 2 또는 A에 협공하는 수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럼 흑2로 한칸 낮게 협공한 이후의 포석 진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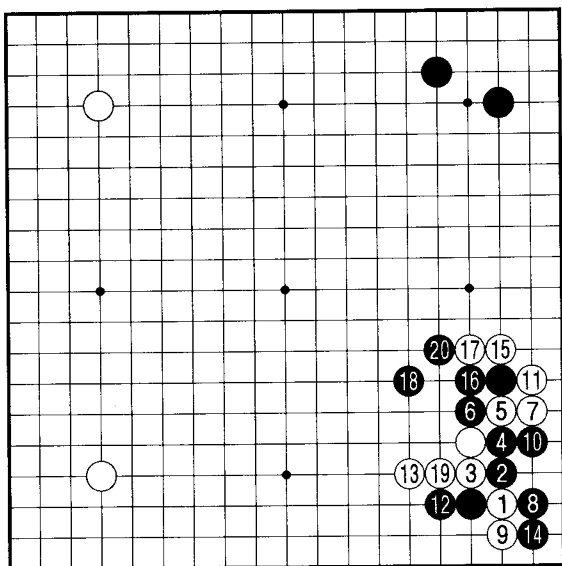




1도

1도(흑, 절대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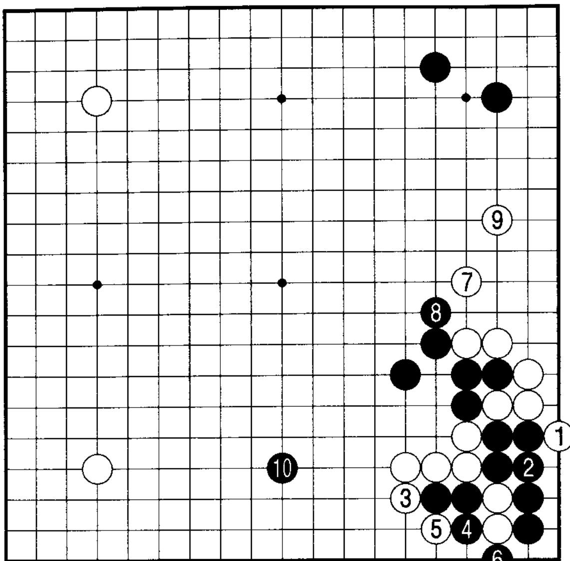
백1로 붙이고 흑2로 젖히면 이하 흑14까지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정석은 백이 선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하의 두터움과 우상의 굳힘이 맞물려 흑의 우변은 거의 집으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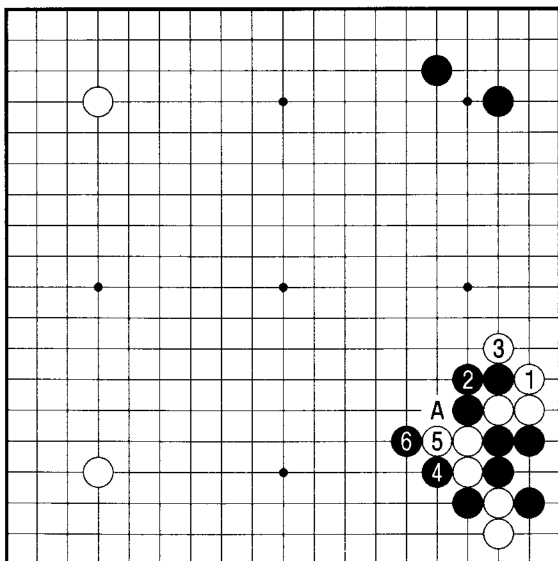
2도(백의 변화)

흑10까지 되고나서 백은 11로 움직이는 정석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어 흑20까지 진행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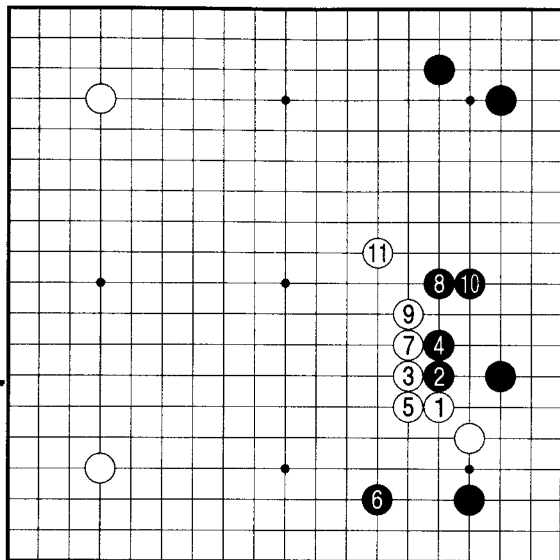
3도(백, 충분)

전도에 계속해서 백은 1로 단수친 후 3으로 막는 것이 수순이다. 이후 흑4·6으로 따내고 이하 흑10까지의 진행이 되는데 이 결과는 가치가 큰 우변을 차지한 백이 만족이다.



4도(축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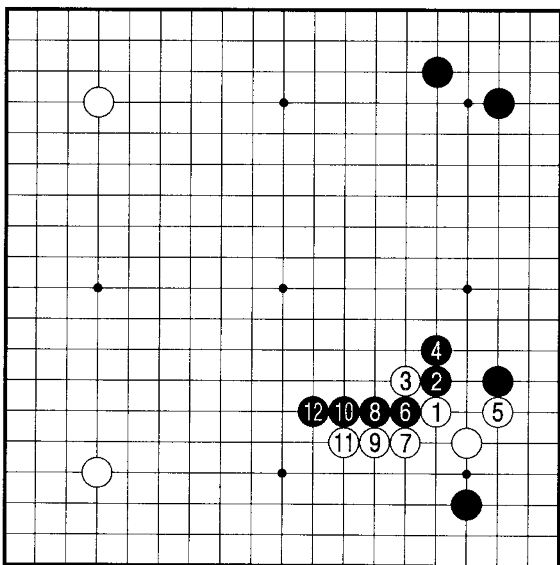
백1로 나가는 수는 축이 유리할 때 가능한 수이다. 축이란 흑2로 잇고 백3 때 흑4로 단수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은 백5, 흑6 때 백A로 나가는 축이 백이 유리하다.



5도

5도(백의 별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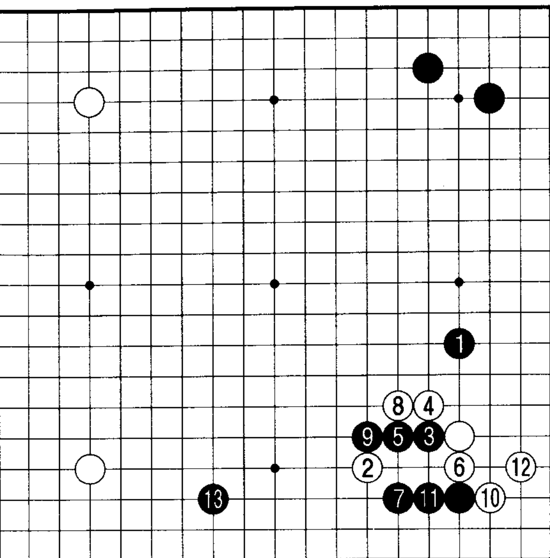
백은 좌측 2연성을 고려해 백1로 마늘모한 후 흑2·4로 붙이고 늘면 이하 백11까지의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백은 중앙을 장악하여 순조롭다.



6도

6도(백, 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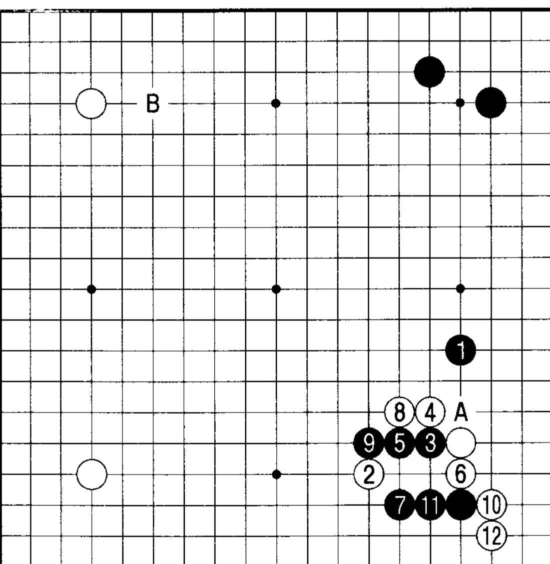
백1로 마늘모한 후 흑2·4로 붙이고 늘었을 때 백5로 두는 변화는 6으로 절단되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하 흑12까지 흑이 두텁다.



7도

7도(일반적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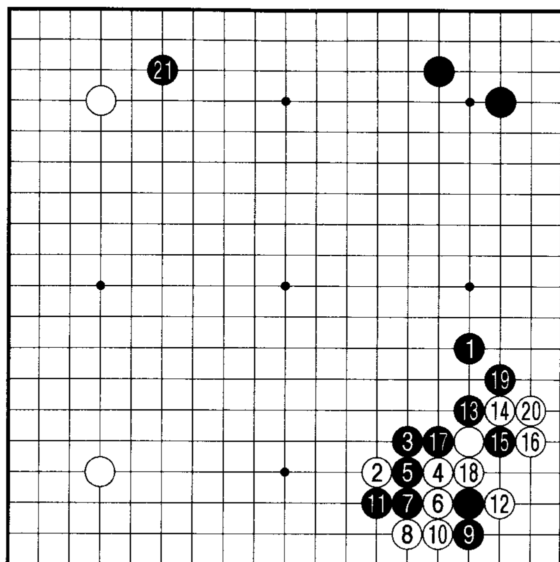
이번에는 흑1의 두칸 높은 협공에 대해 알아본다. 계속해서 백2로 눈목자하면 흑13까지가 가장 보편적인 흐름이다. 이 결과는 쌍방 불만이 없다.



8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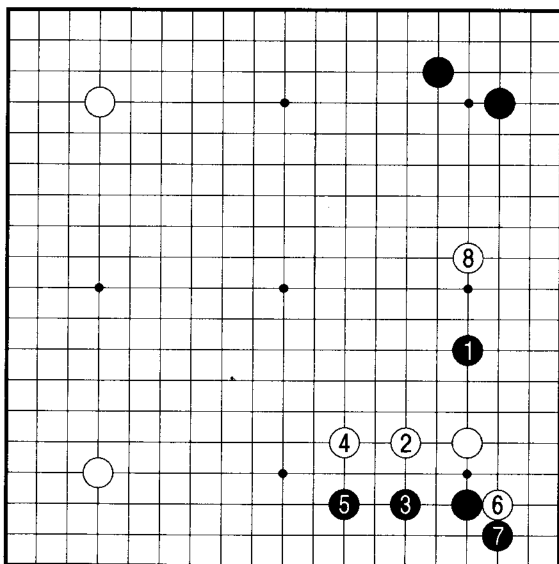
8도(현대 감각)

흑11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12로 빠지는 수법은 축머리를 놓고 미묘한 흥정이 있는 최근의 정석흐름이다. 백12가 놓이면, A의 단점은 B의 축머리와의 관계에서 몇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9도

9도(또 하나의 포석)

흑이 3으로 두면 백에게 실리를 내주지만 백20까지 세력을 쌓고 선수를 잡을 수 있다. 다음 흑은 21쪽부터 우하의 세력과 어울리는 포진을 선점하려는 흐름을 만든다.


10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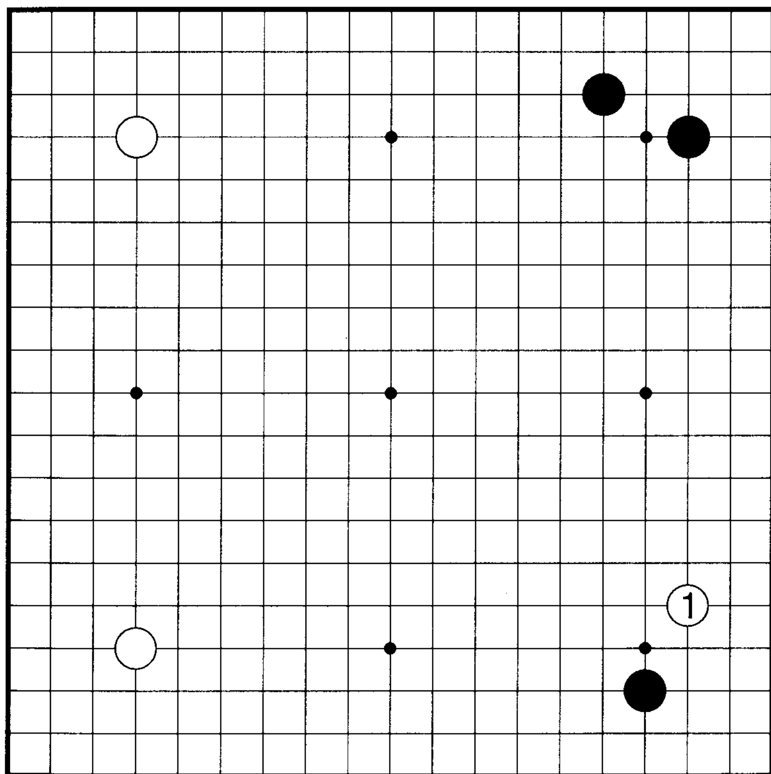
10도(전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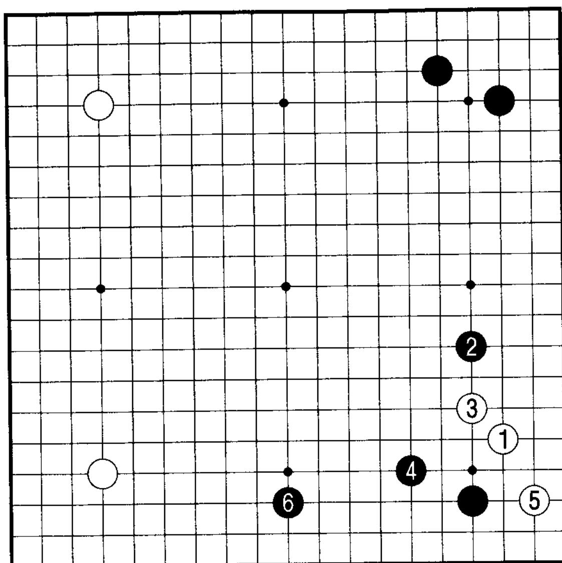
흑1로 협공했을 때 백이 2·4로 단순히 두는 것은 일견 단조로와 보이지만 백은 이곳에서 힘을 비축하여 8로 공격하려는 것이다.

제58형

양소목 포석 6(2연성 대응) — 날일자 걸침

흑이 우상귀를 굳히면 백은 우하귀에 걸치는 것이 상식적인데 백1로 날일자해서 걸친 장면이다. 백1은 실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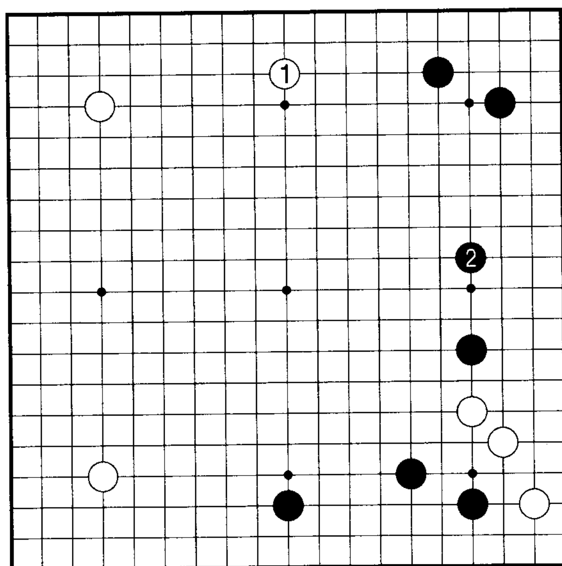




1도

1도(예상 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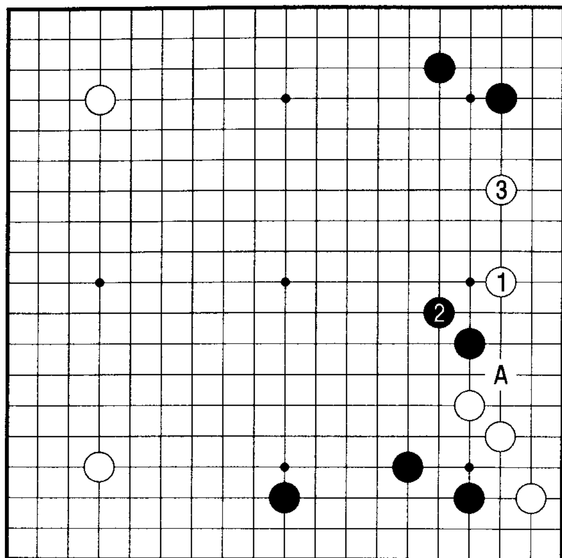
백1로 걸치면 흑2로 협공하는 것이 가장 보통이다. 계속해서 백3으로 마늘모하고 이하 흑6까지 가장 상식적인 진행이다.



2도

2도(흑,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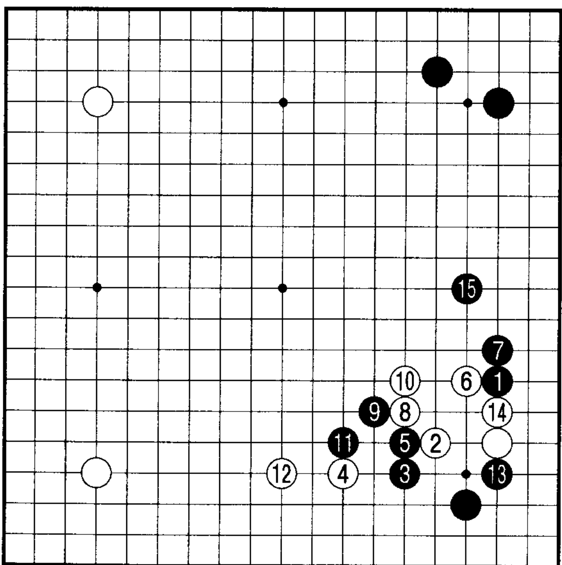
전도에 계속해서 백1로 전개하는 것은 방향착오이다. 흑은 2로 두칸 벌려 가치가 큰 우변을 차지해서 충분한 모습이다.



3도

3도(우변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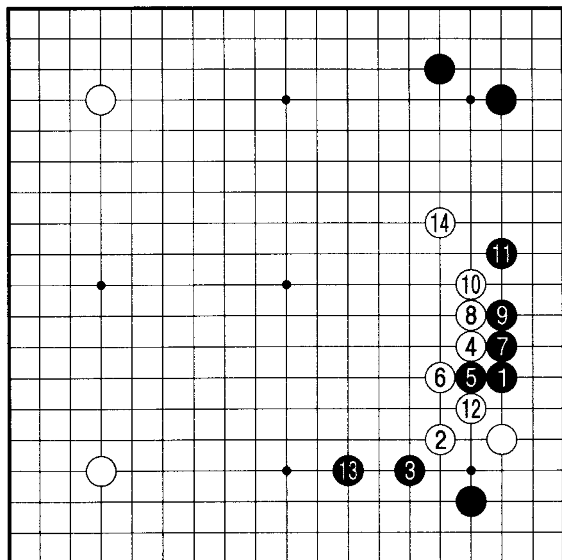
이 포석은 돌의 배석관계상 우변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백1로 협공하는 것이 요점. 계속해서 흑2로 마늘모하고 백3으로 두칸 벌려서 일단락이다. 이후 흑은 A에 두어 공격을 엿보게 된다.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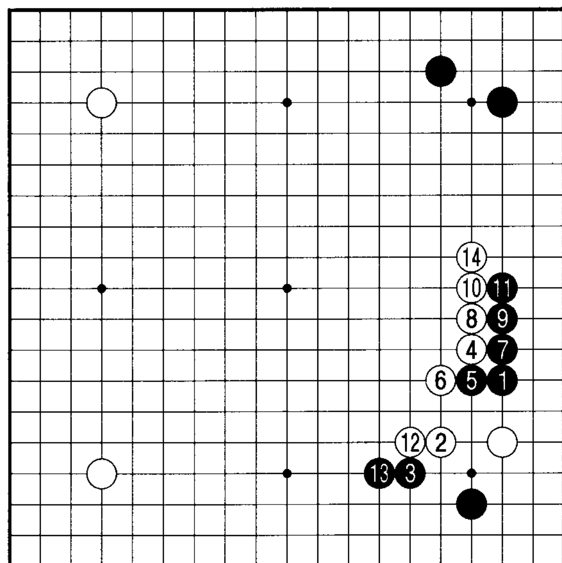
4도(급박한 협공)

흑1로 급박하게 한칸 협공하면 흑15까지 다소 고전적인 진행이 예상된다. 현대에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협공의 급격함에 비해 부분 전투가 판 전체로 흐를 수 있는 단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5도

5도(현대적 변화)

흑3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4로 씌우면 14까지가 예상되는 포석 진행이다. 전도에 비해 중반의 변수가 비교적 다양한 현대적인 변화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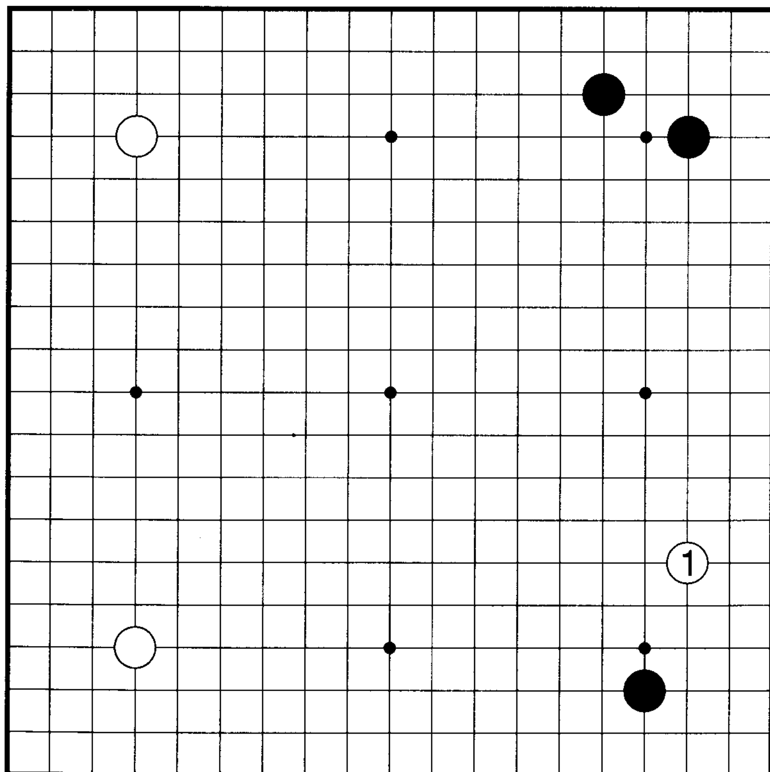
6도(현대적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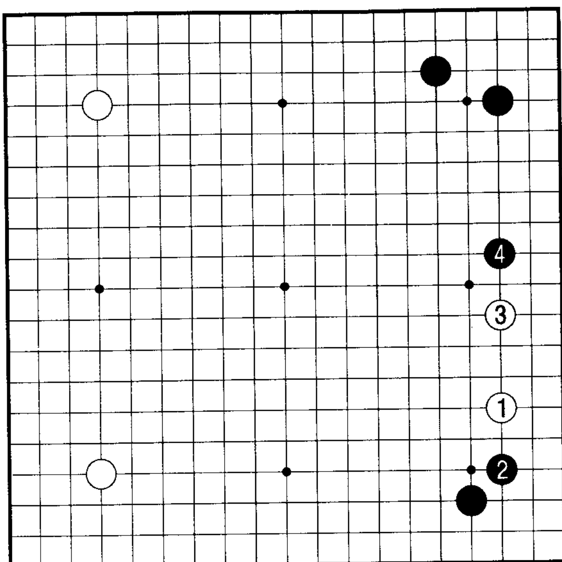
백10까지 진행되었을 때 흑11로 복잡한 전투로 유도하려는 것은 백12로 대처하여 14까지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대적 감각이다.

제59형

양소목 포석 7(2연성 대응) — 눈목자 걸침

백1의 눈목자는 흑으로부터의 협공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걸침이다. 유연하게 국면을 이끌고자 하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수라 하겠는데 이후의 포석 진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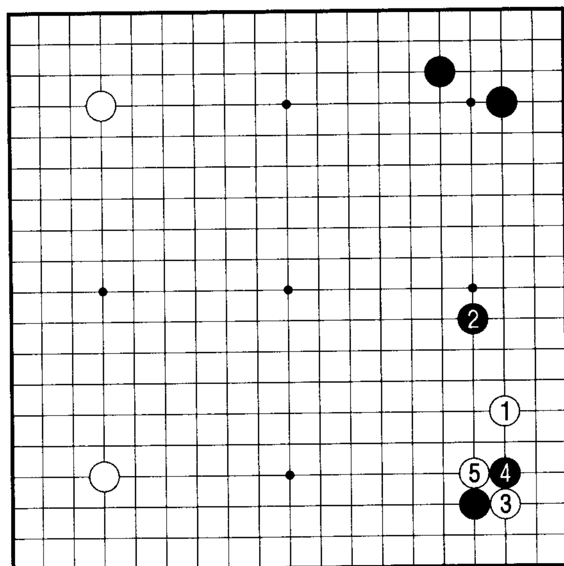




1도

1도(상식적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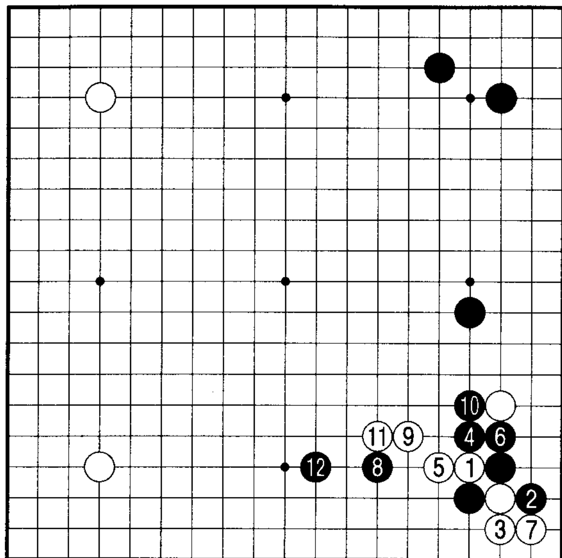
백1의 눈목자로 걸치면 흑2의 마늘모로 받고 백3, 흑4까지가 상식적인 진행이다.



2도

2도(두칸 높은 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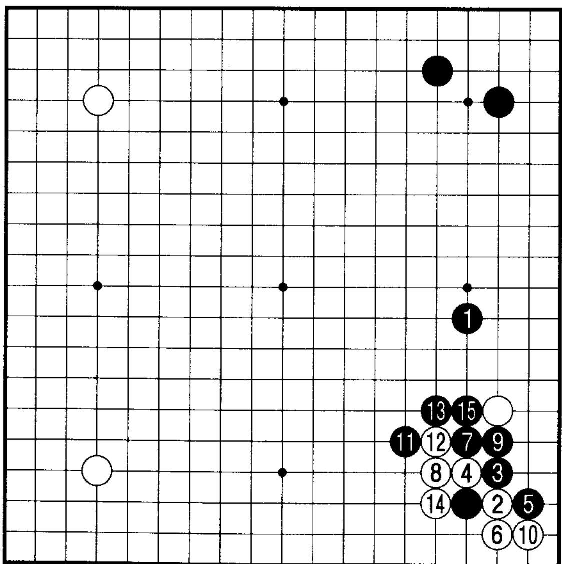
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협공한 것은 우변을 중시한 것이다. 계속해서 백3으로 붙인 후 흑4 때 백5로 끊은 것은 이 경우 상용의 수습법이다.



3도

3도(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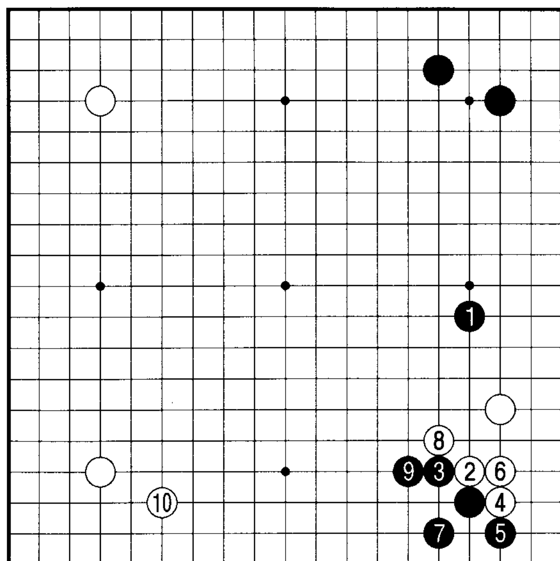
백1로 끊으면 흑은 2·4로 단수친 후 6으로 잇는 것이 기본 행마법이다. 이후 백7로 근거를 확보하고 이하 흑12까지는 정석적인 진행인데 쌍방 불만없는 모습이다.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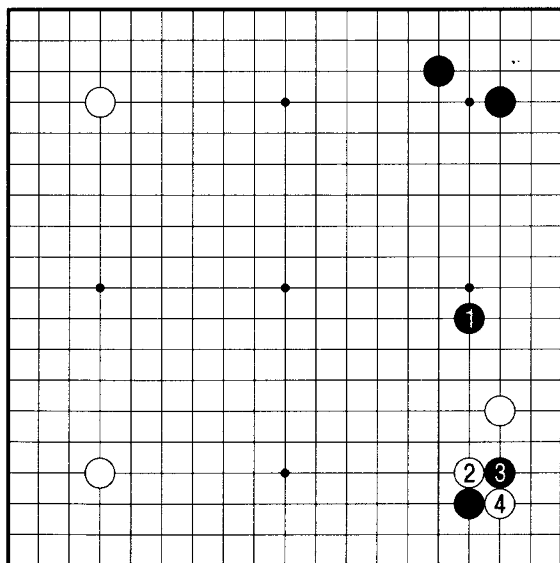
4도(현대적 진행)

백10까지 진행되었을 때 흑11로 뛰면 흑15까지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진행이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대적 감각의 포석이다.


5도

5도(백의 변화)

흑1로 협공했을 때 백은 2쪽을 붙이는 형태도 선택이 가능하다. 흑9까지 선수를 잡아 10으로 전환하는 발상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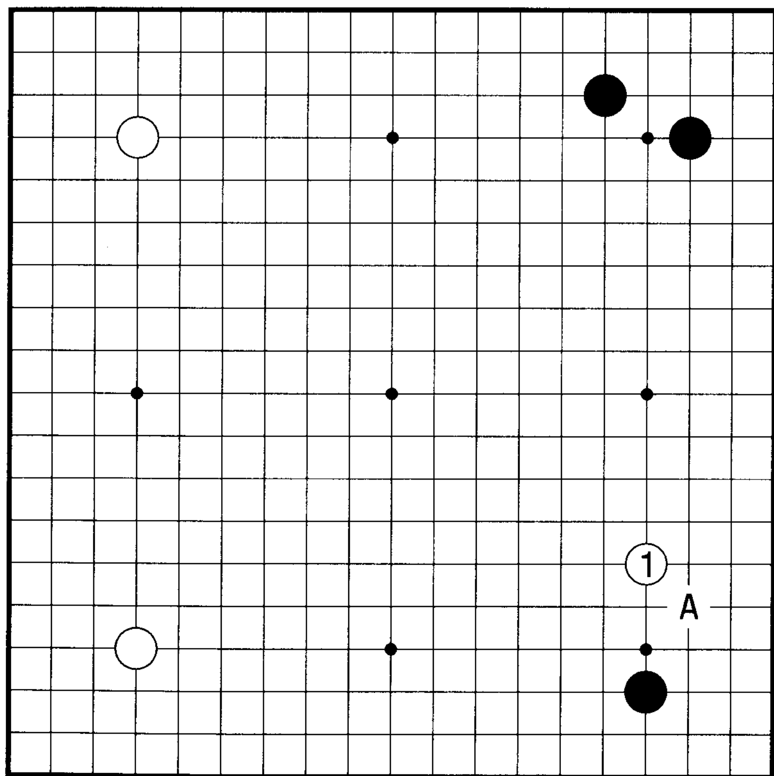
6도(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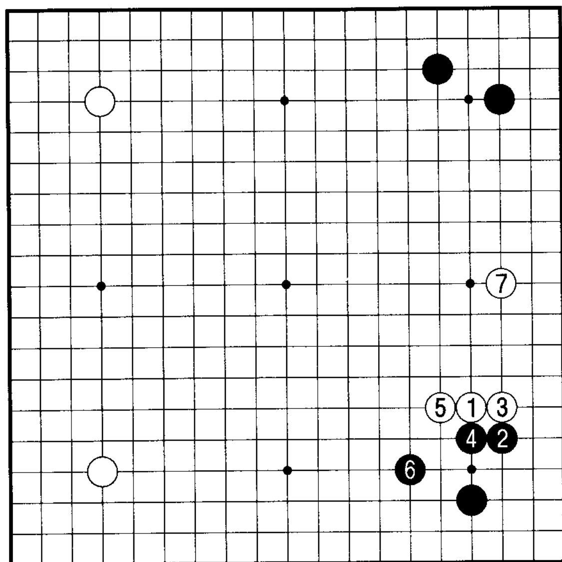
흑1, 백2 때 흑3으로 젖히면 백4로 끊어 2도로 환원된다.

제60형

양소목 포석 8(2연성 대응) — 우칭위엔류

백1의 걸침은 한마디로 우칭위엔류라고 볼 수 있다. 협공을 최대한 견제하며 흑A를 유도하여 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칭위엔류의 본령인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응수하는 변화만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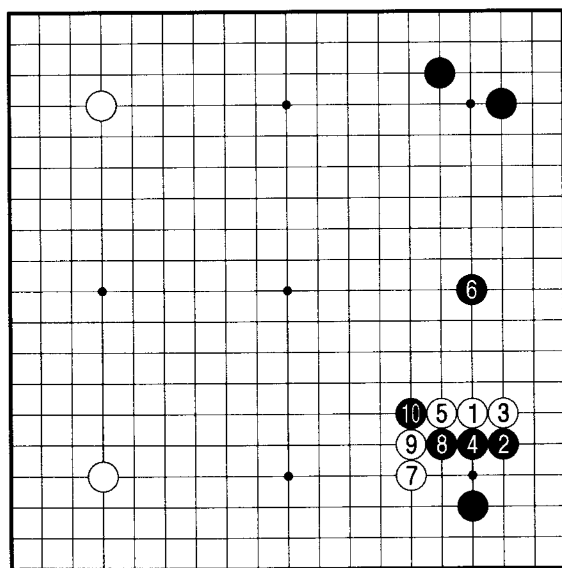




1도

1도(보편적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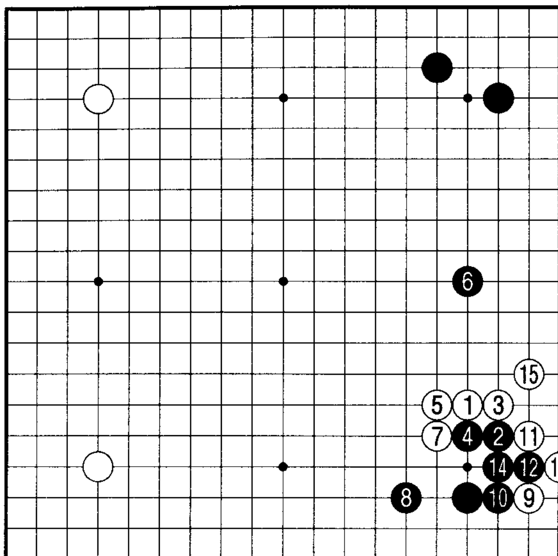
백1로 협공하면 흑2로 날일자해서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요령이다. 백3으로 막으면 이하 7까지의 진행이 보편적이다. 이 변화는 고전적인 진행으로 보아도 좋다. 현대의 감각으로는 흑6으로 지키지 않고……



2도

2도(흑6, 현대적 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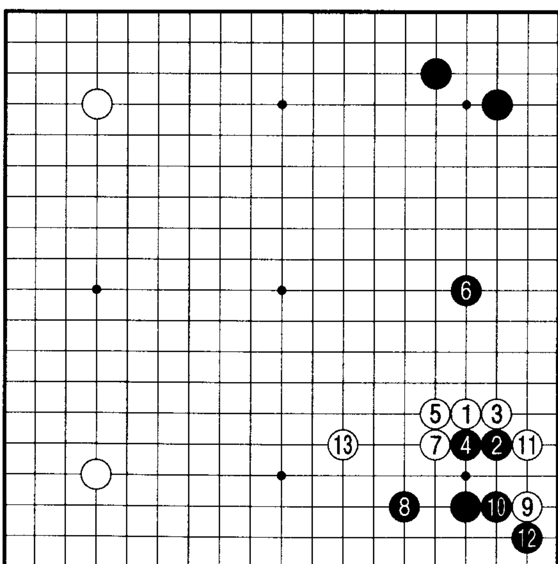
백5까지 진행되었을 때 흑이 6을 선점하여 백의 변 장악력을 축소시켜 선공하는 것이 현대적인 진행이다. 수순 중 백7은 무리로 흑이 선점된 6과 호응하여 8·10으로 끊어 싸우면 대책이 없어진다.



3도

3도(백7, 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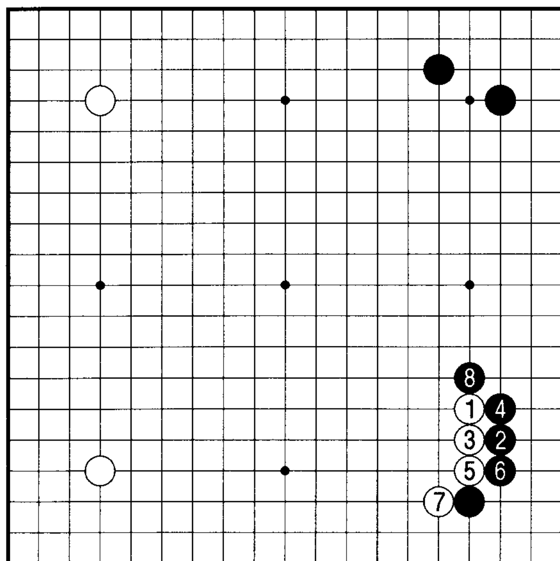
흑6으로 벌렸을 때 백의 응수는 7로 꼬부리는 한수이다. 이어 9의 치중이 좋다. 이 진행의 수순중 흑12는 백에게 15의 호형을 주어 불만이므로……



4도

4도(무난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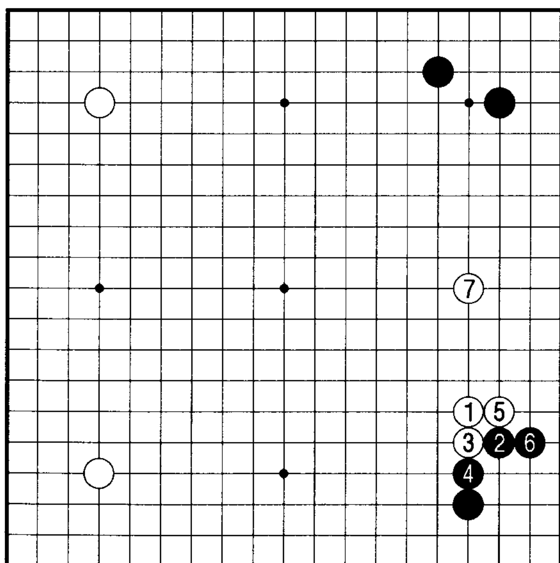
백11로 연결해 갈 때 흑은 그냥 12로 두는 것이 정수이다. 백13까지의 진행이 무난하다.



5도

5도(밀어붙이기로 환원)

백1, 흑2 때 백3으로 누르는 변화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흑4로 밀면 8까지 진행되어 밀어붙이기형으로 환원된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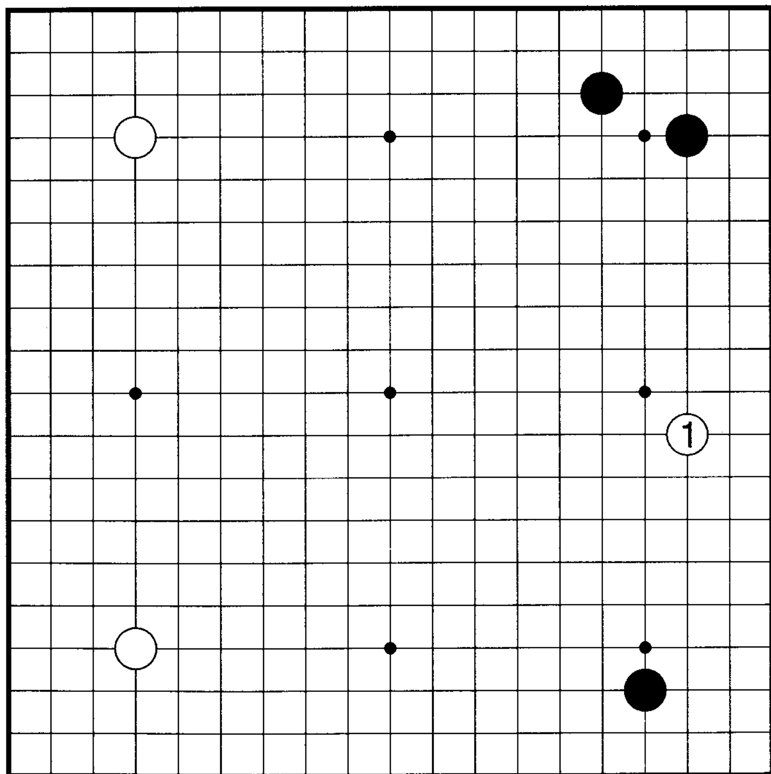
6도(흑의 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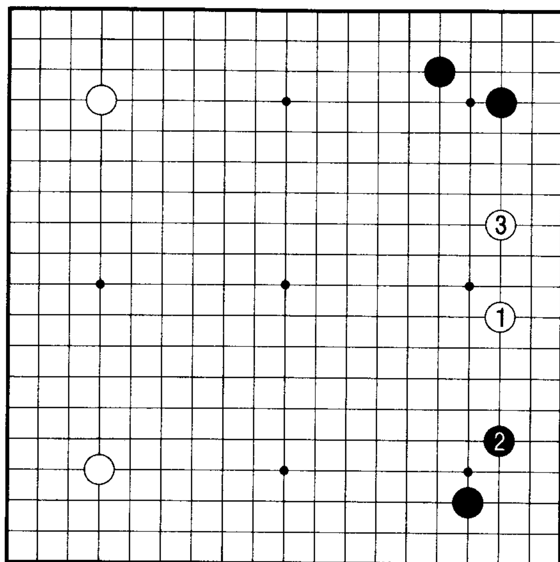
흑2로 날일자하고 백3으로 누를 때 흑4로 막으면 백5, 흑6의 교환을 거친 다음 백7의 벌림까지가 기본형이다. 이 결과는 부분적으로 흑의 실리가 크다.

제61형

양소목 포석 9(2연성 대응) — 갈라치는 형

백1의 갈라침은 흑에게 양굳힘을 허용하더라도 국면을 유연하게 이끌겠다는 착상이다. 양굳힘을 허용하는 갈라침의 포진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몇 개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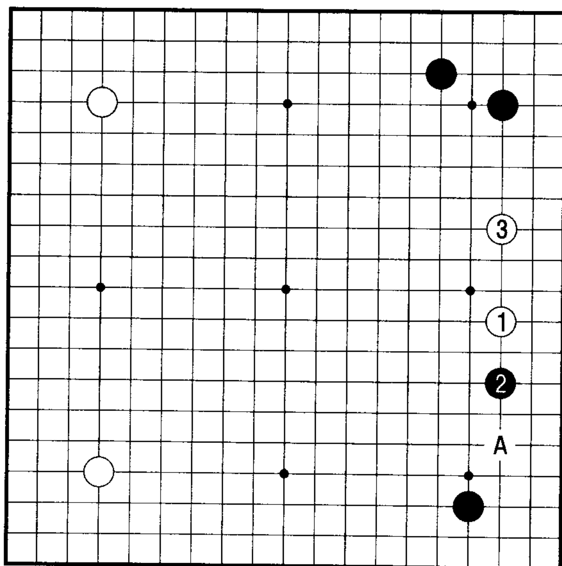




1도

1도(흑, 양굳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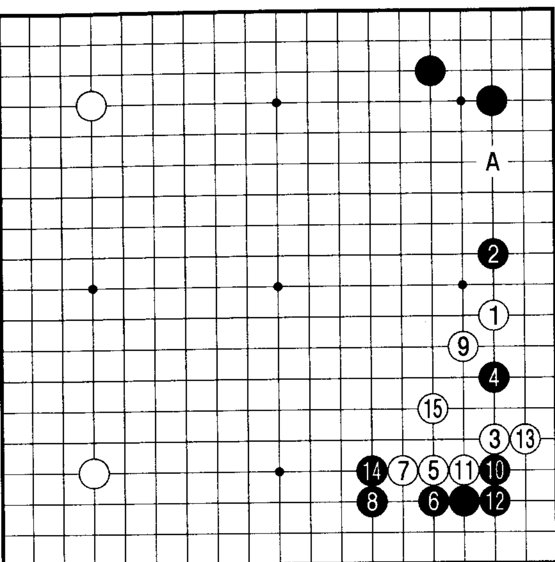
백이 우하귀에 걸치지 않고 백1처럼 갈라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찬성할 수 없다. 흑은 2로 귀를 굳히는 것이 좋은 수로 양굳힘을 한 만큼 충분한 모습이다.



2도

2도(흑2, 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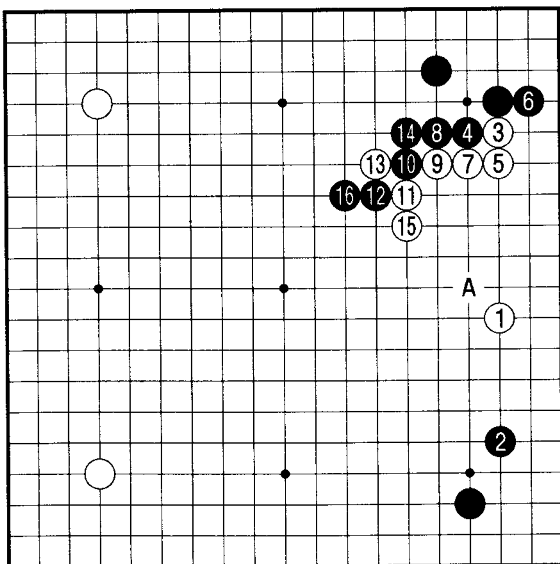
백1로 갈라쳤을 때 흑2로 육박하는 것은 욕심이다. 백3으로 벌리고 나면 A의 침입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3도

3도(흑, 방향착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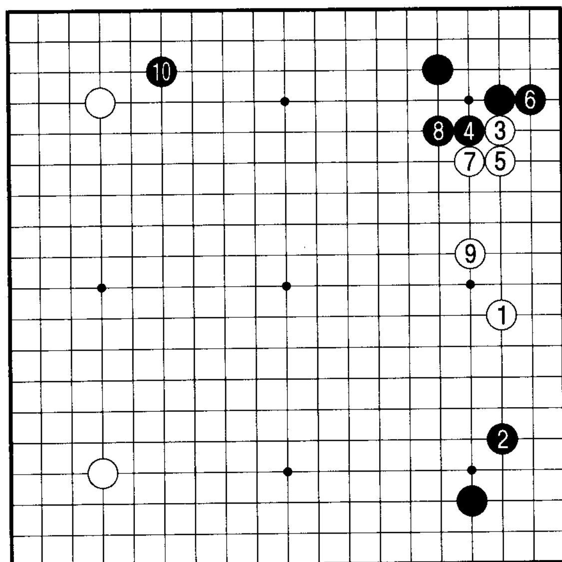
백1의 갈라침에 흑2쪽의 다가섬은 방향착오다. 백3이 걸침으로 변하여 15까지의 진행이 되면 A의 침입이 신경쓰이게 된다.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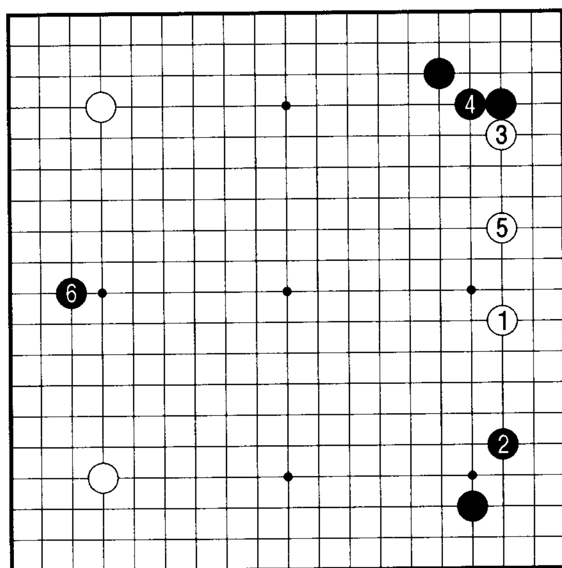
4도(백의 변화)

백은 1도의 진행이 싫다면 3으로 붙여 타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백7로 민 다음 9·11로 계속 미는 것은 불리하다. 차후에 A의 어깨짚기가 약점으로 남기 때문이다.


5도

5도(백9, 정수)

흑8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은 9로 지켜두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진행은 흑이 우변을 선수로 처리하게 되어 10으로 걸치게 되면 흑이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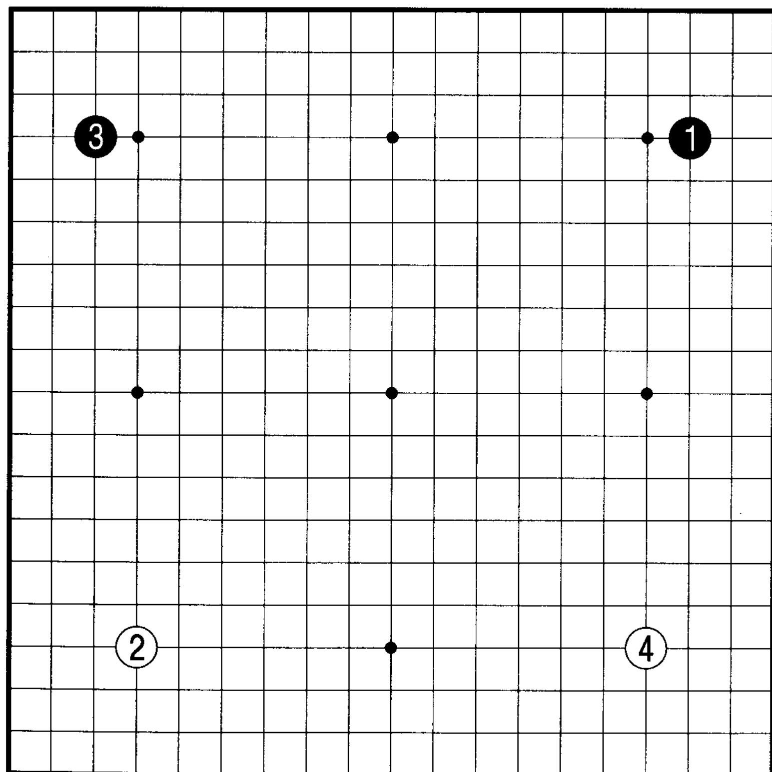
6도(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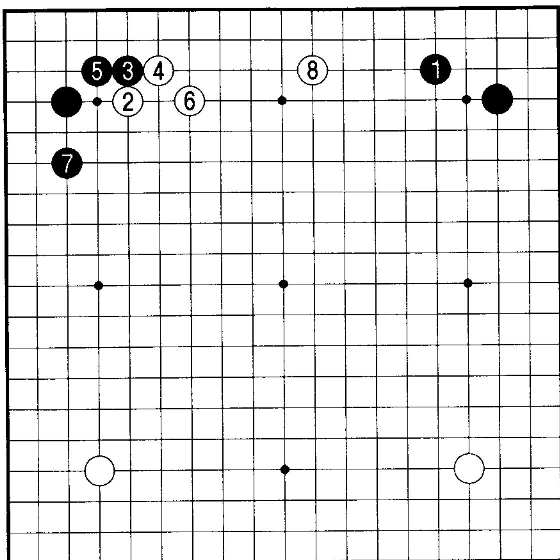
백3으로 붙였을 때 흑은 4로 참아두고 백5가 불가피할 때 6으로 갈라쳐 갈 수도 있다. 이 진행은 흑이 두 귀를 견고하게 차지하고 선수이므로 포석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제62형

향소목 포석 1(2연성 대응) — 가토류

흑1·3처럼 두 귀가 마주보도록 소목에 착점하는 것을 향소목 포석이라고 한다. 흑의 향소목 포석에 대해 백은 2연성으로 맞선 장면인데 이후의 진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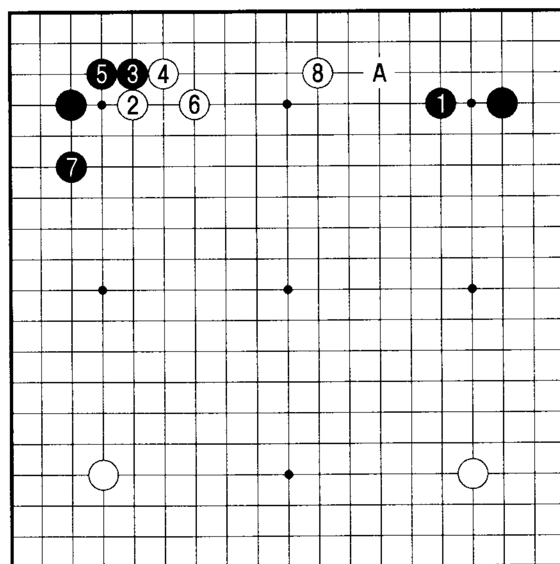




1도

1도(견실한 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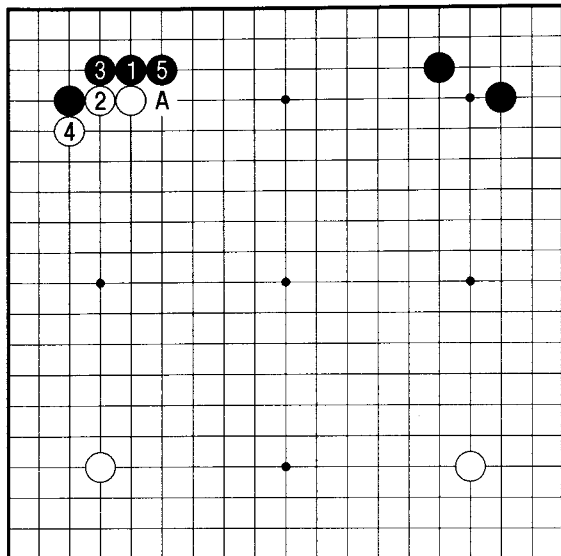
향소목 포석에서는 한쪽 귀를 굳히고 두는 것이 보통이다. 흑1로 귀를 굳히면 백은 2로 걸치는 정도. 계속해서 흑3으로 붙이고 이하 백8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흑의 견실한 포석이다.



2도

2도(뒷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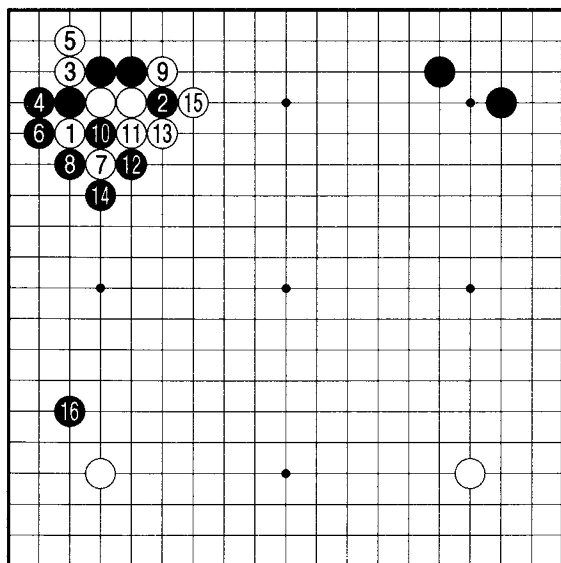
흑1로 한칸 높게 굳히는 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백2 때 흑3으로 붙인 후 이하 백8까지의 정석을 선택하는 것은 A의 뒷문 관계상 다소 흑이 좋지 않다.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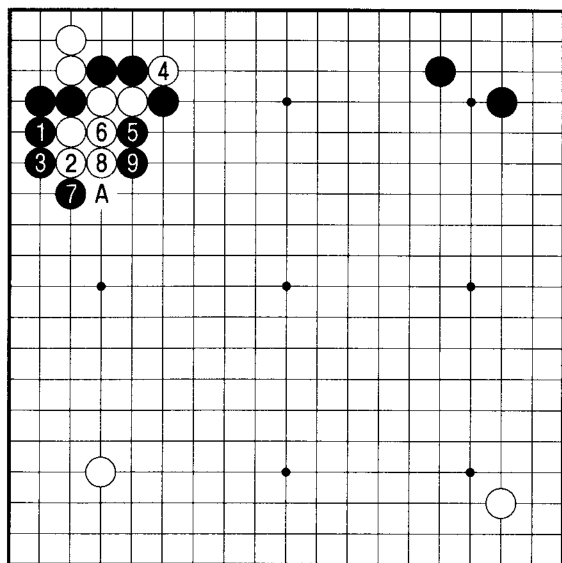
3도(백의 변화)

흑1로 붙였을 때 백2·4로 변신한 것은 자신의 2연성 포진과 연관성을 갖고 세력작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흑3·5로 응수한 후 백이 A에 두면 큰 밀어붙이기 정석이 된다.


4도

4도(호각의 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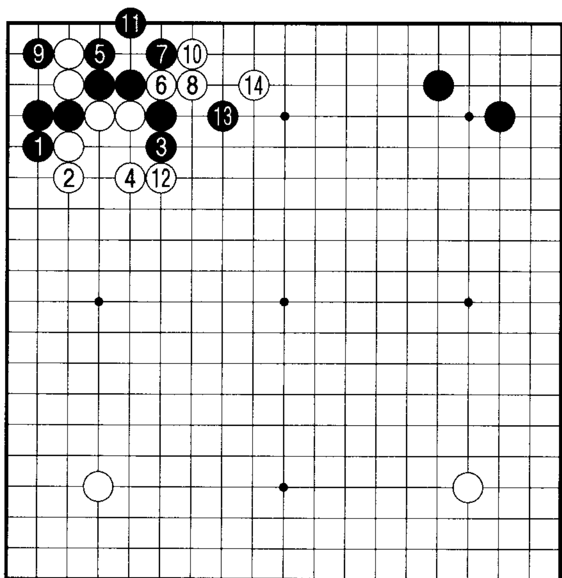
백1 때 흑은 2로 젖혀 응수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백3으로 끊고 이하 흑16까지의 진행이 예상되는데 쌍방 불만없는 모습이다.



5도

5도(백, 곤란)

흑1 때 백2로 뻗는 수는 축이 유리할 때 가능한 수단이다. 그러나 우하 백 3·三이 놓여 있는 지금과 같은 장면에선 이하 흑9까지 진행되었을 때 A에 달아나는 수가 없는 만큼 백이 망한 모습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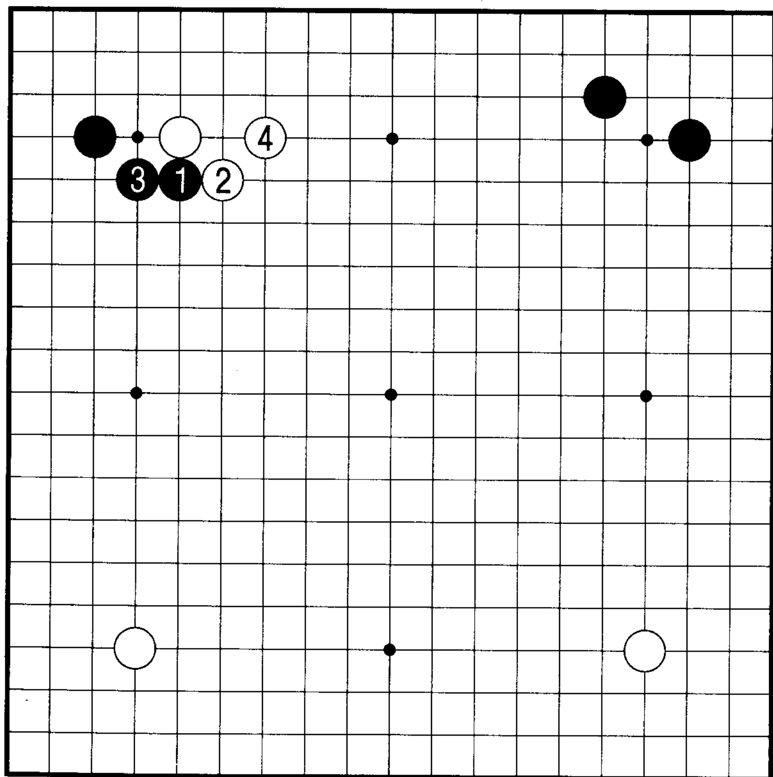
6도(중앙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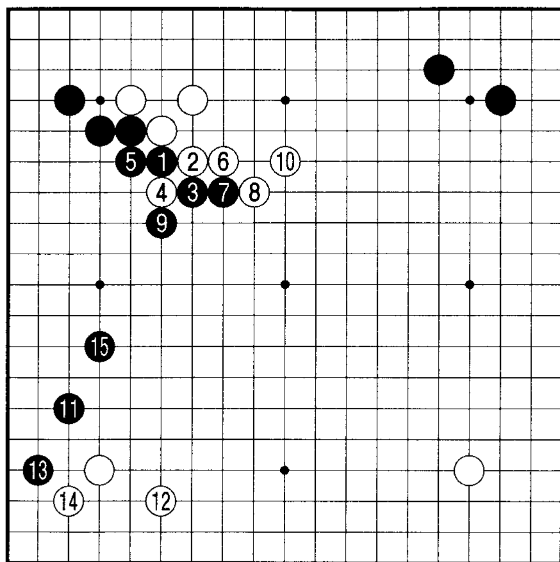
우하귀가 화점이라면 흑1 백2 때 흑3으로 뻗는 것이 정수이다. 계속해서 백4로 지키고 이하 백14까지 중앙전이 된다.

제63형

향소목 포석 2(2연성 대응) — 위로 붙이는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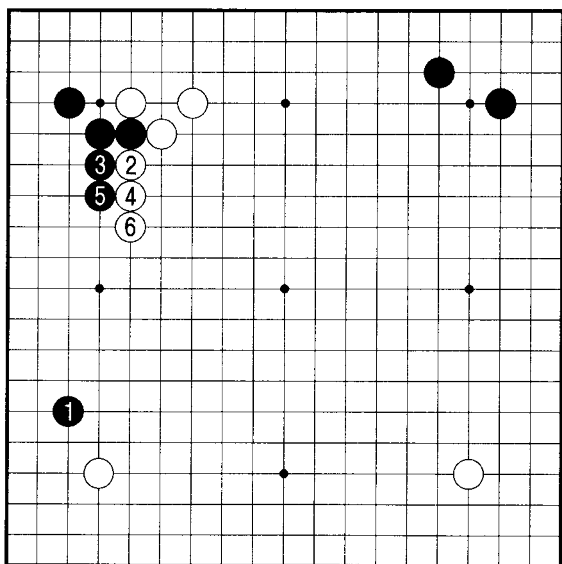
흑1·3으로 붙이는 형태의 진행도 현대 감각에 맞는 선택이다. 흑1로 붙인 수는 좌변에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그럼 백4로 호구친 이후의 포석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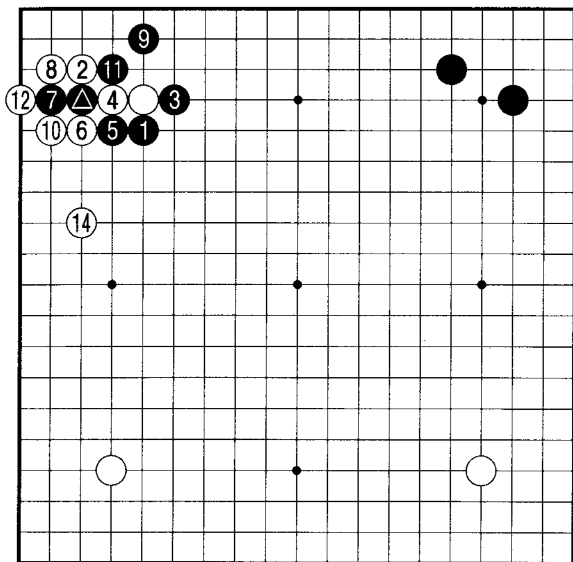
1도(호각)

흑은 1로 젖혀 세력을 키우는 것이 요령이다. 백2의 젖힘에는 흑3으로 이단젖히는 것이 행마법으로 이하 흑15까지가 예상되는 포석 진행이다.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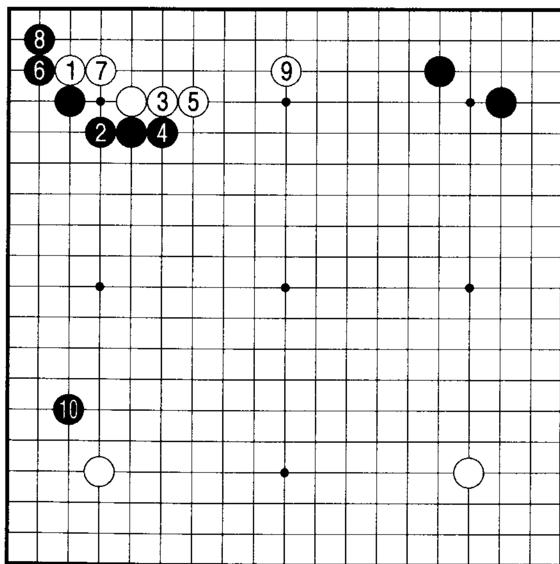
2도(흑, 저위)

전도의 수순을 생략한 채 그냥 흑1로 걸치는 것은 백2의 젖혀누름이 강력하여 백6까지 좌변이 위축된다.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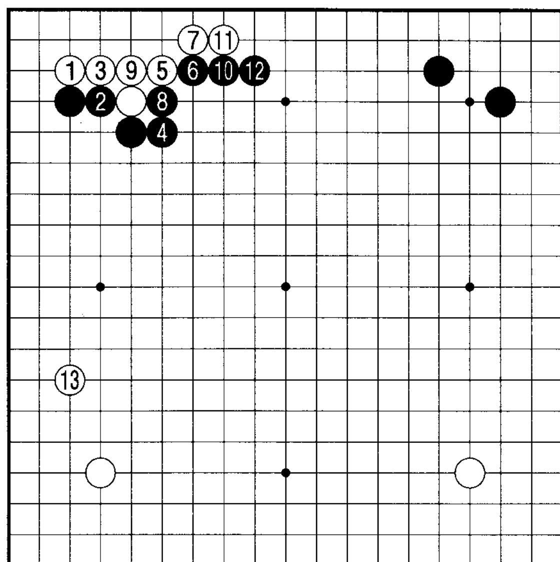
3도(백의 변화)

흑1로 붙였을 때 백2로 둔 것은 전도와 같은 포석을 피하고 싶을 때 가능한 수이다. 백2는 축이 유리할 때 가능한 수인데 이하 백14까지가 기본 정석으로 되어 있다.


4도

4도(흑, 좌변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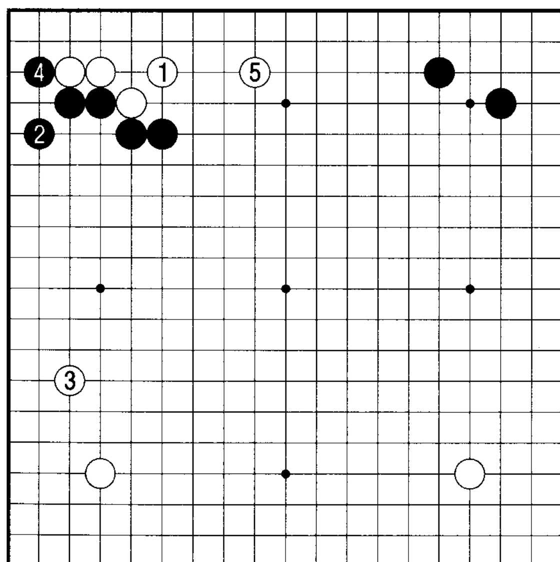
백1로 붙였을 때 흑은 좌변을 중시하여 2로 뻗는 수도 가능하다. 계속해서 백3에는 흑4로 밀고 이하 10까지 처리하는 것이 요령이다.



5도

5도(백, 충분)

백1 때 흑2로 치받은 후 4에 뻗는 수도 가능하다. 계속해서 백5로 호구치고 이하 흑12까지 부분적으로는 흑이 두터운 모습. 그러나 백도 발빠르게 13으로 굳혀 충분히 둘 수 있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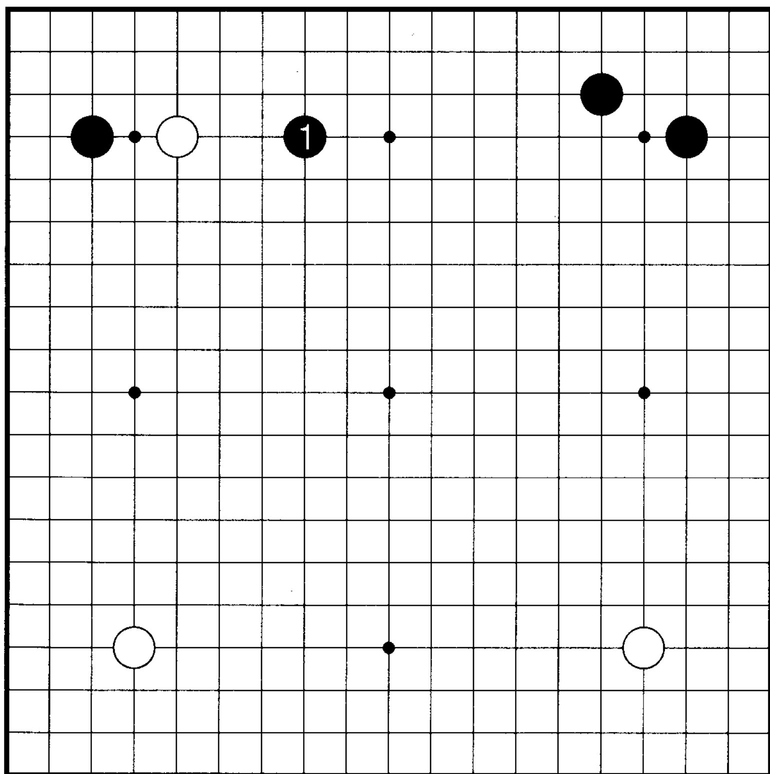
6도(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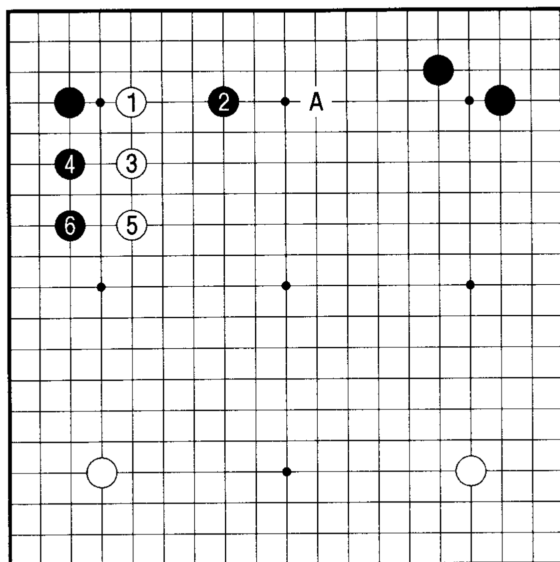
백1 때 흑은 2로 마늘모하는 수도 있다. 계속해서 백3으로 귀를 굳히면 흑4로 호구치고 백5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쌍방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습이다.

제64형

향소목 포석 3(2연성 대응) — 현대 감각의 협공

흑1의 두칸 높은 협공은 현대에 가장 많이 연구된 형태의 진행이다. 그럼 흑1로 협공한 이후의 포석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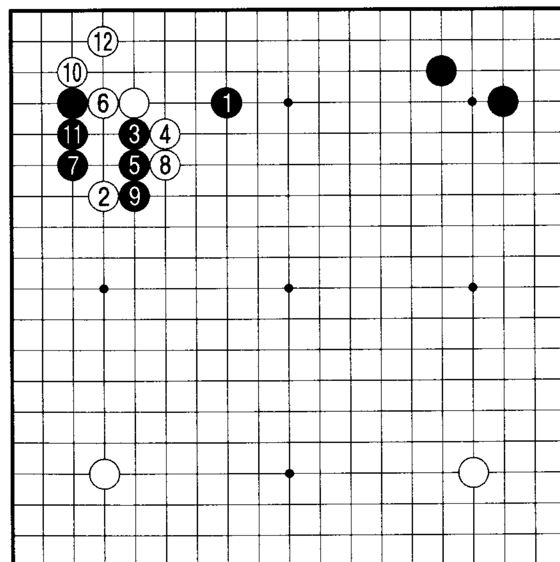




1도

1도(전투형 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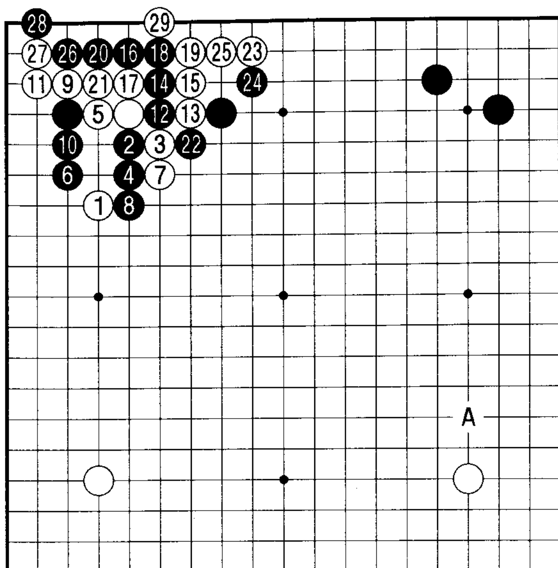
백1, 흑2 때 백3·5로 뛰어 나간 것은 이후 백A로 협공해서 국면을 난전으로 이끌겠다는 뜻이다.



2도

2도(백, 눈목자 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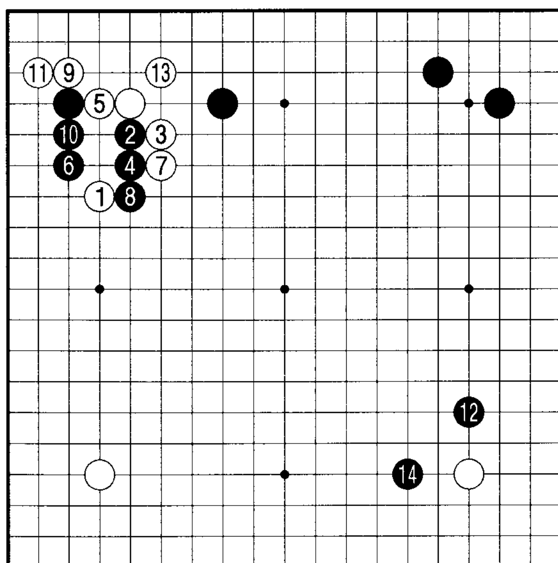
흑1로 공격했을 때 백2로 눈목자하면 가장 알기 쉽다. 계속해서 흑3으로 붙이고 이하 백12까지 실전에 흔히 등장하는 기본 정석이다. 이후 흑은 좌변에 전개하는 진행이 예상된다.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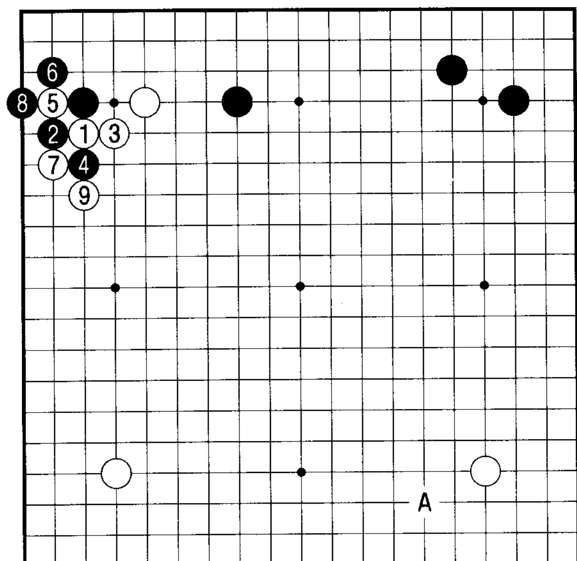
3도(현대 정석)

흑10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11로 빠지면 이후의 수순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흑12로 끊으면 이하 백29까지가 현대에 개발된 대표적 정석이다. 흑은 A의 축머리를 이용하는 진행이 예상된다.


4도

4도(축머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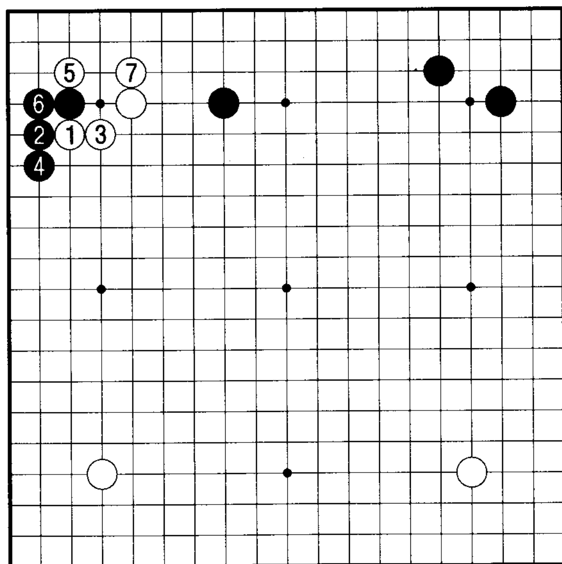
백11 다음 흑은 좌상을 결정하지 않고 12로 먼저 걸칠 수도 있다. 이때 백13은 축관계상 절대이다. 흑14까지 또 다른 포석으로 갈린다.



5도

5도(호각)

백은 1로 붙여 진행할 수도 있다. 흑2·4의 수순을 거쳐 백5로 끊으면 흑6으로 잡고 이하 백7·9까지의 포석 진행이 예상된다. 이후 흑은 A의 축머리를 이용하는 흐름이 된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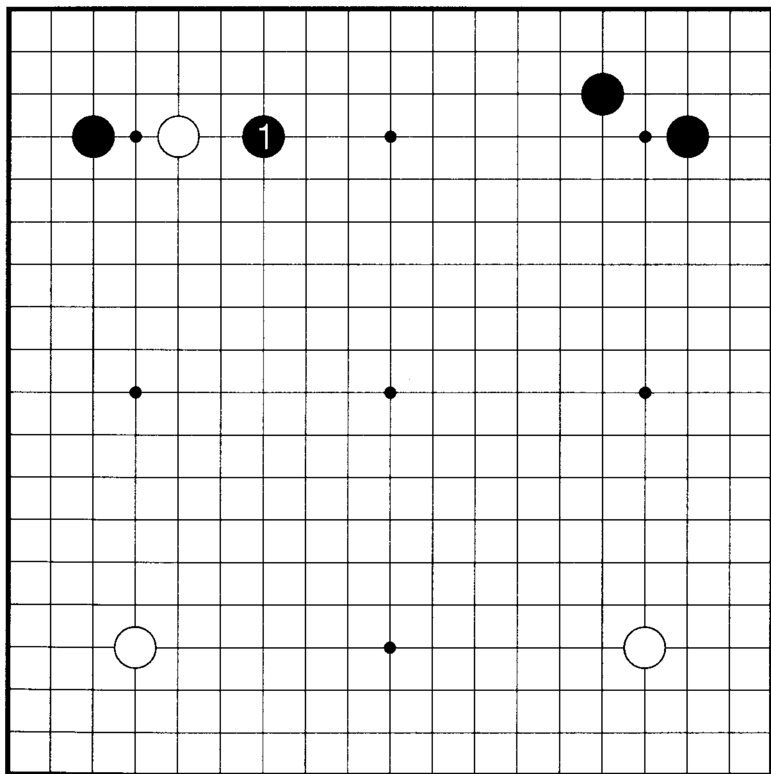
6도(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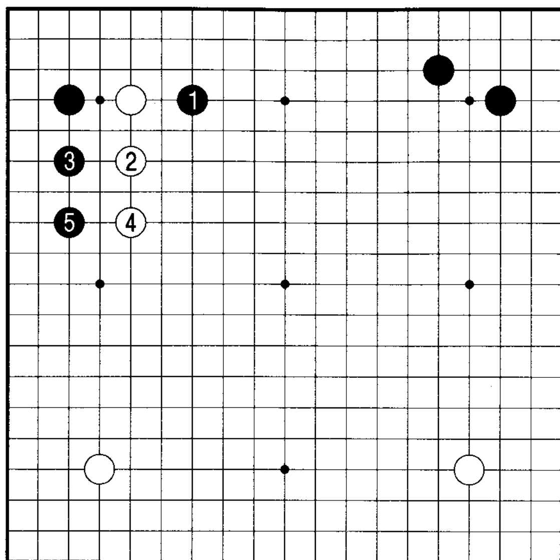
백1·3으로 붙이고 뻗었을 때 흑은 4로 변화할 수도 있으나 저위로 치우쳐 현대에는 사용빈도가 거의 없다.

제65형

향소목 포석 4(2연성 대응) — 가토류의 진수

본래 흑의 향소목 포석은 중국식 포석과 더불어 가토(加藤正夫)류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급격한 이 협공을 즐겨 사용했다. 그럼 흑1로 협공한 이후의 포석 진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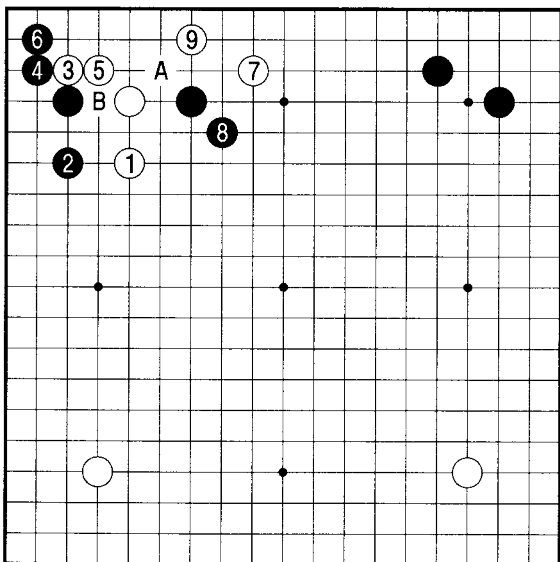




1도

1도(급격한 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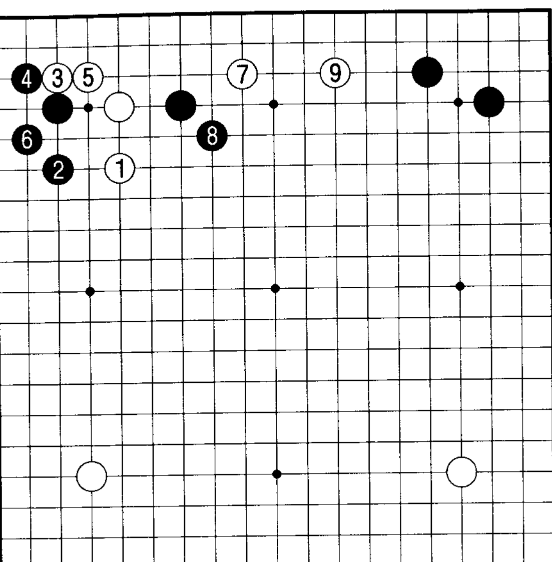
흑1로 한칸 높게 협공한 것은 국면을 급격하게 몰아가겠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백2로 한칸 뛰고 흑3 이하 5까지 상식적인 진행이다.



2도

2도(백,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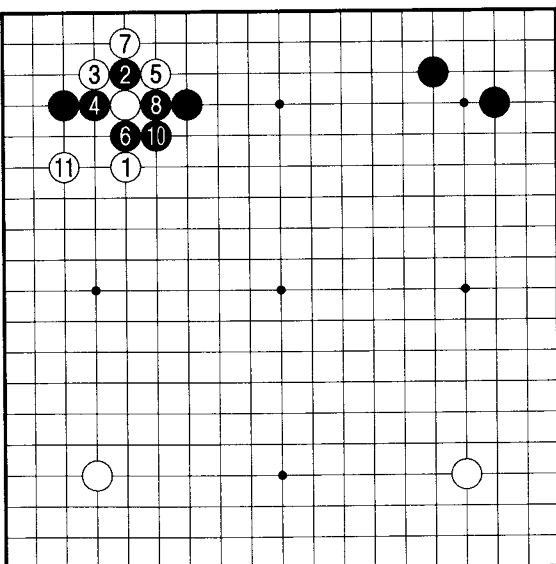
이 진행은 흑이 다소 불만이다. 흑6 때 백7의 되협공을 당하여 9까지 진행되면 백B가 선수이므로 흑A로 차단하는 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3도

3도(흑, 연결 차단)

백5까지 진행되었을 때 흑6으로 호구쳐 백의 연결을 차단하는 수가 옳다. 백은 7로 흑8을 기다려 9로 전개하는 진행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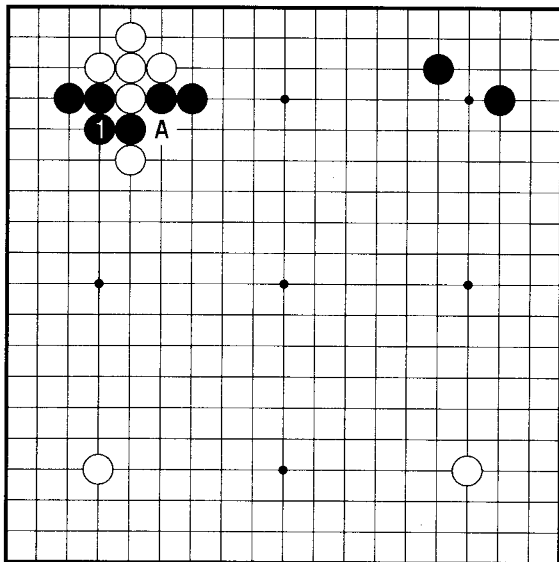


4도

⑨ ··· ❷

4도(정석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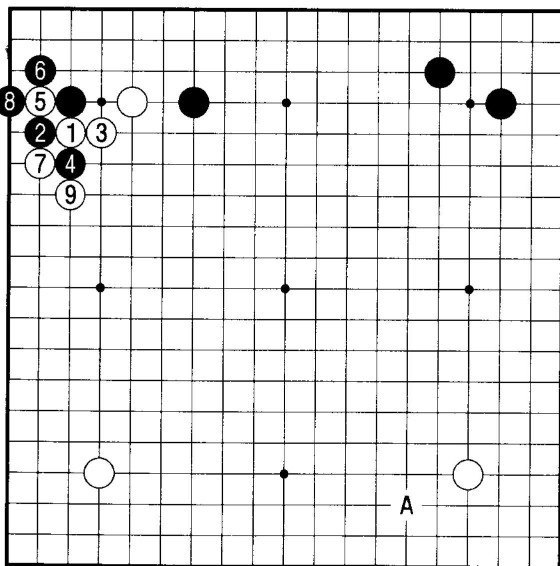
백1 때 흑2로 밑붙임하는 것은 흑이 선택할 수 없다. 백11에 이르러 흑은 공배만 연결한 셈이다.



5도

5도(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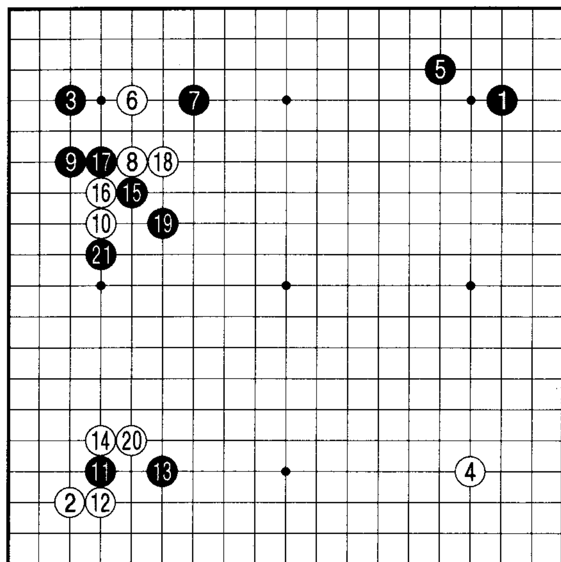
흑1로 잇는 수도 역시 A의 약점이 남아 전도와 마찬가지로 흑이 선택할 수 없다.



6도

6도(백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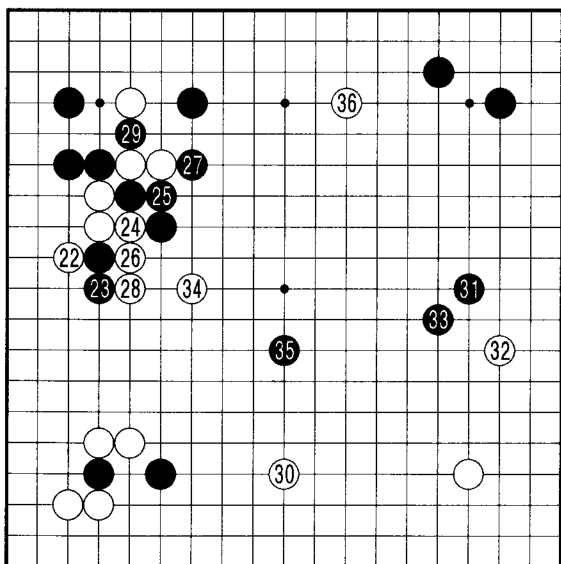
백은 1 이하로 변화할 수 있다. 백9까지 상용 수순인데 이후 흑은 A쪽의 축머리를 이용하게 된다.



〈1보〉

1보(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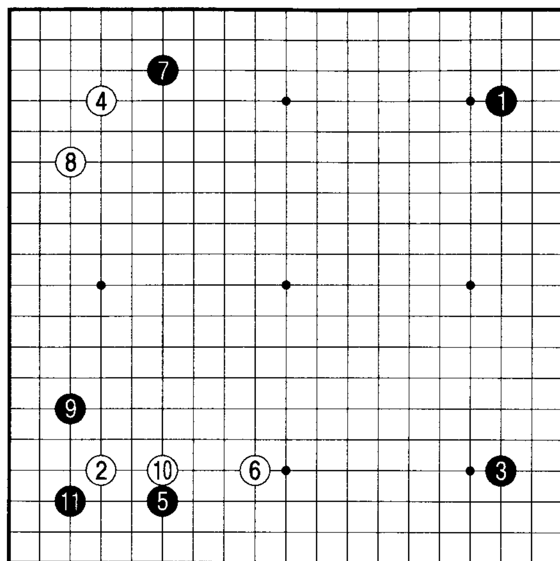
18기 국기전 도전2국에서 백의 이창호에게 흑의 유창혁이 시도한 향소목 포석이다. 좌상귀의 접전에서 흑15와 흑21은 강수였다.



〈2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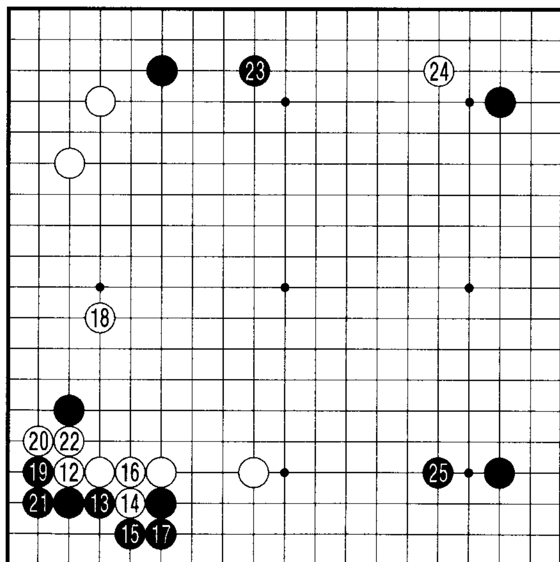
2보(22~36)

30까지 포진한 백의 진영도 넓지만 흑도 31로 전개하여 33까지 불만이 없다. 흑35에 대하여 백도 36으로 침입. 이 곳의 타개가 승부의 관건이다.


〈1보〉

1보(1~11)

22기 일본 명인전 도전 2국에서 백의 고바야시 고이치를 상대로 조치훈이 구사한 특이한 소목 포석이다. 흑5에서 7·9로 빠른 전환을 하는 것은 선수를 잡아 큰 곳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2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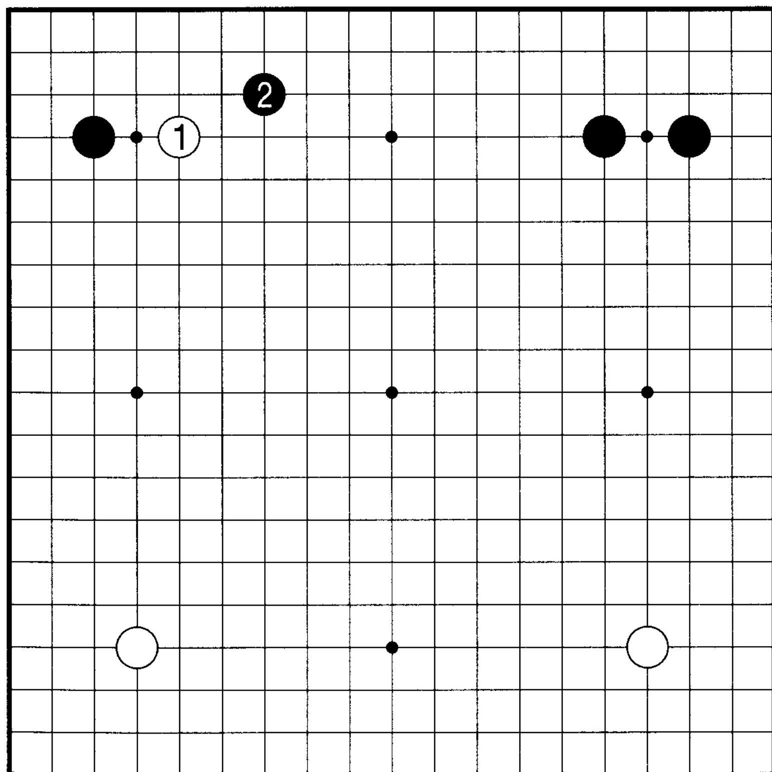
2보(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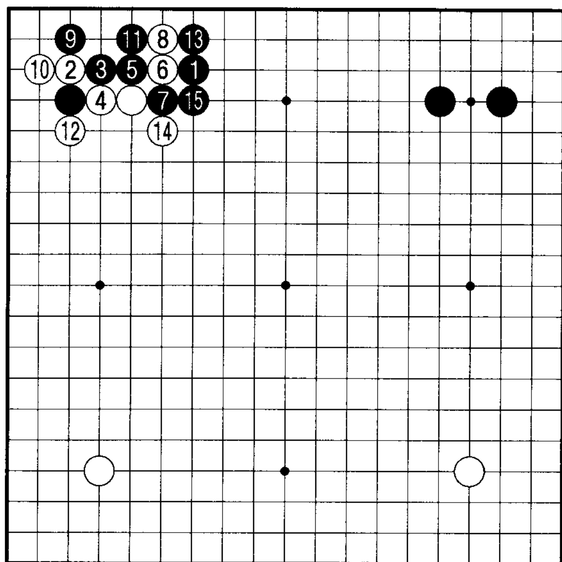
흑19·21로 선수를 잡아 흑23으로 좌변을 견제하고 백24로 걸칠 때 흑25의 굳힘을 선점하여 빠른 진행이다.

제66형

향소목 포석 5(2연성 대응) — 유력한 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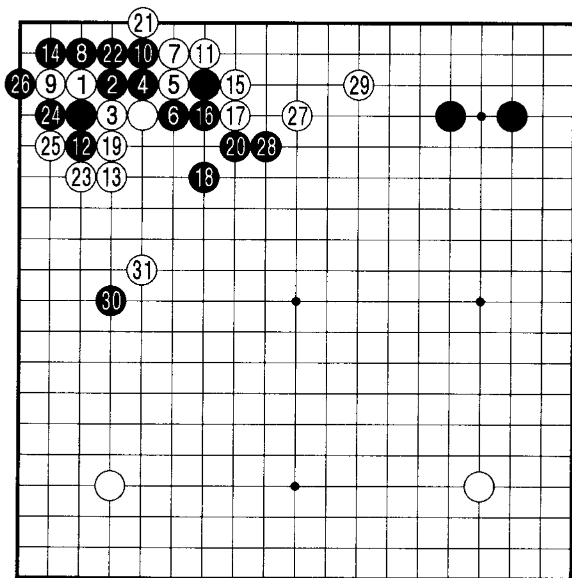
우상귀가 한칸 높은 굳힘이라면 백1 때 흑은 2로 한칸 낮게 협공하는 것이 유력하다. 흑2는 우상귀의 굳힘과 호응하는 자세이다. 그럼 이후의 포석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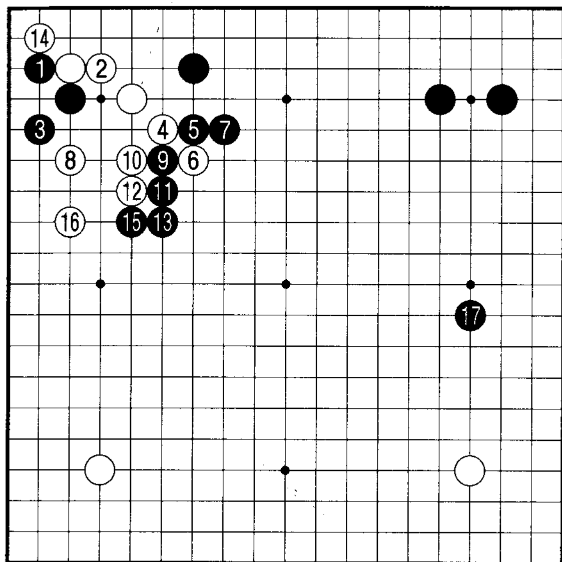
1도(흑, 두터움)

흑1 때 백2로 붙인다면 흑3으로 젖힌 후 이하 흑15까지 정석을 진행시키는 것이 요령이다. 이 정석은 흑이 두텁다는 것이 중론이다.


2도

2도(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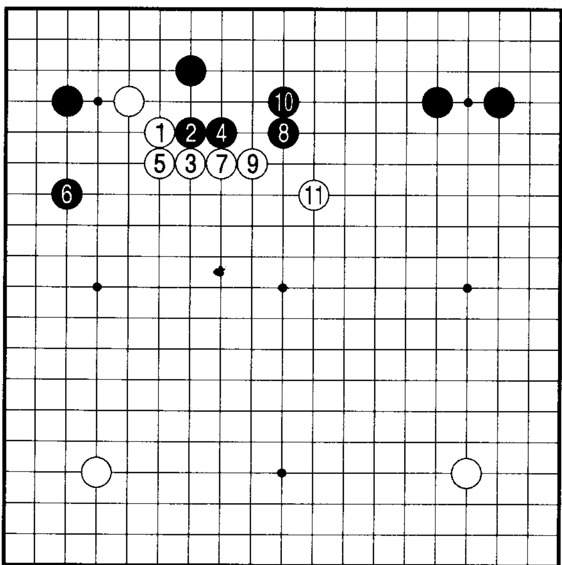
흑10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은 11로 변화하는 것이 좋다. 이 정석선택은 상변을 백이 차지하여 흑이 불만이다.



3도

3도(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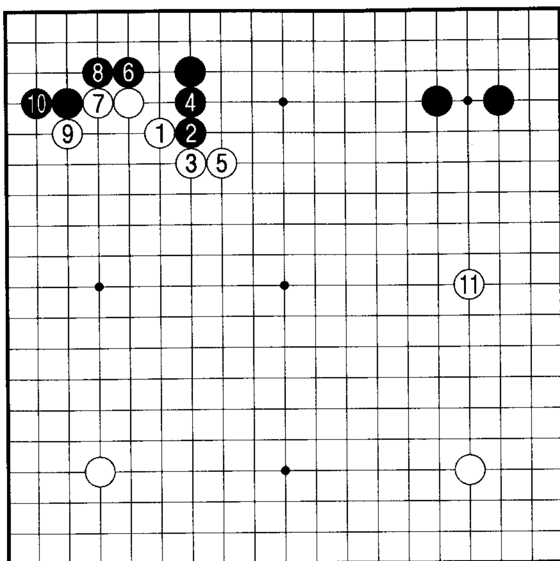
흑도 1로 젖혀 처음부터 변화할 수 있다. 이 포석 진행은 흑17까지의 진영이 폭이 넓어 흑이 둘만한 선택이다.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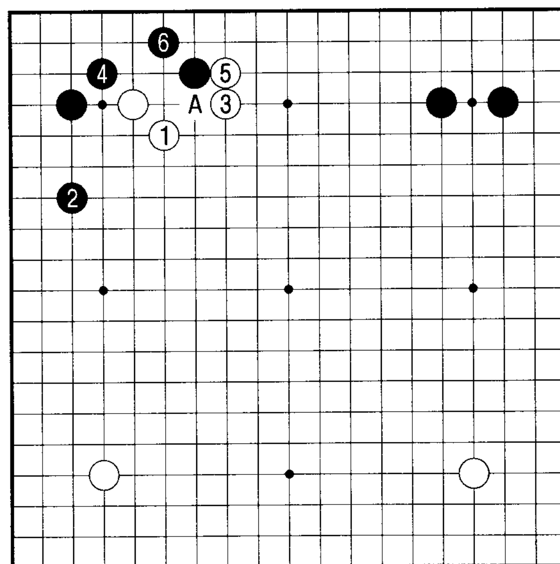
4도(백의 변화)

백은 곧바로 1을 둘 수도 있다. 흑2로 붙이면 이하 백11까지의 포석 진행이 예상되는데, 11로 날일자한 백의 자세가 좋아 백이 둘만하다.


5도

5도(고풍 정석)

흑2로 붙이고 백3으로 젖혔을 때 흑4로 두는 형은 현대에 자취를 감추었다. 백5로 뻗은 자세가 좋고 흑10까지 선수를 잡아 11로 전개하면 백의 넓은 진행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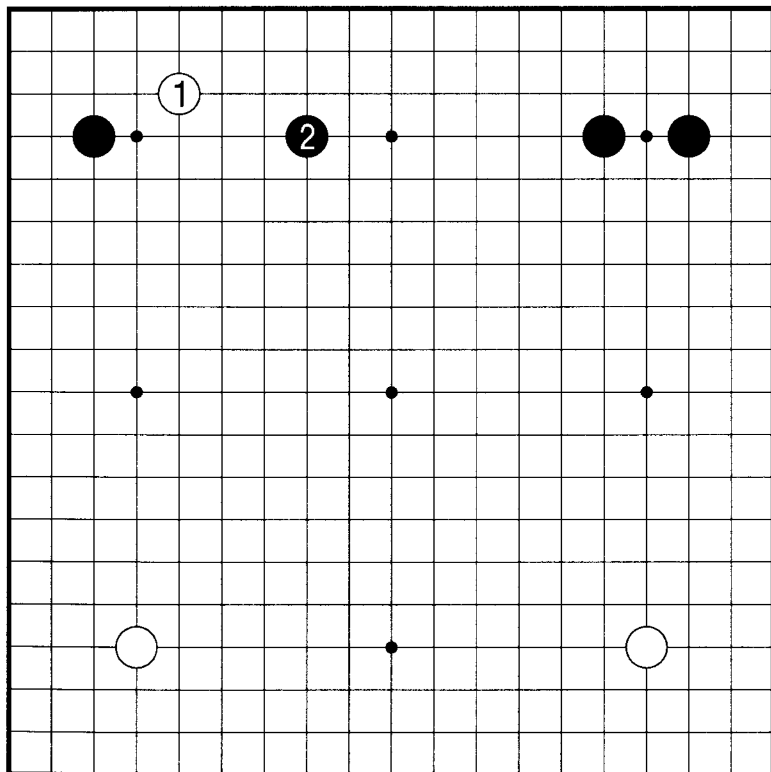
6도(현대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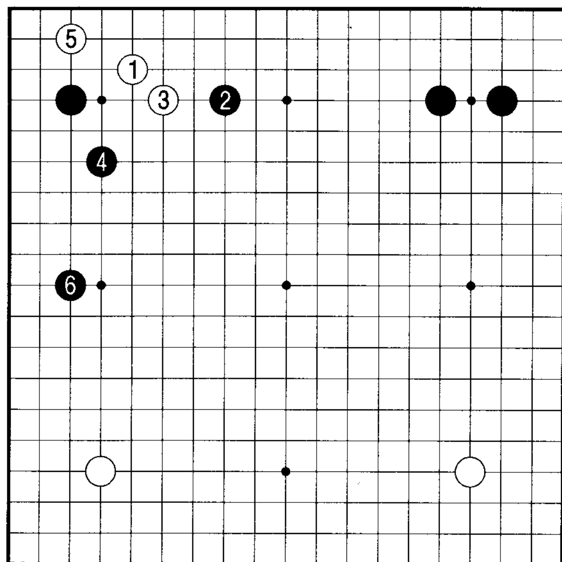
백1로 마늘모했을 때 발빠른 현대 감각으로는 흑2·4·6의 수순이 있다. 이 포석 진행은 A로 끊는 수단을 남기고 있어 흑이 둘만하다.

제67형

향소목 포석 6(2연성 대응) — 현대 감각의 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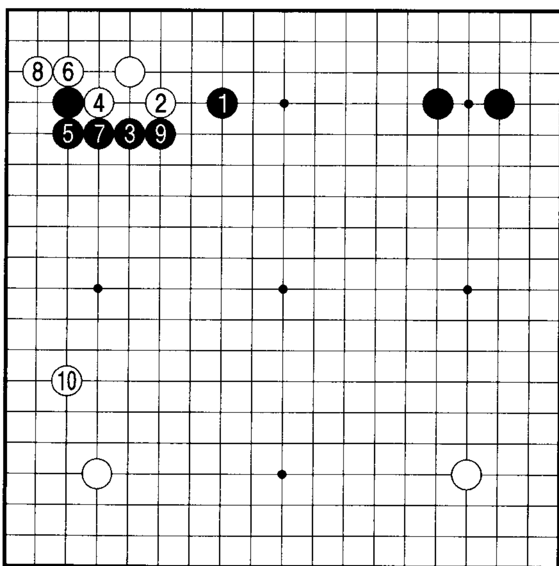
백1의 날일자로 걸쳤을 때 흑2의 두칸 높은 협공은 스피드한 현대 감각에 가장 알맞는 협공이다. 그럼 이 후의 포석 진행을 살펴보기로 한다.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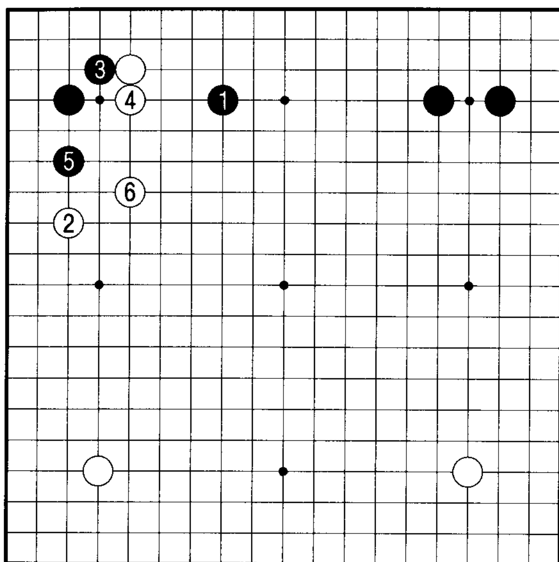
1도(호각)

백은 1로 날일자해서 걸칠 수도 있다. 이때는 흑2로 협공하는 것이 상용 수법으로 이하 흑6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이다.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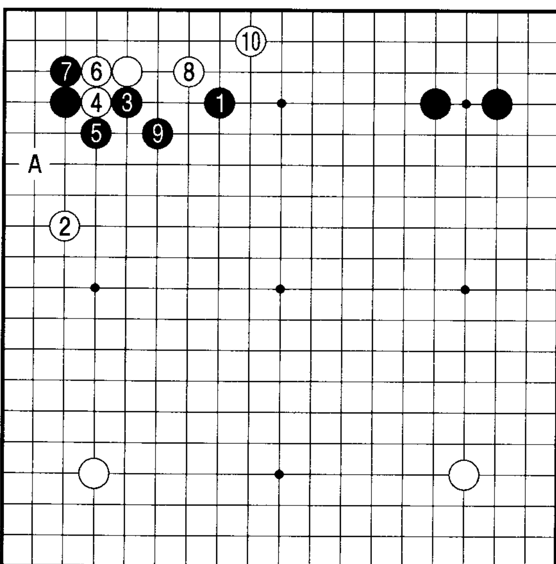
2도(가지와라 정석)

흑1로 협공하여 백2로 마늘모했을 때 흑3의 날일자로 씌우면 흑9까지의 진행이 예상된다. 이 정석은 흑이 후수가 되어 백에게 10으로 좌변의 영향력을 제한받게 되므로 흑의 의문이다.


3도

3도(백의 취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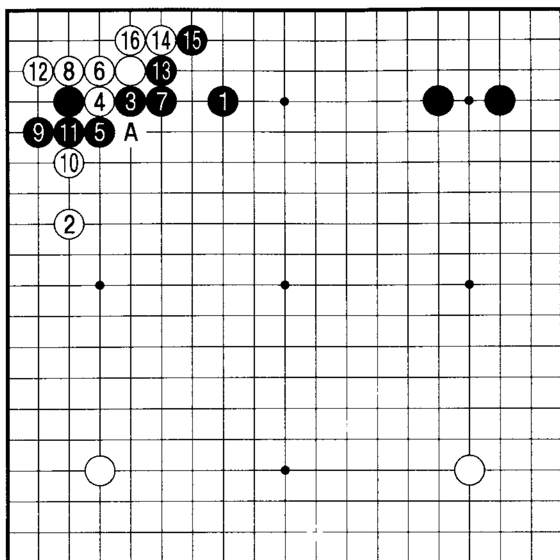
흑1로 협공했을 때 백2로 두는 수도 가능하다. 이하 백6까지 상용화된 수순이다. 이 진행도 변을 빠르게 차지하는 현대 감각에 맞는 백의 흐름이다. 흑도 불만은 없다.



4도

4도(백, 발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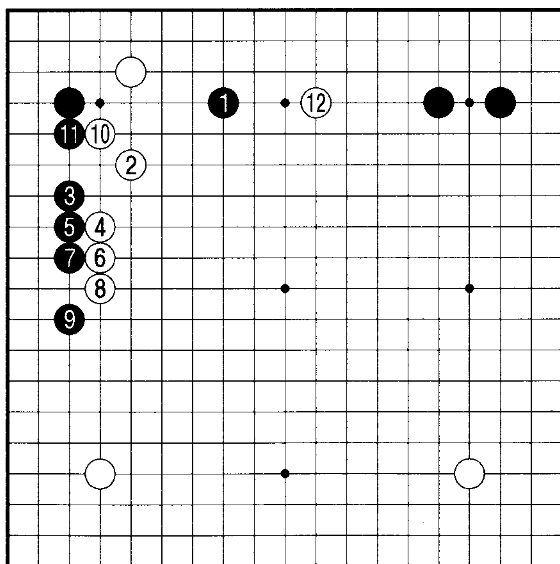
흑1, 백2 때 흑3으로 붙이면 백4·6으로 끼워이은 후 흑7을 기다려 백8·10으로 달린다. 이 진행은 흑이 선택하기 곤란하다. 백A로 들여다보는 수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5도

5도(흑의 약점)

백4·6으로 끼워이엇을 때 흑7로 뻗으면 백8로 둔 다음 이하 16까지 예상되는 진행이다. 이 진행도 흑이 취할 바가 못된다. A의 단점이 남기 때문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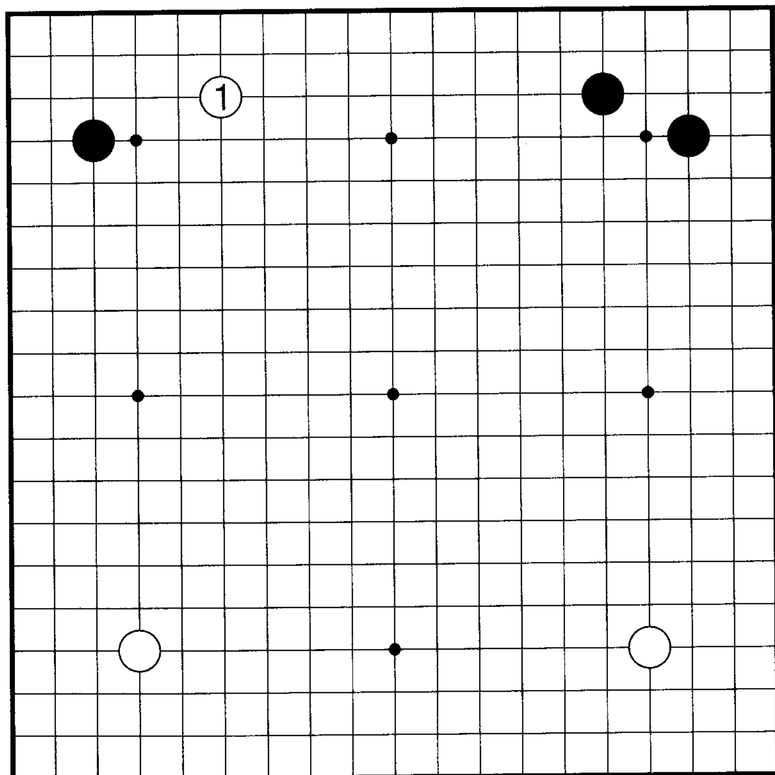
6도(현대형 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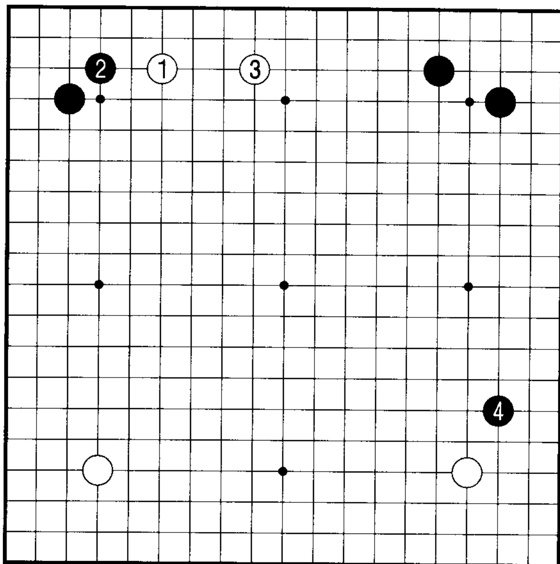
흑1 때 백2의 경쾌한 두칸이 현대를 대표하는 정석진행이다. 백10까지 좌변을 압박한 후 12로 역공하여 전투에 돌입한다.

제68형

향소목 포석 7(2연성 대응) — 유연한 작전

백1의 눈목자 걸침은 흑으로부터 협공을 최대한 완화시키겠다는 뜻이다. 백으로서는 유연한 작전 구상인데 이후의 포석 진행을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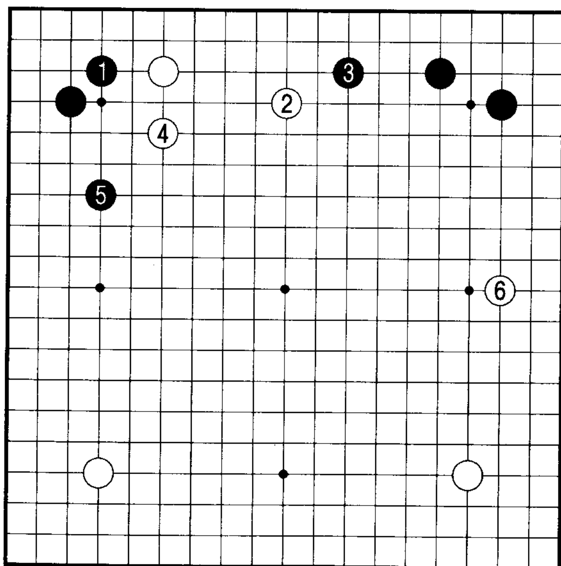




1도

1도(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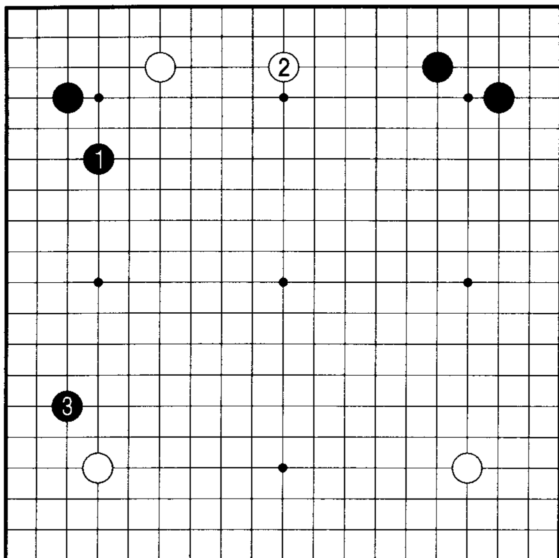
백1의 눈목자로 걸쳤을 때 흑2와 백3을 교환하고 흑4로 전환하면 평범한 포석 진행이다.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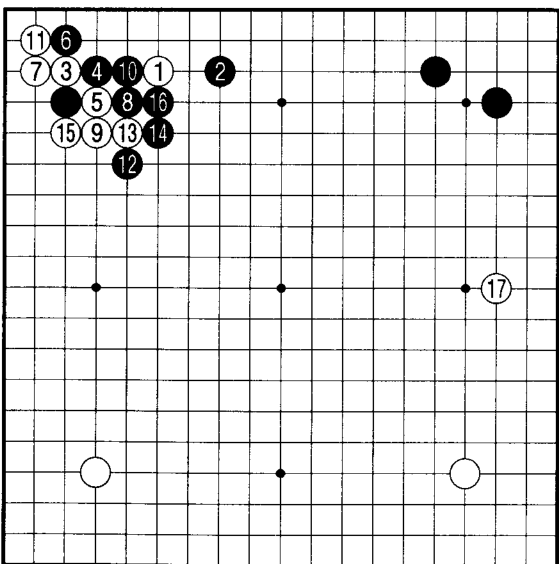
2도(백의 변화)

흑1 때 백2로 전개하는 것은 흑3의 다가섬을 유도하여 백4, 흑5로 약점을 보강한 다음 선수를 잡아 6에 전개하기 위함이다. 이 진행도 쌍방 무리가 없다.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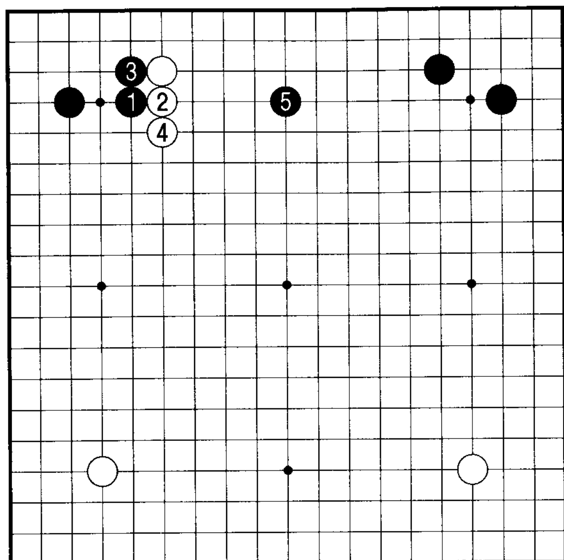
3도(현대 감각)

흑1의 날일자도 현대적 감각에 부합한다. 백2를 기다려 흑3을 선점하여 흑의 발빠른 진행이다.


4도

4도(백,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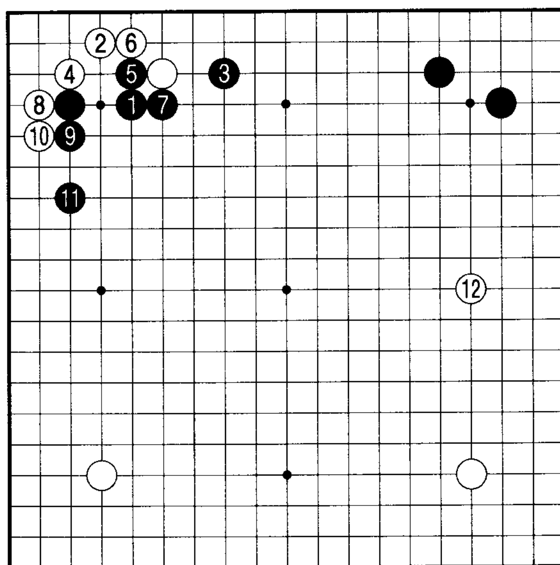
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협공한다면 백은 3으로 붙여 수습하는 것이 좋다. 이하 흑16까지 부분적으로 볼 때 흑이 약간 두텁지만 백은 17로 손을 돌려 충분히 둘 수 있는 모습이다.



5도

5도(흑, 공격)

흑1의 어깨짚는 수도 고려할 수 있는 작전이다. 계속해서 백2로 올라서면 흑3·5로 공격하는 것이 요령이다. 이 진행도 흑백 서로 가능한 구상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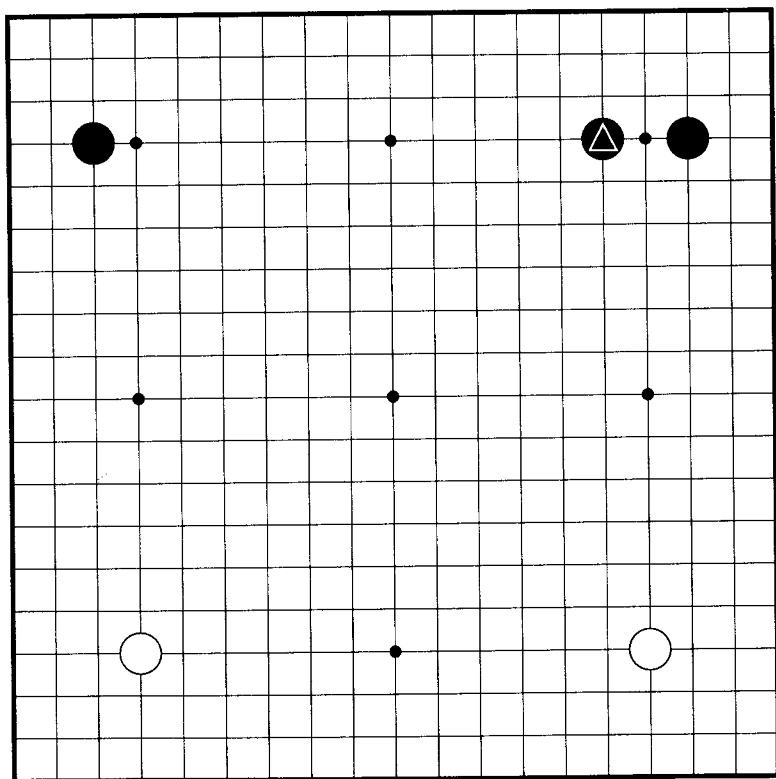
6도(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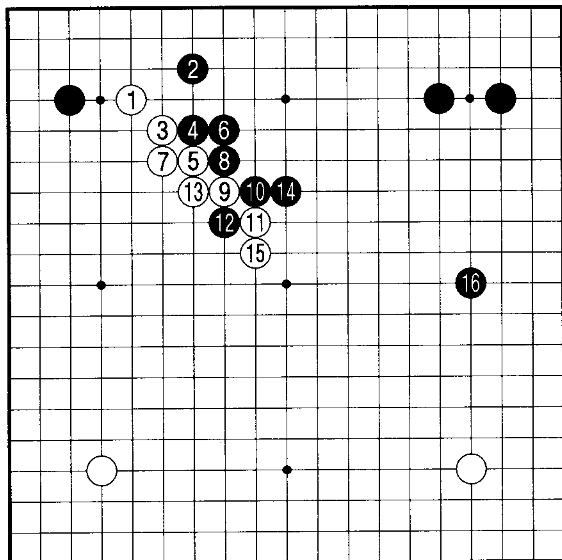
흑1 때 백은 2로 변화할 수도 있다. 이하 흑11까지 좌상은 흑이 두텁지만 백도 12로 우변을 전개하는 수순을 가져 불만이 없다.

제69형

향소목 포석 8(2연성 대응) — 특수한 포석 변화

우상의 굳힘이 흑▲로 되어 있다면 백의 포석 선택도 달라진다. 여기서는 앞의 향소목 포석에서 소개하지 못한 특수한 변화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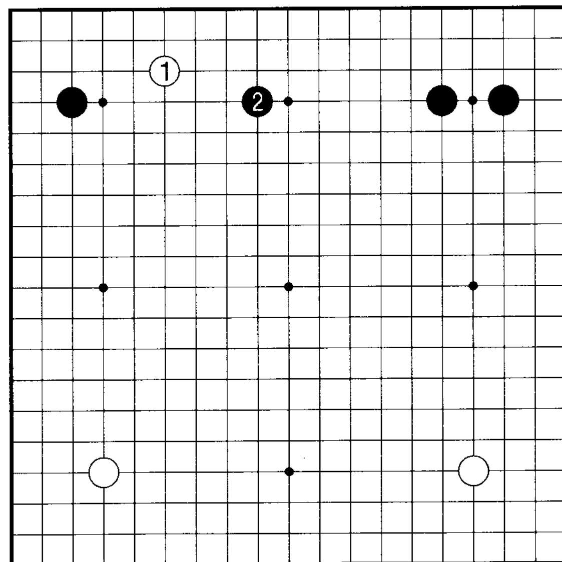




1도

1도(제공권 다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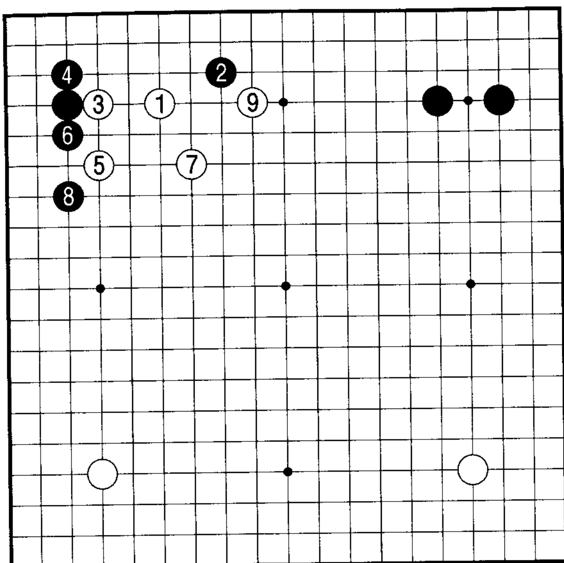
이 진행은 중앙의 제공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세의 대결이다. 흑이 16의 전개를 차지하였으나 백도 전반적으로 포진이 넓어 호각이다.



2도

2도(백, 눈목자 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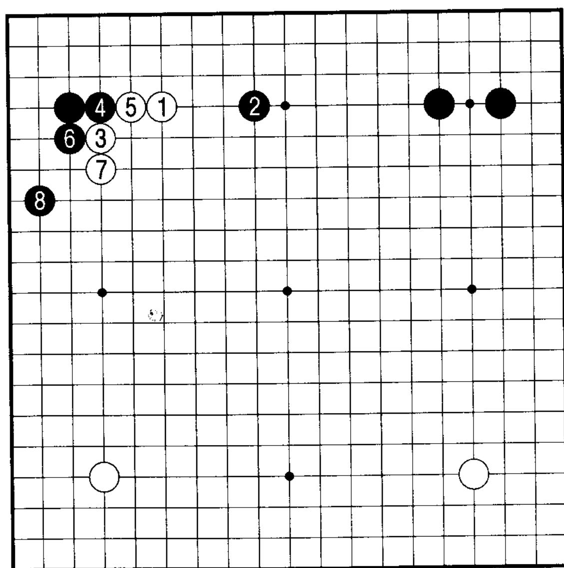
백1의 눈목자 걸침도 유연하지만 흑도 우상의 포진과 더불어 2의 협공이 어울려 불만이 없다.



3도

3도(흑, 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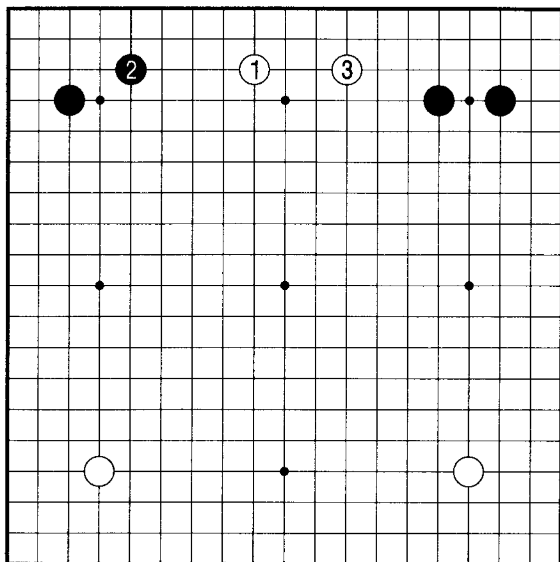
백1의 두칸 높은 걸침에 대한 흑2의 선택은 백3·5로 가볍게 처리한 다음 7·9의 역공을 받아 상변의 흑 진영이 위축되어 불만이다.



4도

4도(흑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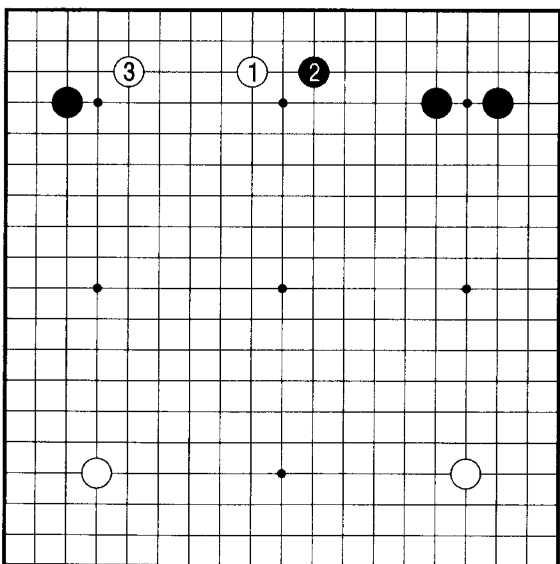
백1로 걸쳤을 때 흑은 2로 협공하는 것이 옳다. 이하 흑8까지 흑도 둘만하다.



5도

5도(백, 갈라침)

백은 걸침을 생략한 채 바로 1로 갈라쳐서 둘 수도 있다. 계속해서 흑2로 굳힌다면 백3으로 두칸 벌려 흑의 뒷문 열린 약점을 노릴 수 있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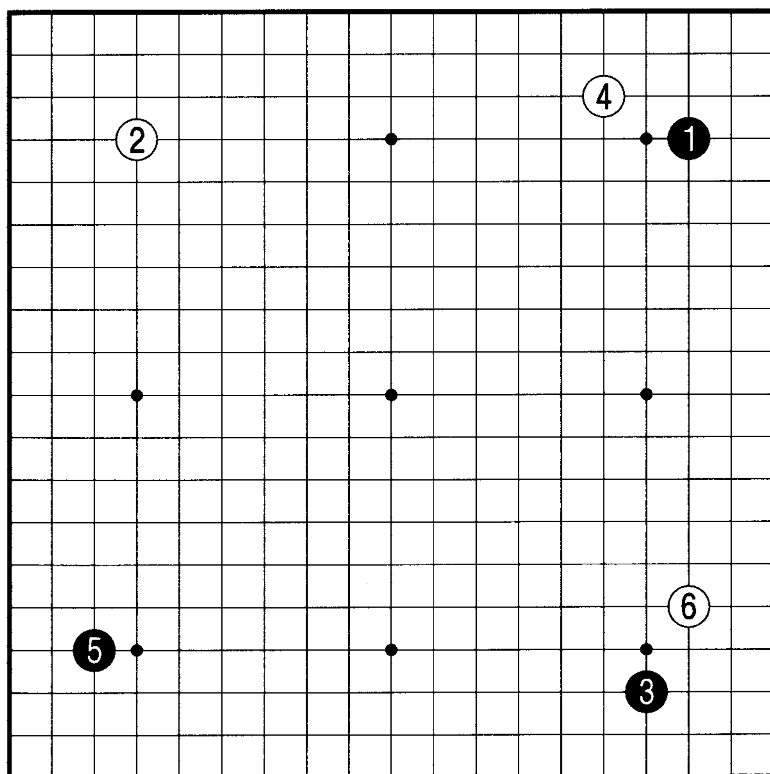
6도(백,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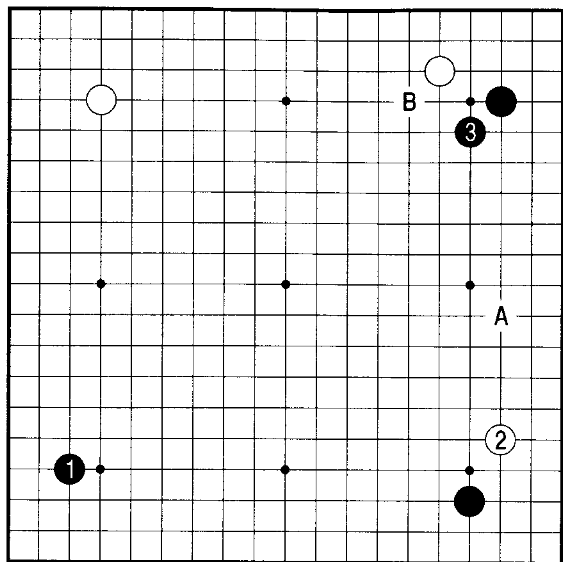
백1 때 흑2로 다가선 것은 전도와 같은 진행을 피한 것이다. 그러나 백3으로 걸칠 수 있어 이 역시 백으로선 충분히 둘 수 있는 포석이다.

제70형

1·3·5 포석 1 — 견실한 슈사쿠(秀策)류

흑이 1·3·5로 세 귀를 점령하자 백이 화점을 차지한 후 우상귀와 우하귀에 날일자로 걸친 장면이다. 그럼 백6 이후의 포석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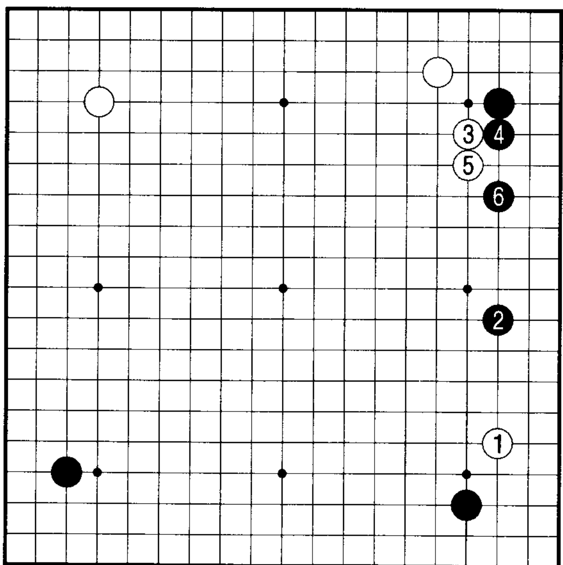




1도

1도(견실한 마늘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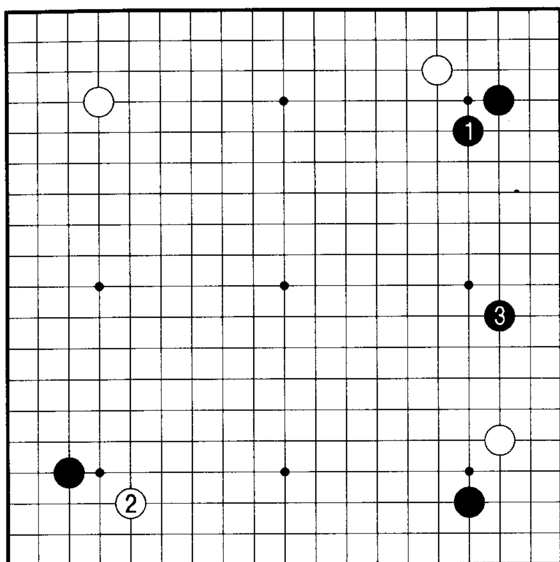
흑1로 귀를 점령하면 또다시 백2로 귀를 걸치는 것이 보통이다. 계속해서 흑3으로 마늘모한 수가 견실한 수법으로 A의 벌림과 B의 씌움을 엿보고 있다.



2도

2도(흑, 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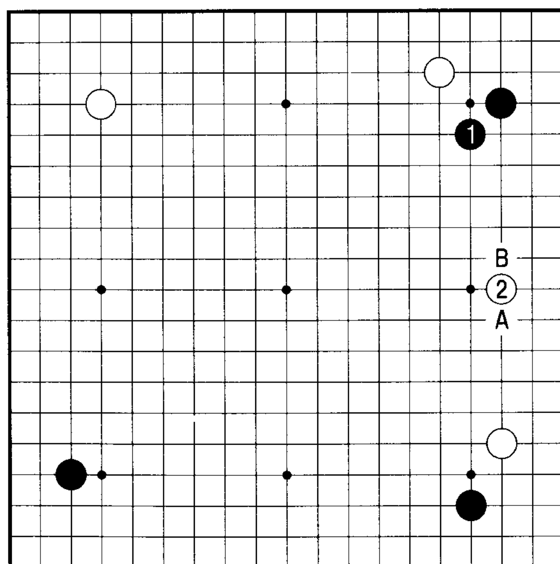
백1로 걸쳤을 때 곧장 흑2로 협공하는 것은 의문이다. 백은 3으로 씌우는 것이 호착으로 이하 흑6까지 흑을 저위에 치우치게 할 수 있다.



3도

3도(흑, 절호의 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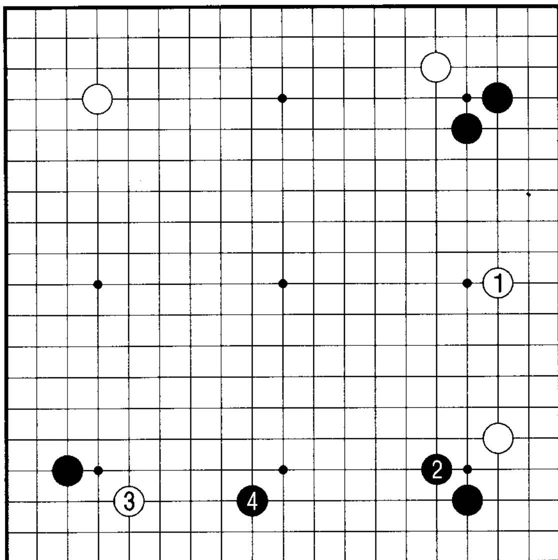
흑1로 마늘모했을 때 백2로 걸친다면 흑3으로 협공하는 것이 절호점이 된다. 이 진행은 아무래도 흑이 유리하다.



4도

4도(백의 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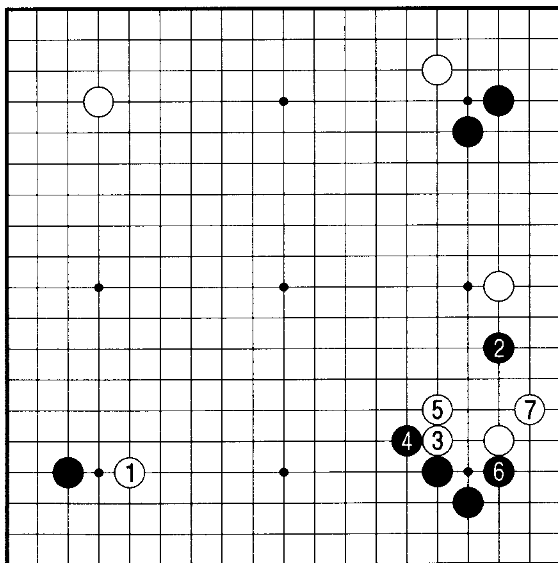
흑1로 마늘모하면 백은 2로 전개해서 흑의 세력 확장을 견제할 곳이다. 백2로 A에 두는 것은 흑 B에 다가서는 것이 절호점이 된다.



5도

5도(흑의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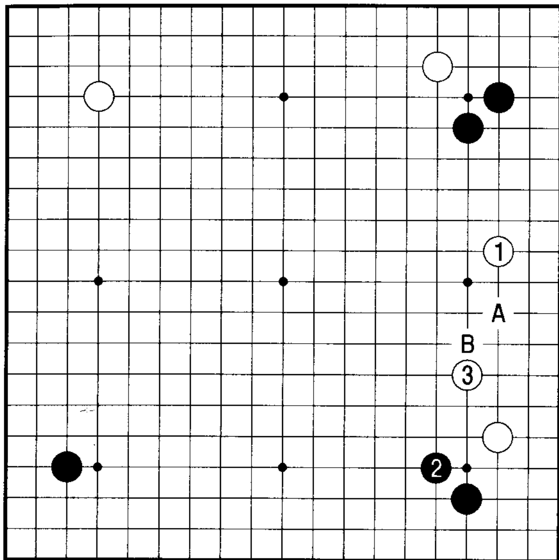
백1에는 또다시 흑2로 마늘모하는 것이 견실한 수법이다. 계속해서 백3으로 걸친다면 흑4가 또한 절호의 벌림겸 협공수가 된다.



6도

6도(협공을 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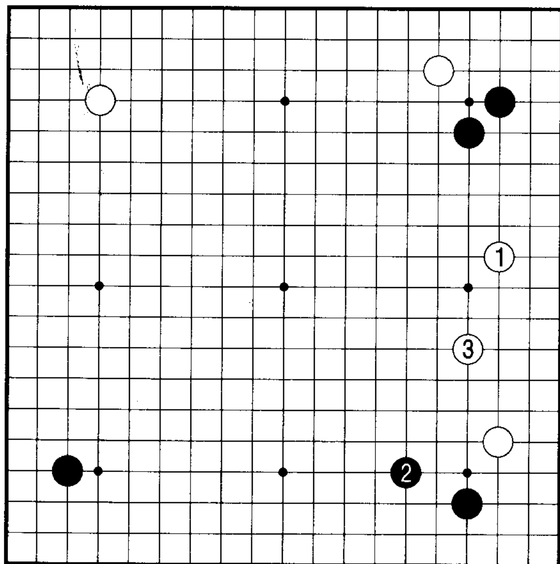
백은 흑으로부터 협공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백1로 높게 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속해서 흑2로 침입한다면 백3으로 붙인 후 이하 7까지 처리하는 것이 요령이다.



7도

7도(백,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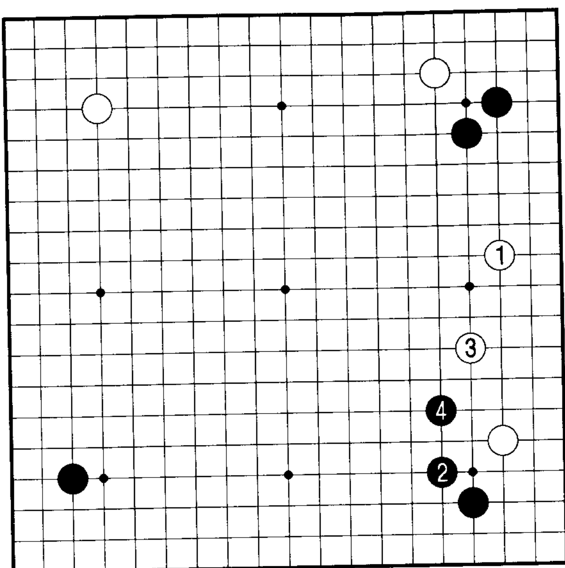
백은 1로 한칸 더 진출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흑2로 마늘모한다면 백3으로 지켜서 이상적인 형태를 갖출 수 있다. 흑2로는 A나 B에 침입하는 수도 성립한다.



8도

8도(백, 지킴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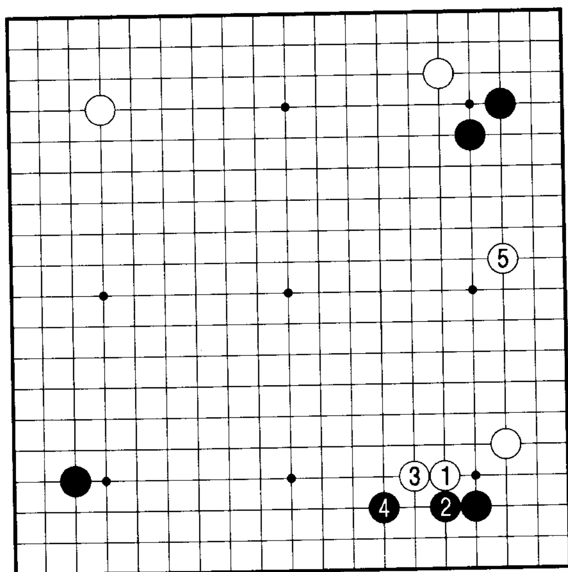
백1로 전개했을 때 흑이 2의 날일자로 지킨다면 백도 3으로 지키는 것이 방법이다.



9도

9도(백, 틀린 지킴)

백1 때 흑이 만약 2의 마늘모로 응수한다면 백3은 이번에는 틀린 지킴이다. 왜냐하면 흑4로 활용당하게 된다.



10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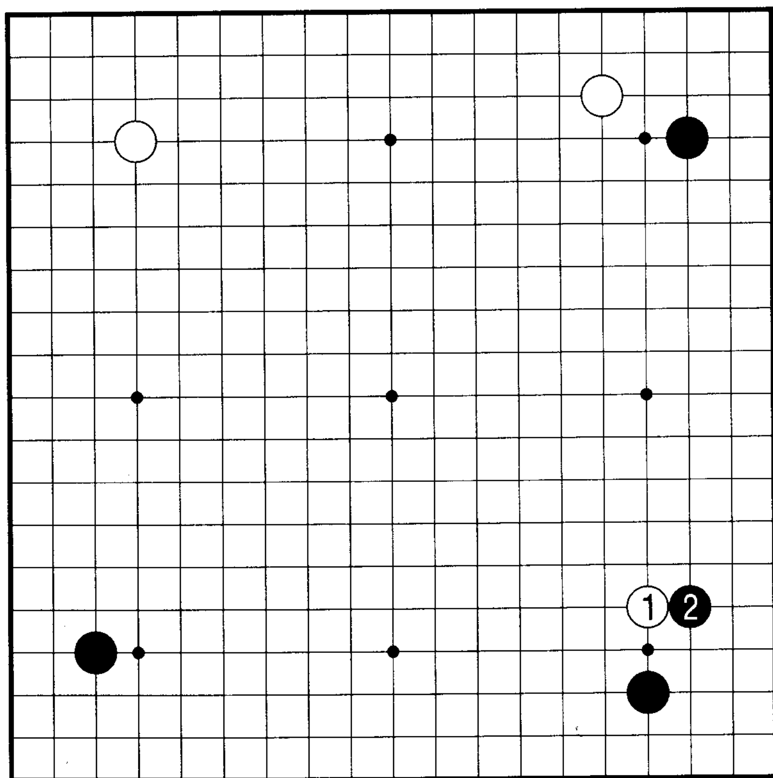
10도(다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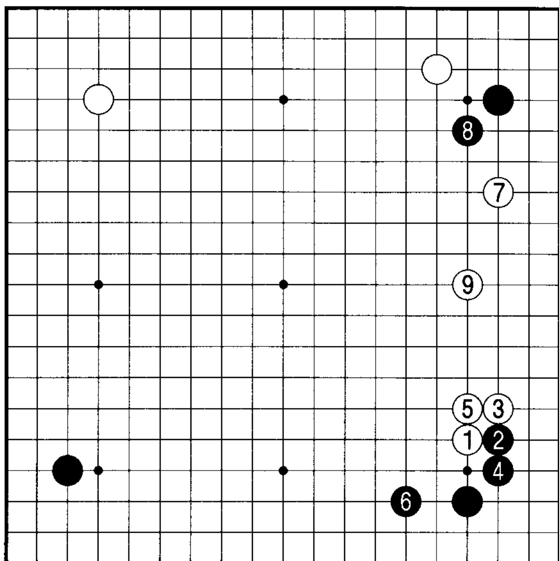
백은 1로 먼저 둘 수도 있다. 흑4까지 응수시킨 후에 백5로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71형

1·3·5 포석 2 — 실리형 밑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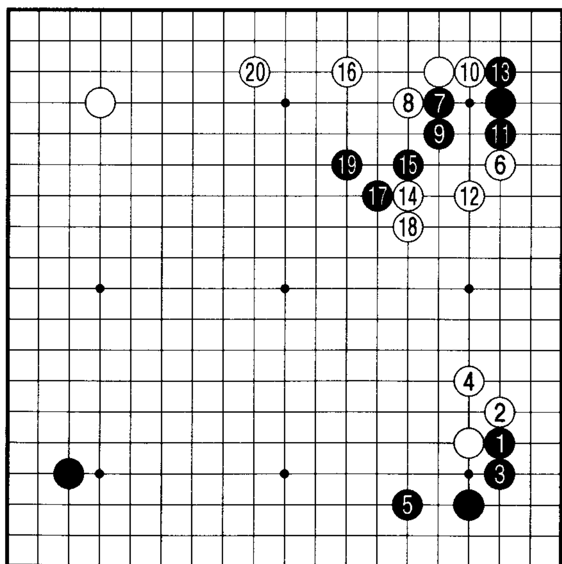
백1로 높게 걸쳤을 때 흑2로 밑붙이는 정석을 선택하는 목적은 실리를 차지하는데 있다. 그럼 흑2로 밑붙인 이후의 포석 진행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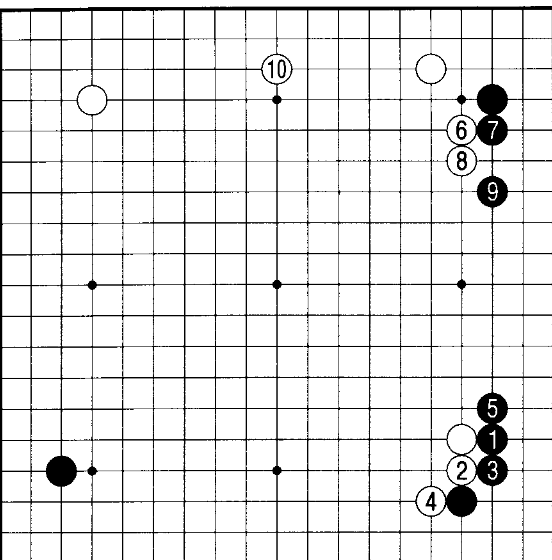
1도(기본 포석)

백1, 흑2 때 백3으로 젖힌다면 기본적으로 백9까지의 진행은 필연성이 있는 포석 형태이다.


2도

2도(백4, 능률적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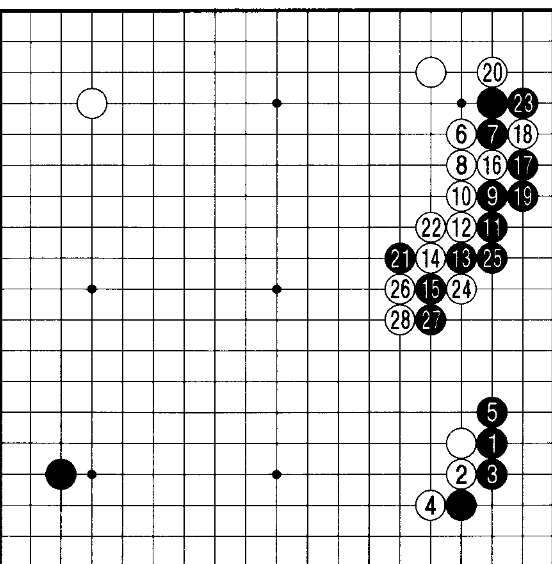
흑1·3 때 백4로 호구친 다음 6으로 협공하는 것도 가능한 작전이다. 계속해서 흑7로 붙이면 이하 백20까지 예상되는 포석 진행이다. 백은 전도보다 이 진행이 현실적으로 이득이다. 4의 호구이음이 우변 수비를 한수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투의 여지는 남아 있다.



3도

3도(백의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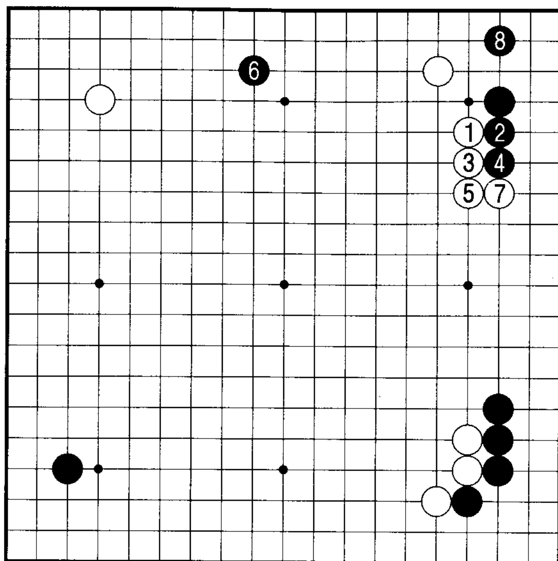
흑1로 붙였을 때 백은 2·4를 선수한 후 6으로 씌우는 것이 책략적인 수단이다. 계속해서 흑7·9로 응수한다면 백10으로 전개해서 백이 활발하다. 반면에 흑은 저위에 치우친 모습이다.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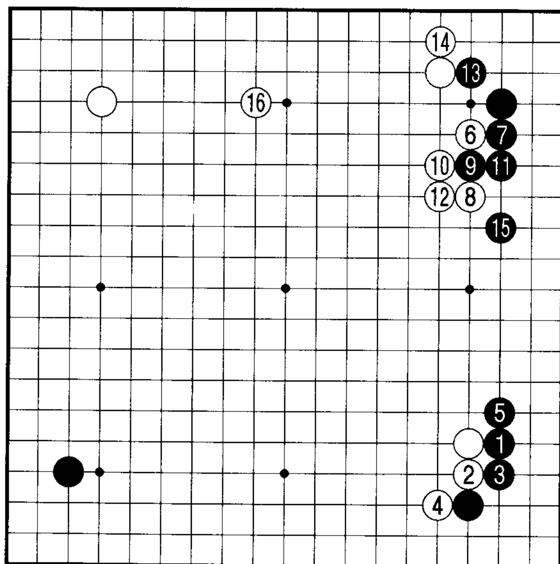
4도(선택의 가치)

흑9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10 이하로 밀어붙이는 변화도 의미있는 작전이다. 이하 백28까지 힘차게 밀어붙인다. 힘이 강한 바둑이 선택할 가치가 충분한 진행이다.


5도

5도(흑의 변화)

백1로 씌웠을 때 흑은 2로 민 후 4로 한번 더 밀어 백5를 강요한 뒤 손을 빼서 6으로 전환할 곳이다. 계속해서 백7로 막는다면 흑8로 안정을 취해서 충분하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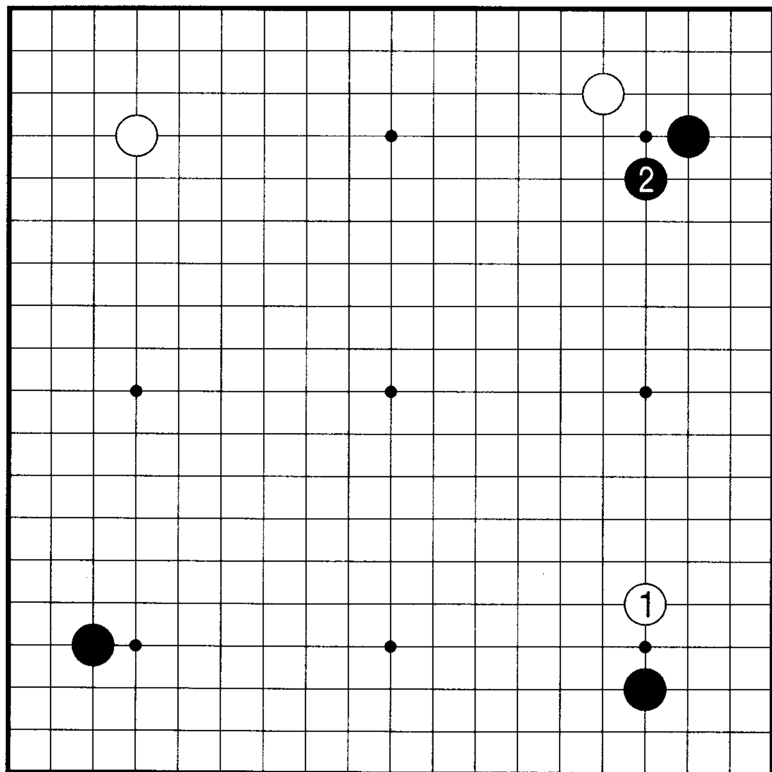
6도(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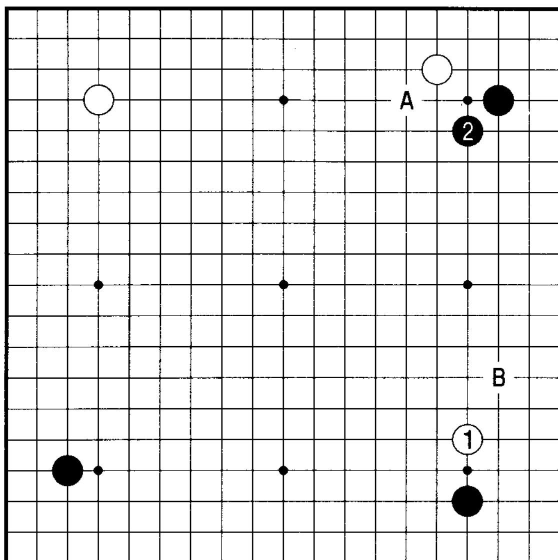
백이 전도가 싫으면 이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흑7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8로 뛰는 수가 전도와 차이점이다. 이하 백16으로 포진하여 불만이 없다.

제72형

1·3·5 포석 3 — 슈사쿠의 마늘모

백1 때 흑2는 1·3·5 포석의 결정체라 불리던 수책의 마늘모이다. 현대에는 발이 느려 사용빈도가 떨어지지만 견고함은 이 이상이 없다. 백은 흑2에 대해 어떤 현대적 감각으로 대응하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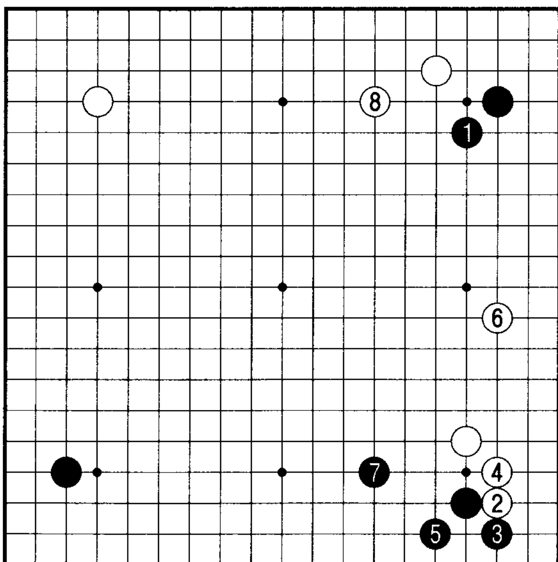




1도

1도(맞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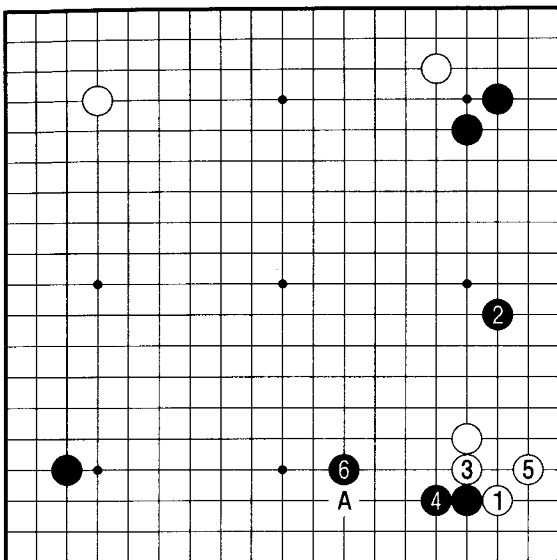
백1로 높게 걸쳤을 때도 흑은 2로 마늘모하는 것이 견실한 수법이다. 이후 흑은 A에 씌우는 수와 B에 협공하는 수단을 맞보기로 하고 있다.



2도

2도(백,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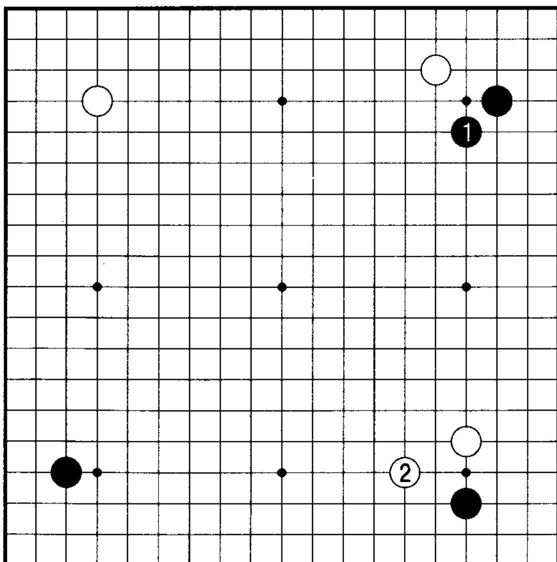
흑1로 마늘모했을 때 백은 2·4로 붙여 뻗은 후 6으로 전개하는 것이 적절한 정석 선택이다. 계속해서 흑7로 보강한다면 백8로 손을 돌려 백이 활발하다.



3도

3도(흑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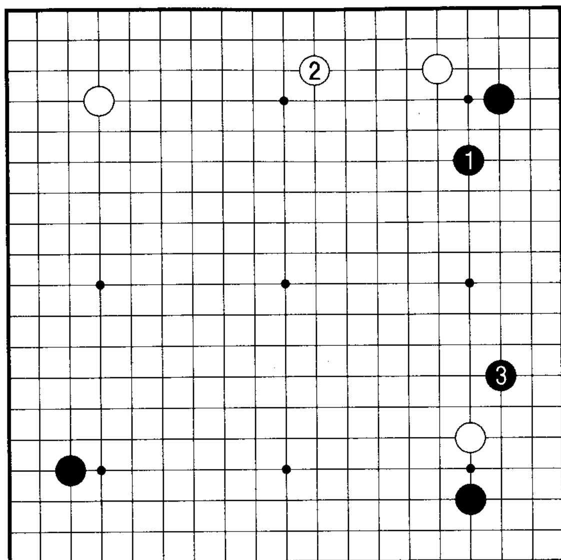
백1로 붙였을 때 흑은 우변을 중시하여 2로 전개하는 수가 재미있는 착상이다. 계속해서 백3으로 치받은 후 5에 호구친다면 흑6이나 흑A로 벌려서 충분한 모습이다.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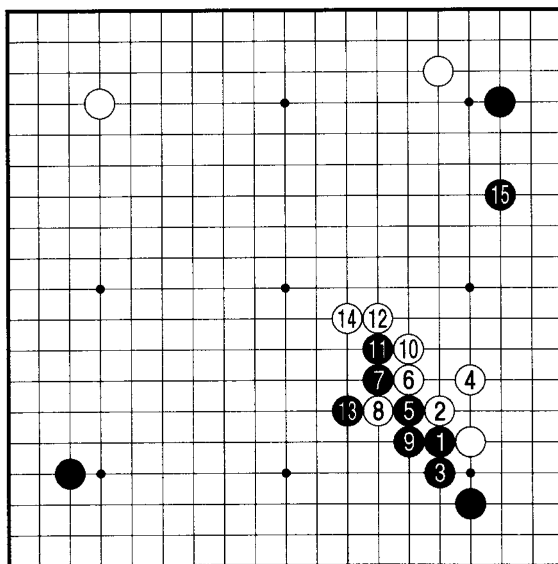
4도(유연한 포석)

흑1로 마늘모했을 때 백2의 날일자 씌움이 책략있는 작전이다. 중앙을 중시하기 시작한 현대의 감각은 전도가 불만일 때 이 진행을 선택하기도 한다.


5도

5도(빠른 포석)

흑은 1의 날일자로 두어 변으로 한발 빨리 갈 수도 있다. 백2의 벌림을 기다려 흑3으로 협공한다. 이것이 현대 감각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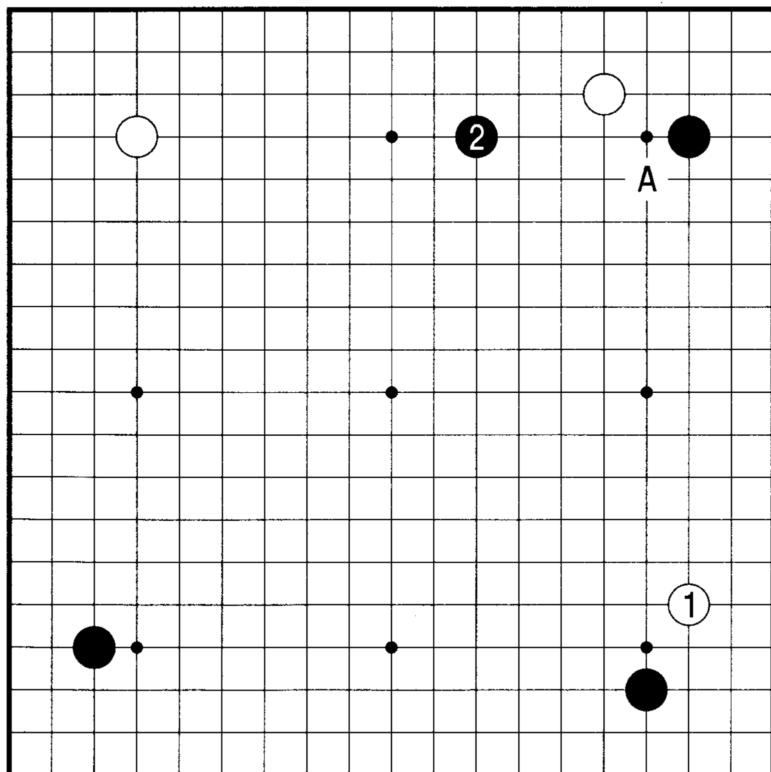
6도(중앙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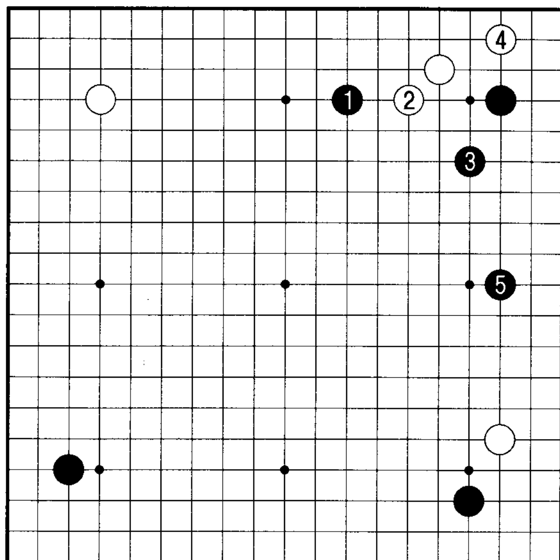
흑은 1로 붙여 이하 백14까지 중앙에서 선수를 잡아 발빠르게 15를 선점하는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제73형

1·3·5 포석 4 — 적극적인 협공

백1로 걸쳤을 때 흑이 A에 마늘모하면 견실하다. 그러나 현대 포석에선 적극적으로 두는 경향이 강하므로 흑2처럼 협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흑2로 협공한 이후의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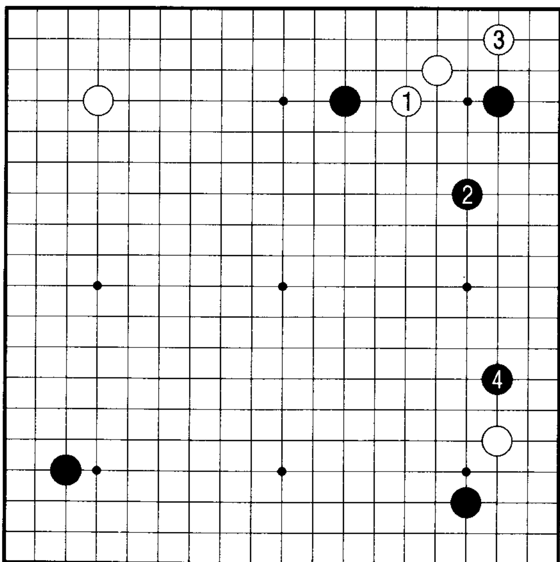




1도

1도(상용 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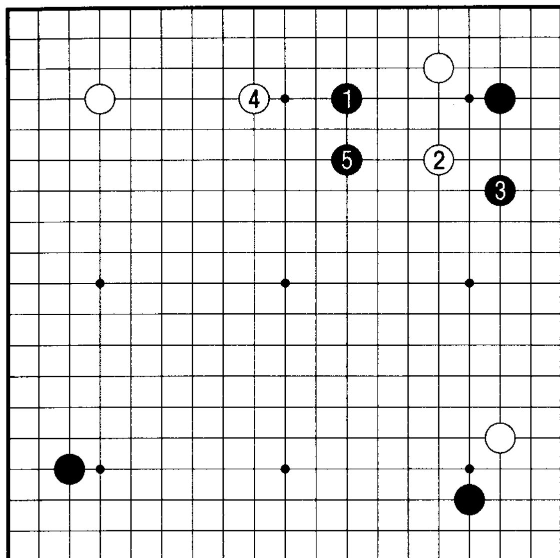
흑1로 협공했을 때 백2로 마늘모하면 가장 평범하다. 계속해서 흑3으로 날일자하고 백4, 흑5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쌍방 불만없는 모습이다.



2도

2도(흑의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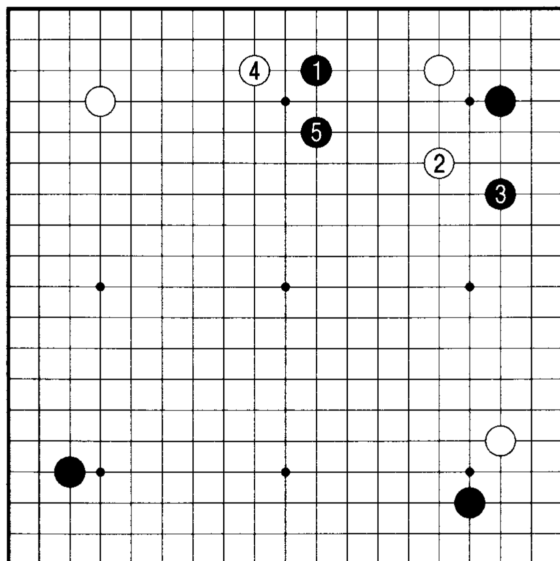
전도의 수순 중 백1로 마늘모했을 때 흑은 2로 눈목자해서 응수하는 수도 가능하다. 계속해서 백3을 기다려 흑4로 협공하겠다는 것이 흑의 작전이다.



3도

3도(전투형 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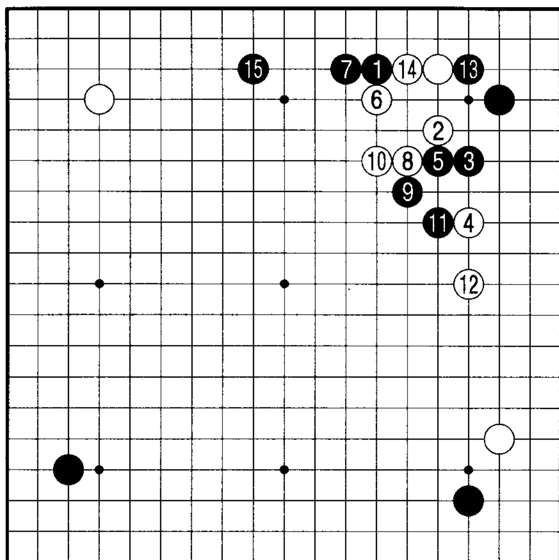
흑1로 협공했을 때 백2로 두칸 뛰면 복잡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흑3으로 받고 백4, 흑5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전형적인 전투형 포석이다.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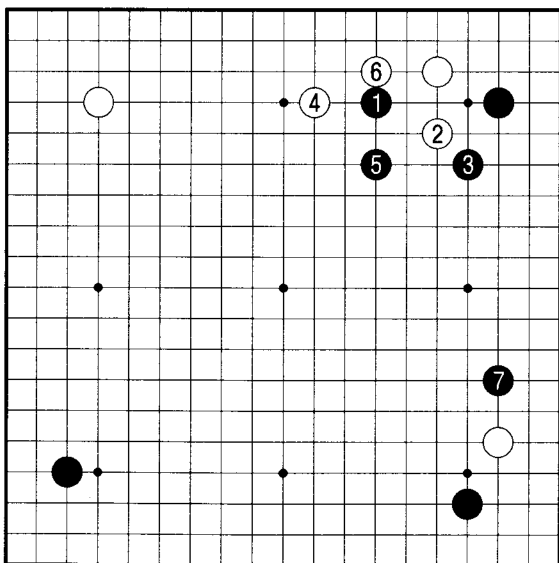
4도(흑, 세칸협공)

흑은 1로 세칸 협공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백2로 두칸 뛰고 흑3 이하 5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전도와 대동소이한 결말이다.


5도

5도(흑, 한칸 협공)

흑1로 한칸 협공하면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백2로 한칸 뛰고 흑3 이하 15까지는 정석적인 진행으로 쌍방 불만없는 모습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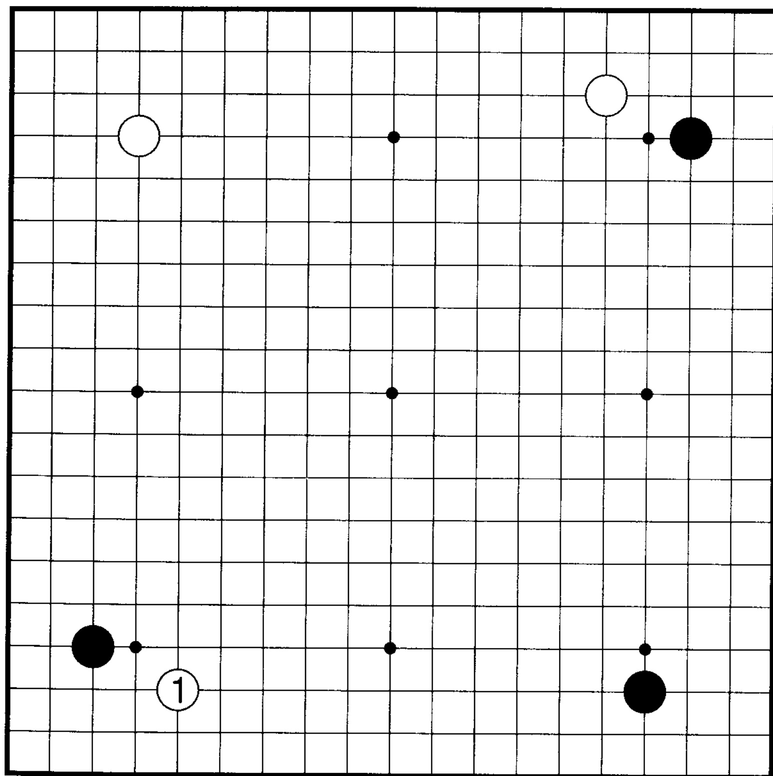
6도(한칸 높은 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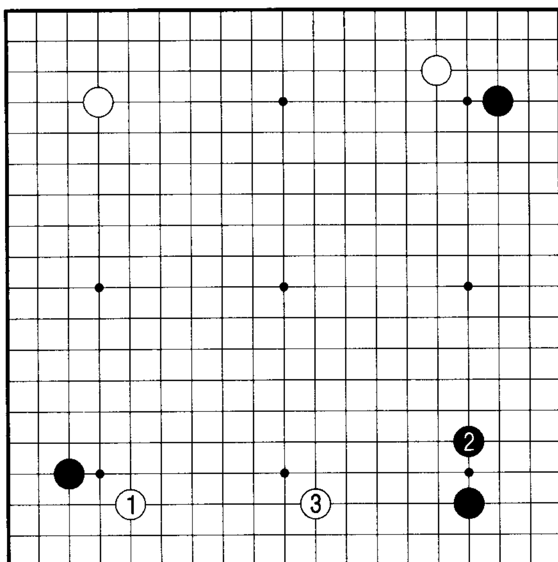
흑은 경우에 따라서 1로 한칸 높게 협공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백2로 받고 흑3 이하 백6까지 진행되었을 때 흑7로 공격하겠다는 것이 흑의 작전이다.

제74형

1·3·5 포석 5 — 응수타진의 걸침

1·3·5 포석에서 백이 1로 좌하귀를 걸치면 어떤 진행이 예상되는지 알아본다. 백1의 걸침은 흑의 견실한 작전에 대해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을 엿보는 응수타진의 성격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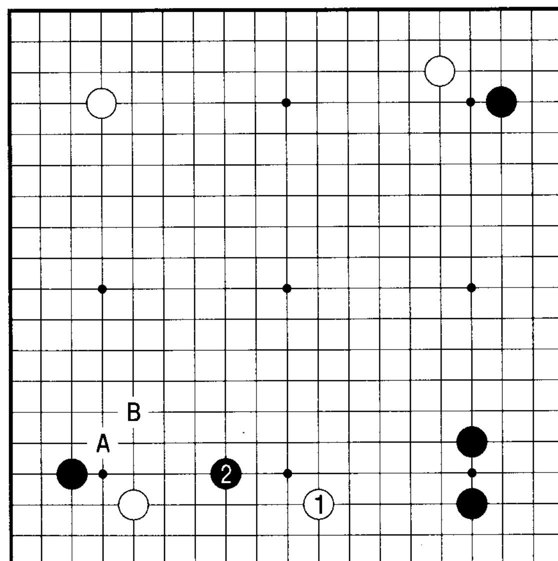




1도

1도(흑, 빈 귀굳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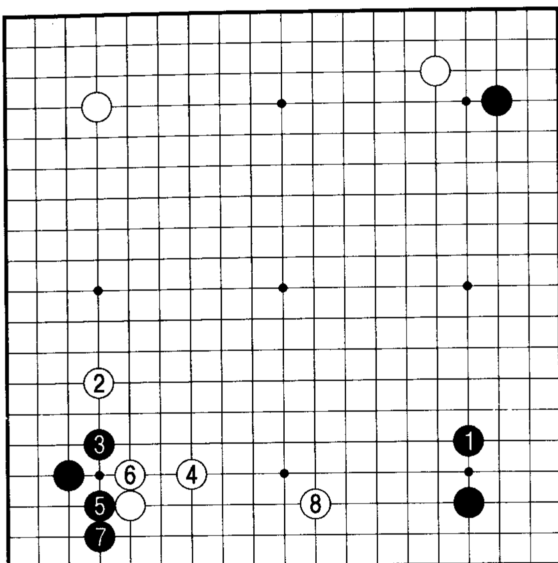
백1로 걸쳤을 때 평범하게 흑2로 빈 귀를 굳힐 수도 있다. 이후 백3으로 전개하는 포석 진행이 예상된다.



2도

2도(전투형 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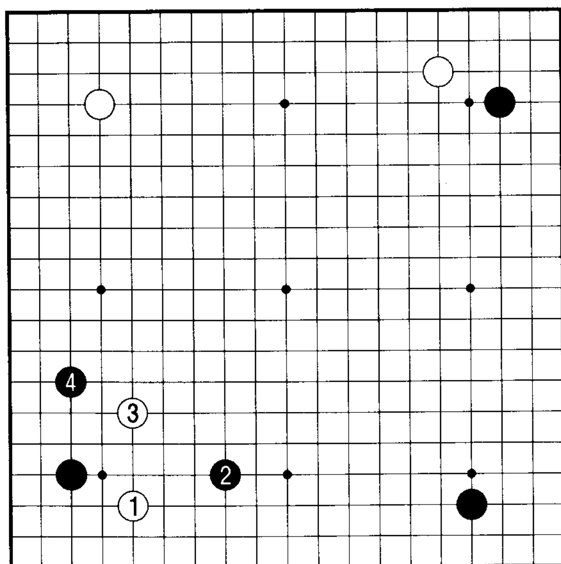
백1에는 흑2로 침입해서 전투를 유도하는 것이 현대 포석의 흐름에 부합하는 수이다. 계속해서 백은 A에 씌우거나 B로 뛰게 되는데 쌍방 어려운 전투가 예상된다.



3도

3도(백의 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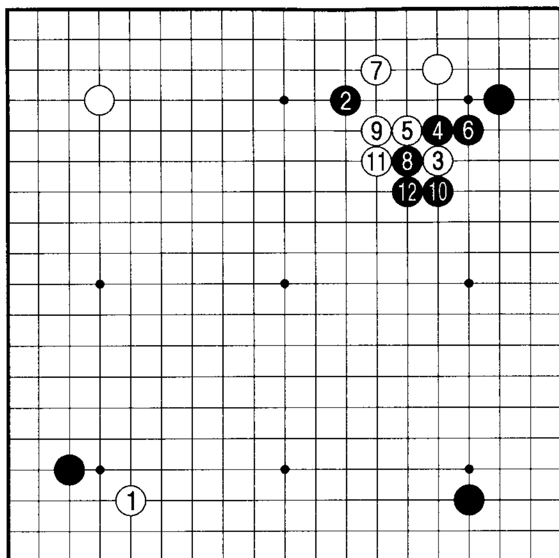
흑1로 귀를 굳혔을 때 백은 하변에 전개하지 않고 2로 씌워 귀를 공략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흑3으로 마늘모하고 이하 백8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쌍방 불만없다.



4도

4도(적극적인 협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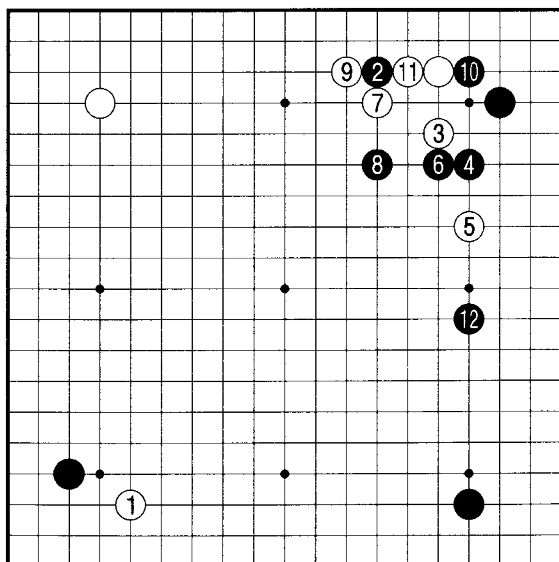
백1로 걸쳤을 때 흑2로 곧바로 협공하는 것이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적 감각의 진행이다. 계속해서 백3으로 뛰고 흑4까지 중앙전이 예상된다.



5도

5도(협공의 선택)

백1 때 흑은 2로 우상을 먼저 협공할 수도 있다. 이때 백3이라면 흑12까지의 진행이 예상된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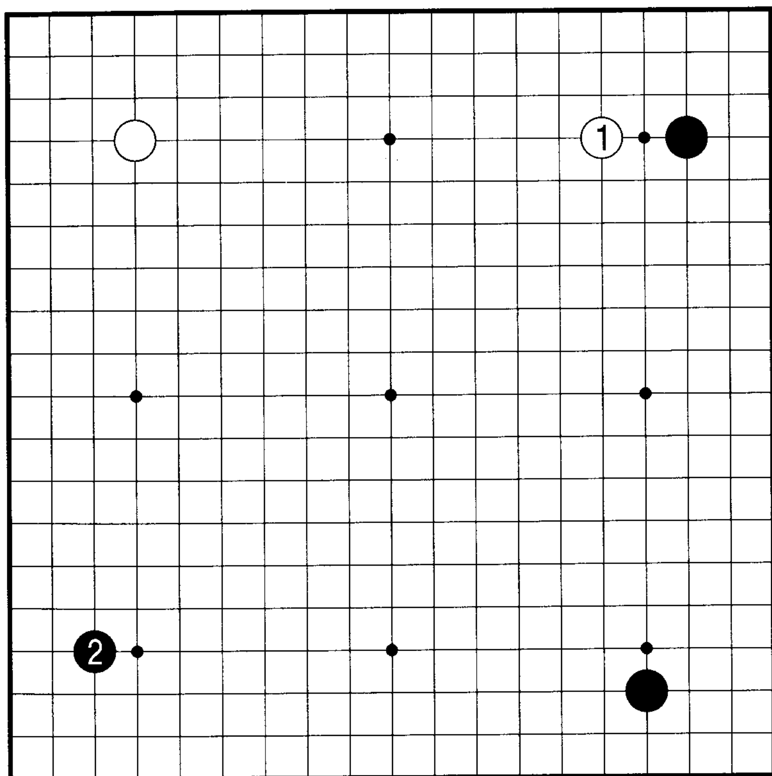
6도(흑, 빠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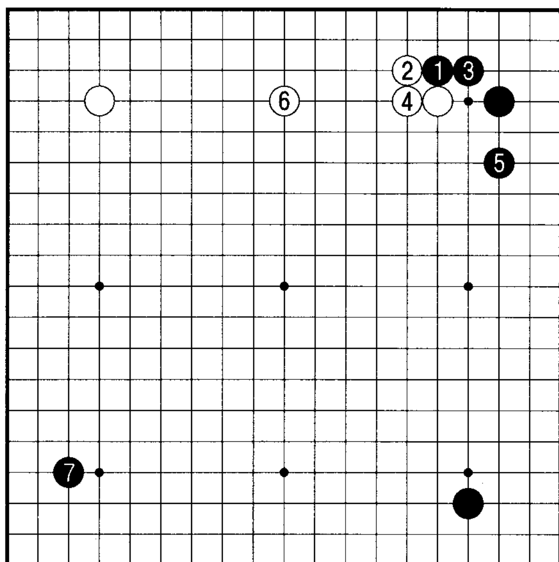
백1 때 흑2로 급공하여 이하 백7까지 진행된다면 8·10으로 결정한 후 12를 선점할 수 있다. 이 진행은 흑이 초반을 주도하는 포석 흐름이다.

제75형

1·3·5 포석 6 — 높은 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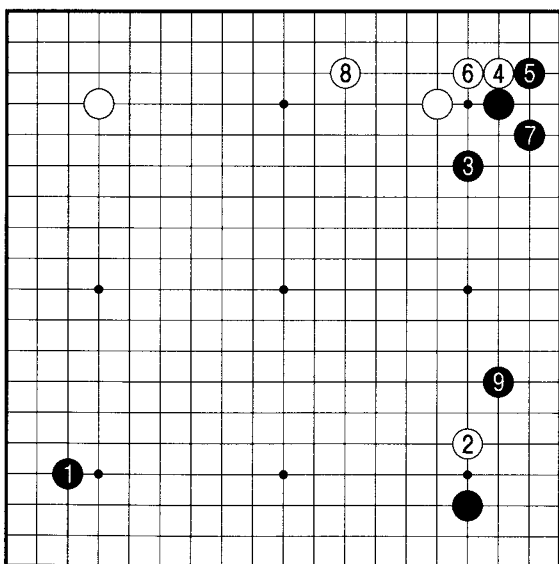
백1로 높게 걸쳤을 때의 1·3·5 포진은 어떤 진행이 예상되는지 알아본다. 백1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견실한 흑의 작전을 견제하려는 현대적 감각의 포석 구상이다.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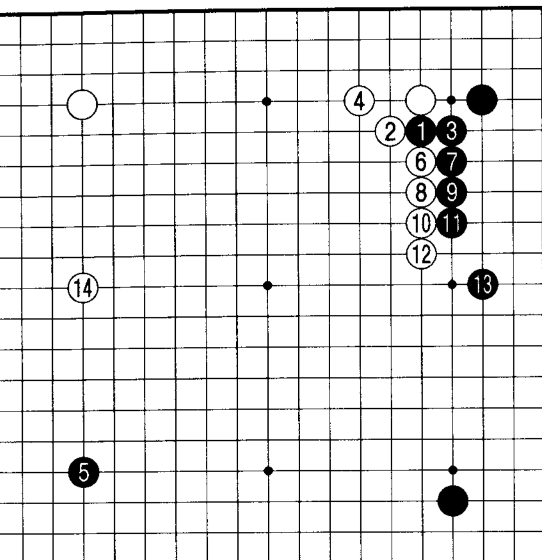
1도(흑, 실리형)

흑은 1·3·5 포진을 하기 전에 미리 1로 두어 백6까지 결정하고 7의 빈 귀를 차지할 수도 있다.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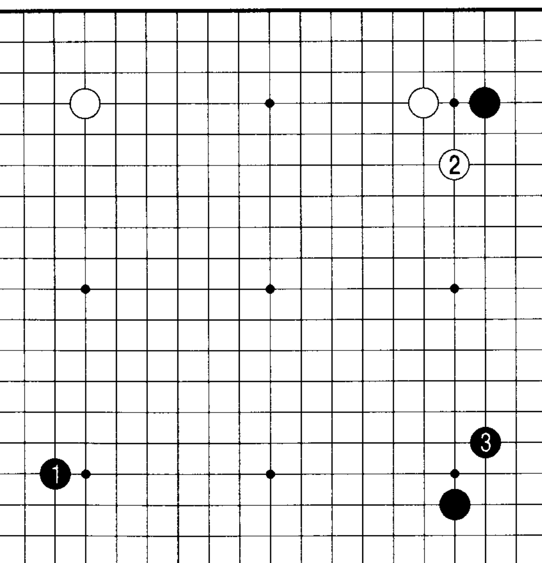
2도(고풍 포석)

흑1 다음 백2의 걸침에 흑3의 날일자로 받는 자세는 고풍스러운 진행이다. 이하 백8까지를 결정하고 흑9로 협공하는 포석이 예상된다.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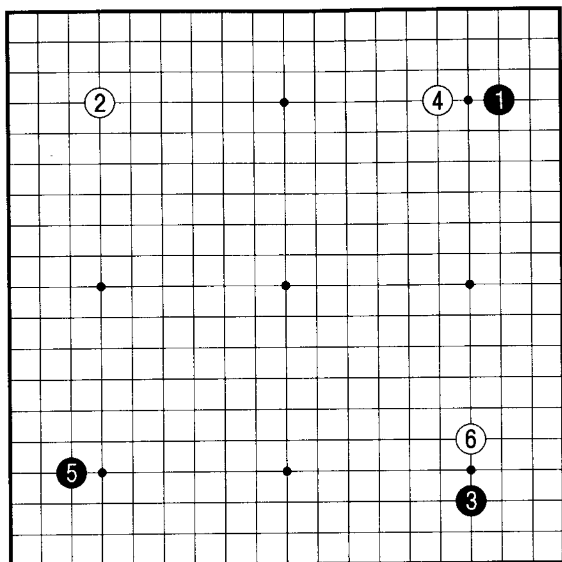
3도(백, 넓은 포진)

흑1·3을 결정하고 5를 차지하면 백6부터 압박하는 진행이 예상된다. 이하 14를 백이 선점하게 되면 백이 넓은 바둑이다.


4도

4도(무난한 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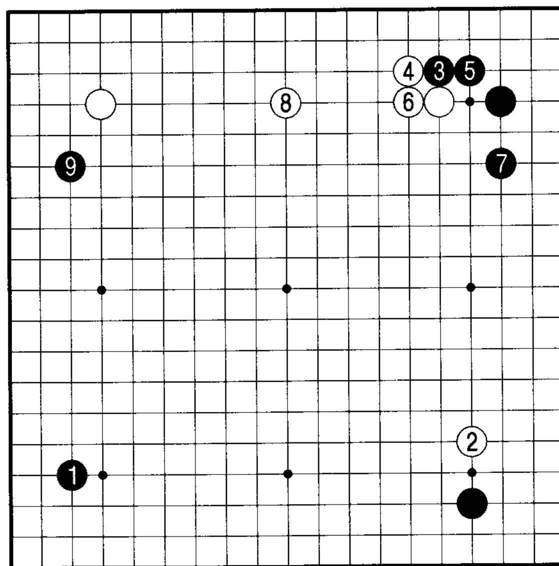
흑1 때 백은 2로 씌워 유연하게 둘 수도 있다. 흑이 3으로 지키면 서로 무난한 포석 진행이 예상된다.



5도

5도(백, 높은 걸침)

흑의 1·3·5 포석에 대해 백은 4·6처럼 한칸 높게 걸치는 수도 가능하다. 백4·6은 속도와 중앙을 중시하는 현대 포석의 흐름에 부응해서 가능한 수단이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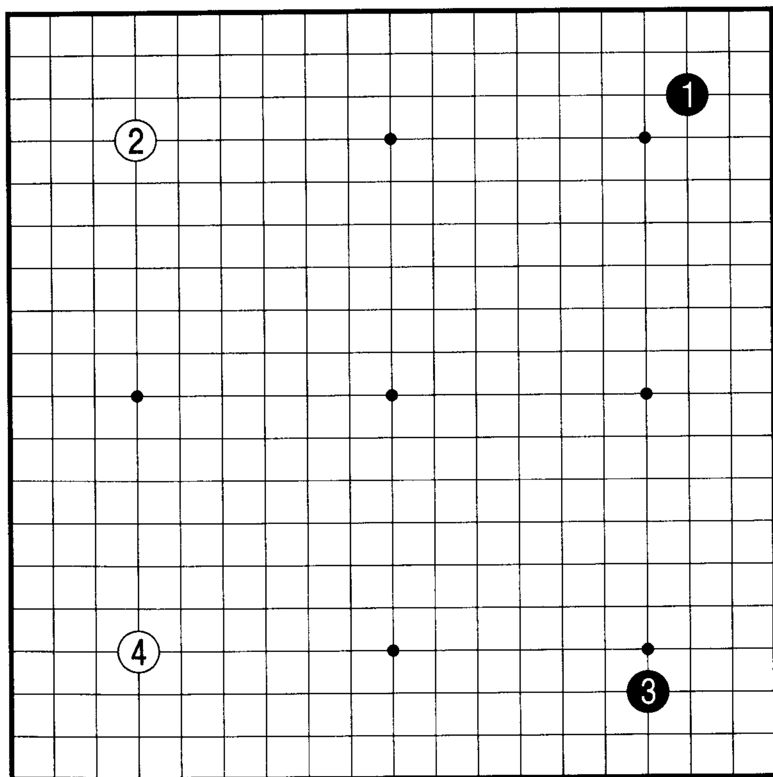
6도(평범한 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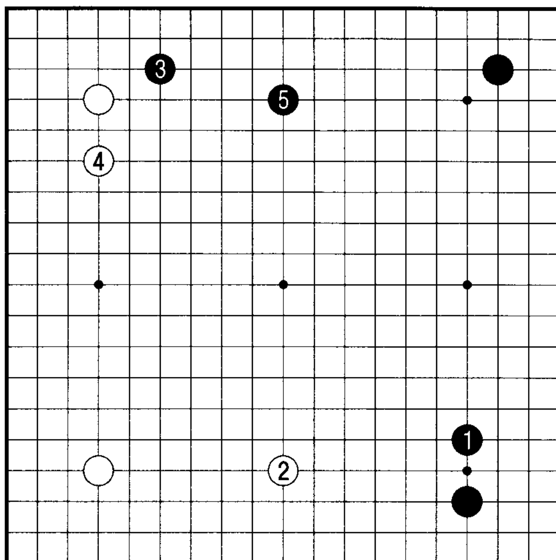
흑1 때 백이 2로 걸치게 되면 흑9까지의 진행이 예상되는데 이 흐름은 평범한 포석이다.

제76형

소목 · 3 · 三 포석 1(2연성 대응) — 실리위주의 포석

흑이 첫 수를 3·三에 착점한 모습이다. 3·三은 극단적인 실리위주의 포석을 펼치고자 할 때 유력한 수단인데 이후의 포석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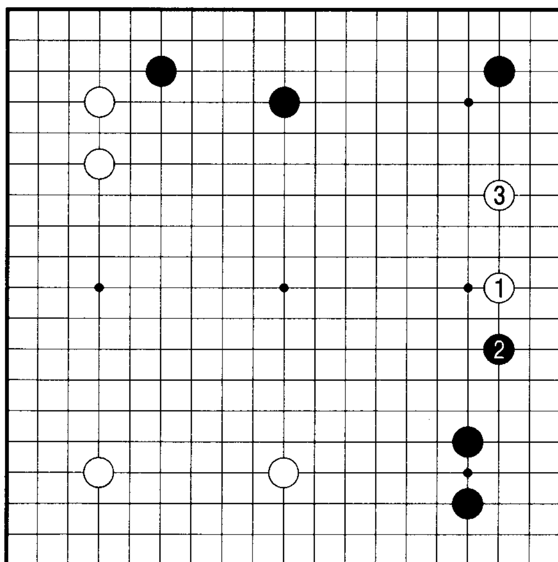




1도

1도(흑, 귀굳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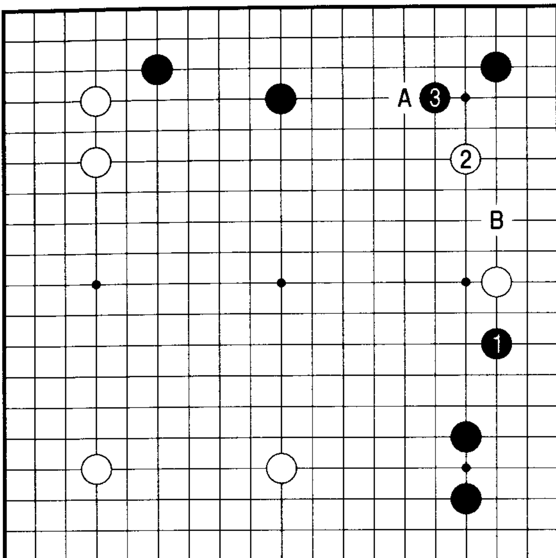
흑은 1로 귀를 굳히고 두는 것이 견실한 작전이다. 계속해서 백2로 전개하고 이하 흑5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인데 쌍방 불만없는 모습이다.



2도

2도(백, 갈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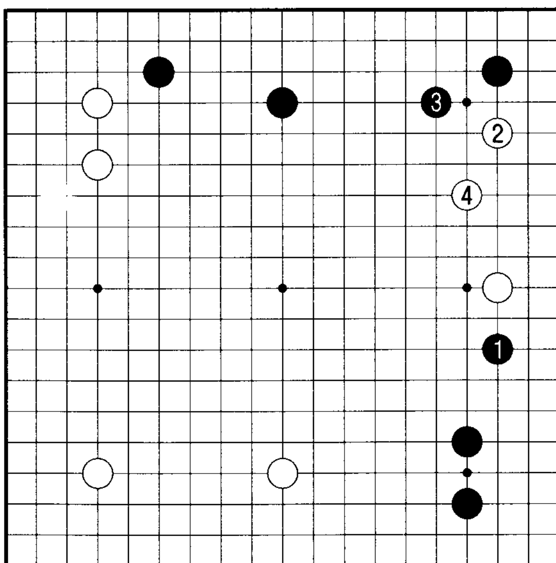
전도 이후 백은 우변에 갈라치는 것이 거의 절대이다. 백1로 갈라치면 흑2로 다가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백3으로 안정하기까지가 예상되는 진행이다.



3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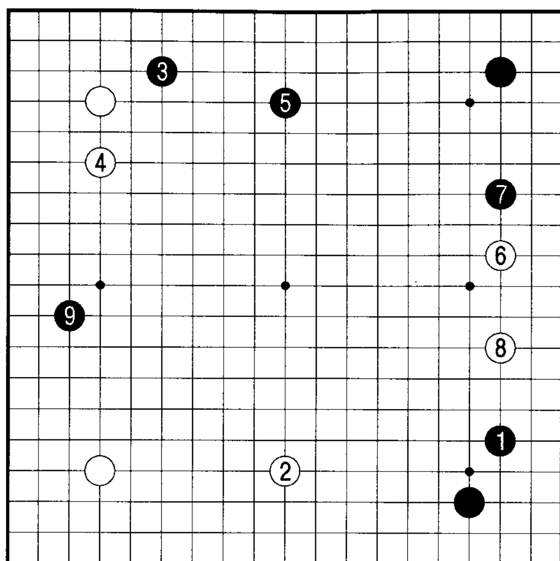
3도(흑의 노림)

흑1로 다가섰을 때 백은 2로 높게 걸칠 수도 있다. 흑은 3 또는 A에 받고 난 후 B의 침입을 노리는 것이 좋다.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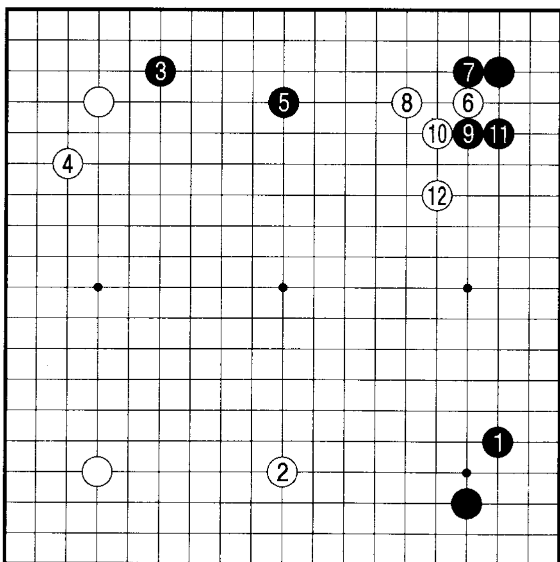
4도(백, 견실)

흑1 때 백은 2로 바짝 다가설 수도 있다. 계속해서 흑3으로 받는 정도일 때 백4로 지켜 두면 견실한 모습이다. 그러나 견실한 반면에 발이 느린 것이 흠이다.


5도

5도(흑, 날일자 굳힘)

흑이 1에 굳히게 되면 갈라침의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백은 2의 전개를 선택한다. 이후는 6으로 백이 우변을 갈라칠 때, 흑도 9로 좌변 백진을 갈라치는 진행이 예상된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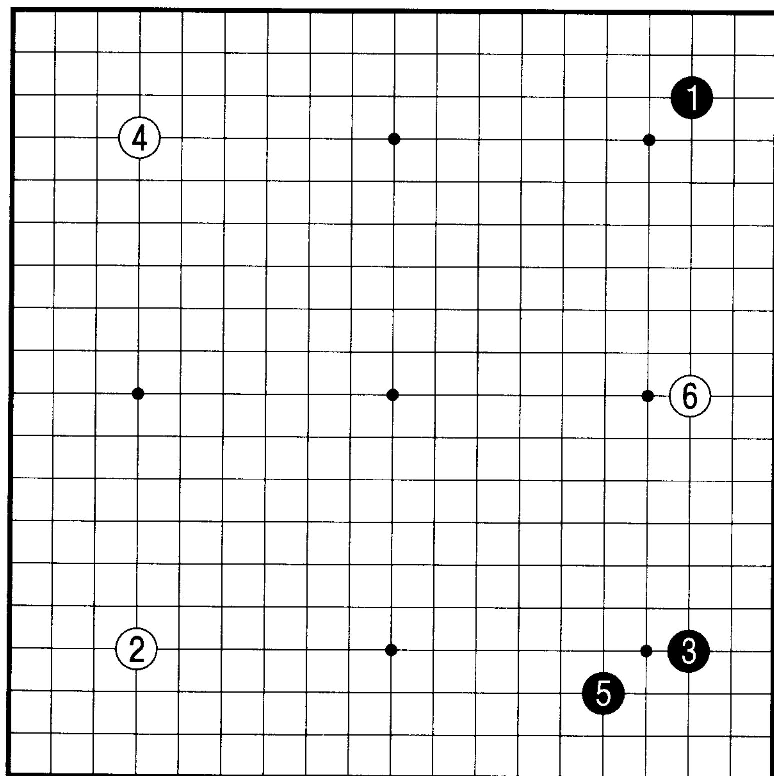
6도(3·三의 어깨짚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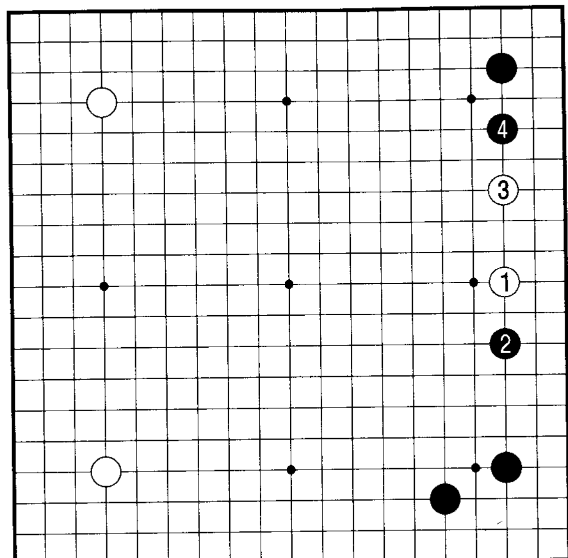
흑5까지 진행되었을 때 백은 6으로 3·三의 어깨짚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후 백12까지 무난한 포석 진행이다.

제77형

소목 · 3 · 三 포석 2(2연성 대응) — 날일자 굳힘

흑1 · 3의 포진. 백2 · 4 때 흑은 5로 날일자해서 굳히는 수도 가능하다. 이때는 백6으로 갈라치는 것이 거의 절대점으로 작용한다. 그럼 이후의 포석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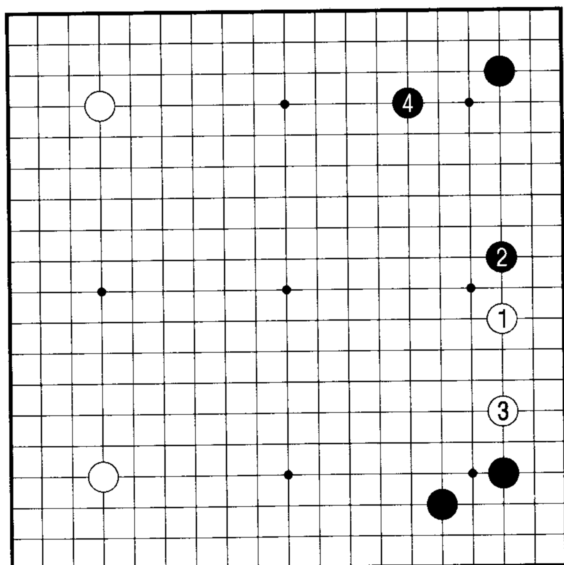




1도

1도(예상 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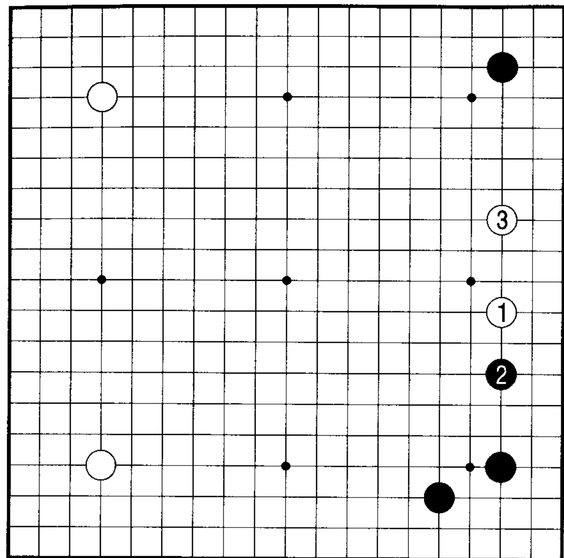
백1로 갈라치면 흑은 2로 다가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계속해서 백3으로 두칸 벌려 일단락인데 쌍방 불만없는 포석 진행이다. 수순 중 흑4는 필수.



2도

2도(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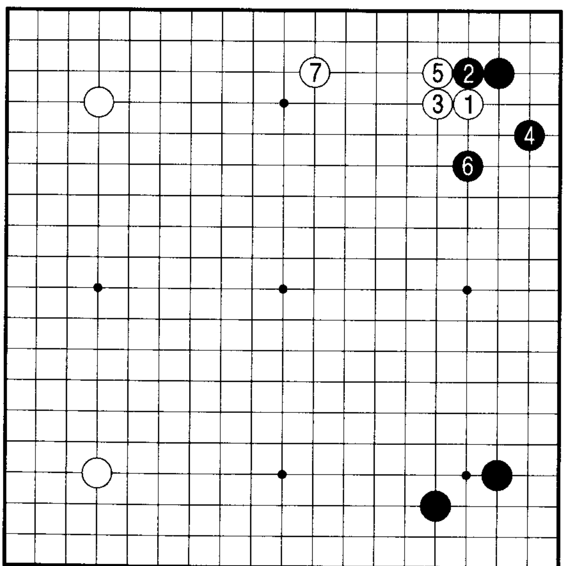
백은 1로 갈라칠 수도 있다. 이때는 흑2로 다가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속해서 백3으로 두칸 벌린다면 흑4로 눈목자해서 우상귀 방면을 크게 키울 수 있다.



3도

3도(백,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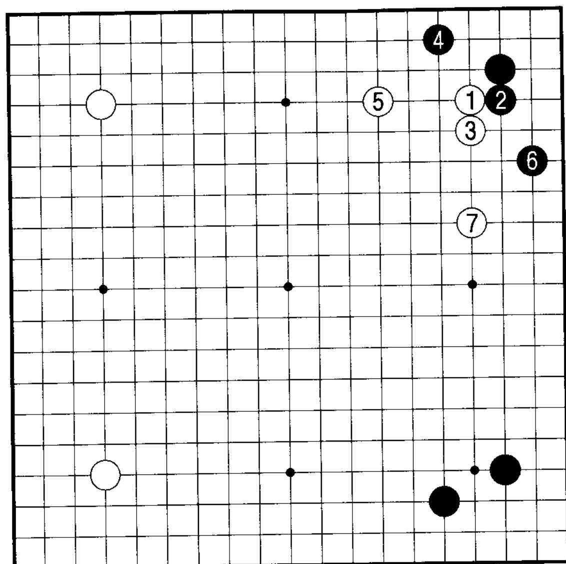
백1 때 흑2로 다가서는 것은 견실하지만 폭이 좁은 것이 흠이다. 백은 3으로 두칸 벌려서 충분한 모습이다.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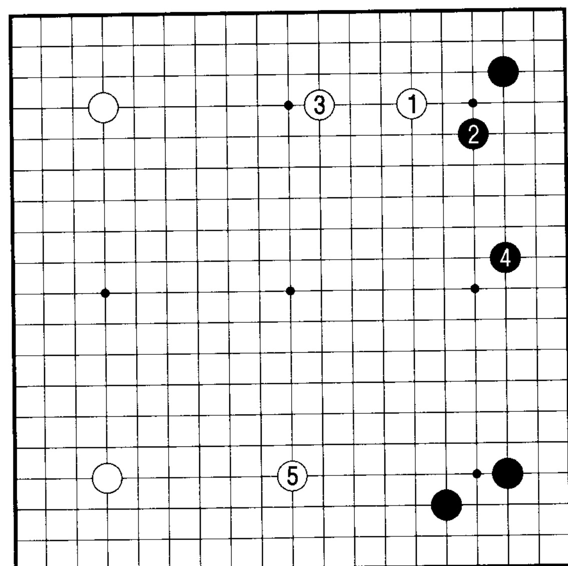
4도(백의 별책)

백은 1로 두는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하 백7까지 이 결과는 백이 다소 넓은 포석 흐름이다. 흑으로서는 이 진행보다 흑2로……


5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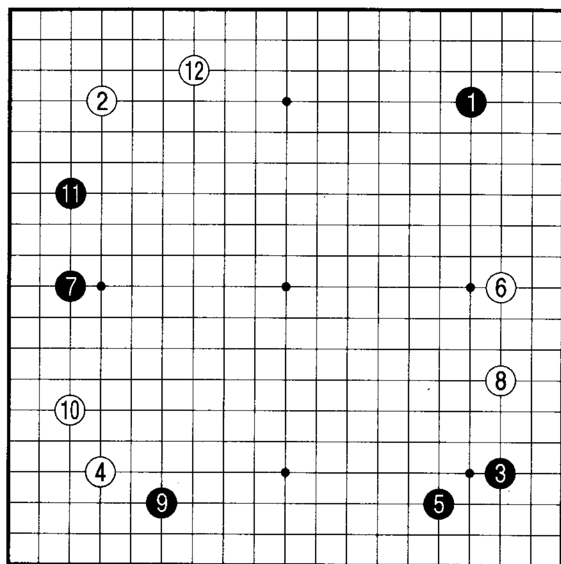
5도(흑의 방향)

백1로 어깨짚을 때 흑2 쪽을 미는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하 백7까지 이 포석 흐름은 쌍방 불만이 없다.


6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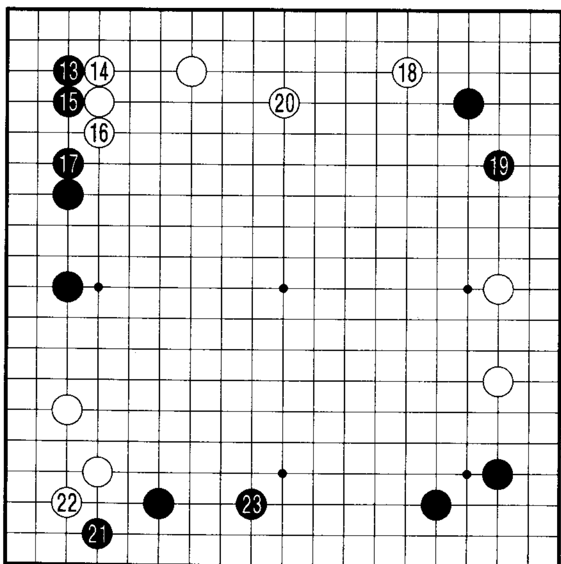
6도(백의 별책)

백은 1로 걸쳐가는 진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하 백5까지 이 포석 진행도 서로 무리가 없다.


〈1보〉

1보(1~12)

8기 기성전 도전5국에서 백의 최명훈을 상대로 이창호가 구사한 흑의 화점 · 소목 포석이다. 백6의 갈라침에 흑도 7로 갈라쳐 지구전의 양상이다.


〈2보〉

2보(13~23)

흑13에는 백14로 받는 것이 정수이다. 백은 선수를 잡아 18로 걸치고 20으로 상변을 구축한다. 흑도 하변을 구축하여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